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가 모여,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가 됩니다.

2024년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차 례

I. 아동행복지수 추이 및 하루 생활 소개	1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비교	2
1) 4개년 추이 (증감)	2
2) 아동행복지수 (상) vs (중하)	6
3) 3개년 아동 심리정서 추이	14
2. 전반적인 생활시간	16
3.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	18
1) 필수시간	18
2) 학업시간	23
3) 여가시간	31
4. 지역별 시간 사용 비교	40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40
5. 장소, 활동,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사용	42
1) 방과 후 장소	42
2) 방과 후 활동	45
3) 함께한 사람	47
II. 아동행복지수 관련(촉진, 저해) 요인	49
1. 요즘 아이들 생활 특성과 아동행복지수	50
1) 밤에 쉽게 잠 못 드는 아이들	50
2)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	54
3)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56
2. 학교급(연령)과 아동행복지수	59
1) 시간요인	60
2) 심리정서 요인	62
3) 공부요인	65
4) 관계요인	70
5) 균형시간 인식 요인	74
6) 기타	75
III.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77
1. 지역별 아동행복 지수 비교	78
1) 아동행복지수 비교	78
2) 아이들의 하루 일상 차이	80

3) 주요시간 균형 정도	83
4) 주관적 행복감	86
2. 상위지역 VS 하위지역	88
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 순위	88
2) 상·하위지역 간의 하루 일상 차이	91
3) 상·하위지역 아동행복지수 촉진·저해 요인	97
VI. 시사점	112
1.2. 아동행복지수와 아이들의 일상분석 및 촉진·저해요인	113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겪는 수면 부족과 불면	113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의 사교육 중심 생활에서의 변화 노력	115
3) 법적 개선 과제	116
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아이들의 일상 비교	118
1) ‘아동일상행복도시’의 지역·학교·가정 여건 확인	118
2) 초록우산 ‘아동일상행복도시’ 제안	121
부록	123

<표 차례>

<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3
<표 2> 4개년 주요 시간량 비교	3
<표 3> 4개년 주요시간 균형정도	4
<표 4>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행복감	5
<표 5>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	6
<표 6> 행복지수별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	7
<표 7> 수면시간 × 수면시간 인식	7
<표 8> 공부시간 × 공부시간 인식	8
<표 9> 운동시간 × 운동시간 인식	8
<표 10> 집콕 선호 여부	9
<표 11> 집콕 선호 이유	10
<표 12>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10
<표 13> 혼밥 여부	11
<표 14> 평일 혼밥 시간대	11
<표 15> 저녁혼밥 장소	11
<표 16> 어머니 직업유무별 혼밥 여부	12
<표 17> 어머니 직업별 혼밥 여부	12
<표 18> 어머니 직업별 혼밥 장소	12
<표 19> 불면 여부	13
<표 20> 학교급별 불면 이유	13
<표 21>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14
<표 22> 심리정서 4개년 추이	15
<표 23>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포함)	17
<표 24>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제외)	17
<표 25>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차이	18
<표 26> 성별, 학교급별 취침 및 기상 시각	20
<표 27>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20
<표 28>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21
<표 29>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차이	24
<표 30>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25
<표 31>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25
<표 32> 학교급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26
<표 33> 학교급별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27
<표 34> 방과 후 시간대별 사교육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27
<표 35> 방과 후 시간대별 혼자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28
<표 36>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시간 차이	29
<표 37> 대면교제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32
<표 38> 방과 후 시간대별 친구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	32
<표 39> 방과 후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33
<표 40>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34
<표 41>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1)	36
<표 42>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2)	36
<표 43> 방과 후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37
<표 44>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38
<표 45> 방과후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38
<표 46> 방과 후 시간대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39

<표 47> 지역규모별 시간 사용 및 차이	41
<표 48> 방과 후 학교급별, 장소별 머무른 시간	42
<표 49>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저학년생)	43
<표 50>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고학년생)	43
<표 51>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중학생)	44
<표 52>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고등학생)	44
<표 53>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	45
<표 54> 집콕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별 행위자 비율(방과 후~잘 때까지)	46
<표 55> 시간대별 수면 행위자 비율	46
<표 56> 학교급별, 방과 후 함께한 사람별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47
<표 57> 방과 후 시간대별 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비율	48
<표 58>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50
<표 59> 학교급별 불면	51
<표 60> 학교급별 불면 이유	51
<표 61> 불면경험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52
<표 62>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해여부)	52
<표 63>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53
<표 64>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53
<표 65>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고민상담자 여부)	53
<표 66>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행복지수 비교	54
<표 6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55
<표 68>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55
<표 69>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우울·불안)	55
<표 70>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56
<표 71>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57
<표 72>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해여부) 비교	57
<표 73>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자살생각) 비교	58
<표 74>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58
<표 75>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고민상담자)	58
<표 76>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59
<표 77> 주행동 시간요인(증가시간)	60
<표 78> 주행동 시간요인(감소시간)	61
<표 79> 심리정서 요인	62
<표 80> 학교급별 자해 여부	63
<표 81> 학교급별 자살생각 여부	63
<표 82> 학교급별 자살생각 이유	64
<표 83> 학교급별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여부	64
<표 84> 부모 및 관계요인	65
<표 85> 정규수업 후(방과 후) 제일 먼저 가는 곳	66
<표 86> 방과 후 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	66
<표 87>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67
<표 88>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67
<표 89>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방과 후 학교)	68
<표 90>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68
<표 87>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69
<표 88> 학교급별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	70
<표 93> 학교급별 가족과의 대화주제	70
<표 90> 학교급별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 대화	71

<표 95> 집콕 선호 여부	71
<표 96> 학교급별 집콕 선호 이유	72
<표 97> 학교급별 고민상담 대상	73
<표 98> 학교급별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74
<표 99> 학교급별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74
<표 100> 학교급별 과도한 미디어 사용	75
<표 101> 학교급별 결석 여부 및 일수	75
<표 102> 학교급별 희망하는 직업 유형	76
<표 10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및 순위	79
<표 10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80
<표 105>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84
<표 106>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	87
<표 107> 17개 시도별 행복지수 및 순위	89
<표 108>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하위 5개 지역 선정	89
<표 109> 상·하위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90
<표 110>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90
<표 111>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91
<표 11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차이 및 상관관계	92
<표 11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93
<표 11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상관관계	94
<표 11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비교	94
<표 11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방과 후 시간 간의 상관관계	94
<표 11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 지역별 운동시간 비교	95
<표 11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간의 상관관계	95
<표 11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비교	96
<표 12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	100
<표 12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지역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101
<표 12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102
<표 12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02
<표 12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요인 간의 상관관계	103
<표 12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차이비교	104
<표 12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상관관계	104
<표 12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부모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04
<표 12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간의 상관관계	105
<표 12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05
<표 13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기관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106
<표 13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106
<표 13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등록이유 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07
<표 13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등록이유 비율 간의 상관관계	107
<표 13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10
<표 13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간의 상관관계	110
<표 13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불면여부	110
<표 13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11
<표 13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	111
<표 139> 지역 인프라 원점수	124
<표 140> 시도별 과밀학급 학생 비율 및 학급당 학생 수 평균	125
<표 141>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연간 누적 학생 수 및 비율	126
<표 142> Compulsory Instruction Time (의무교육시간) In General Education 2022	127

<그림 차례>

[그림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2
[그림 2]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주관적 행복감	5
[그림 3]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14
[그림 4] 우울·불안 4개년 추이	15
[그림 5] 정서학대 4개년 추이	15
[그림 6] 전반적인 시간사용	16
[그림 7] 전반적인 시간사용 세부내용	16
[그림 8] 학교급별 비교	16
[그림 9] 성별 비교	16
[그림 10] 빈곤 여부별 비교	16
[그림 11] 학교급별 필수시간	18
[그림 12] 성별 필수시간	18
[그림 13]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18
[그림 14] 학교급별 취침시각	19
[그림 15] 성별 취침시각	19
[그림 16] 학교급별 기상시각	19
[그림 17] 성별 기상시각	19
[그림 18]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20
[그림 19]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21
[그림 20] 학교급별 학업시간	23
[그림 21] 성별 학업시간	23
[그림 22]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23
[그림 23] 학교급별 학업시간 세부	23
[그림 24]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세부	23
[그림 25]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24
[그림 26]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26
[그림 27]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27
[그림 28] 성별 혼자공부	29
[그림 29]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29
[그림 30] 학교급별 혼자공부	29
[그림 31] 학교급별 대면교제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31
[그림 32] 빈곤 여부별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34
[그림 33]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전체 평균시간	35
[그림 34]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	36
[그림 35] 지역별 시간사용	40
[그림 36]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50
[그림 3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54
[그림 38]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56
[그림 39]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59
[그림 40]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방사형)	78
[그림 41]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막대형)	78
[그림 4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상·중·하위 시도	79
[그림 43]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80
[그림 4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영역별)	81
[그림 45]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균형정도(꺾은선형)	83
[그림 46] 17개 시도별 수면시간	85

[그림 47] 17개 시도별 공부시간	85
[그림 48]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85
[그림 49] 17개 시도별 운동시간	85
[그림 50]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방사형)	86
[그림 51]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막대형)	86
[그림 5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중위, 하위 지역	88
[그림 53]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평균비교	90
[그림 54]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시간:분)	91
[그림 5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시간:분)	92
[그림 5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93
[그림 5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시간:분)	94
[그림 5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시간:분)	95
[그림 5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시간:분)	96
[그림 60] 상·하위 지역별 안전 및 문화 인프라 수준	97
[그림 6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세부 항목별)	97
[그림 6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비교	102
[그림 6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103
[그림 6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점)	104
[그림 6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105
[그림 6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106
[그림 6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08
[그림 6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범죄율(%)	111

일 러 두 기

□ 정량 조사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이메일/모바일을 이용한 웹조사(time diary, 설문 조사)
 - ※ 초등 저학년: 양육자 대리 조사,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청소년 본인 조사
- 조사 대상
 - 일반 가구: 어린이재단이 직접·간접(협력기관) 관리를 하지 않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초1학년~고등2학년)
 - 저소득 가구: 어린이재단이 직접·간접(협력기관) 관리 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초1학년~고등2학년)
- 표본 크기: 10,140명(일반 가구 10,020명, 저소득 가구 120명)
- 표본추출방법: 층화추출법(95% 신뢰수준에서 $\pm 0.97\%p$)
- 조사 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3년 12월 29일(4주)
- 조사 수행: (주)한국리서치

일 러 두 기

□ 2024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생활시간) 결과에서 사용한 용어 및 기준집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량) 및 비율

- 시간: 전체 대상자(특정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의 평균시간
- 행위자 비율: 특정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들의 평균시간

○ 필수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행동분류

- 필수시간: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
 - ① 수면 ② 식사 ③ 개인유지
- 학습시간: 학교수업, 학교수업 외 학습 등 해야 하는 공부와 관련된 시간
 - ④ 학교 수업: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과목들 / 쉬는 시간
/ 기타 학교수업(창의체험,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 ⑤ 학교 수업 외 학습: 학원·과외 수업(국어, 수학, 영어/ 그 외 과목들)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국어, 수학, 영어/ 그 외 과목들)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 여가시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
 - ⑥ 대면교제: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 /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
 - ⑦ 미디어 외 여가: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춤추기/악기연주/그림 그리기,
종이책 읽기(만화, 잡지, 신문 포함)
운동 및 신체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 ⑧ 미디어 여가: 게임(PC,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영상시청(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케이블/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대화 및 연락(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전자책 읽기(만화, 잡지, 신문 등)
 - ⑨ 기타

I. 아동행복지수 추이 및 하루 생활 소개

I. 아동행복지수 추이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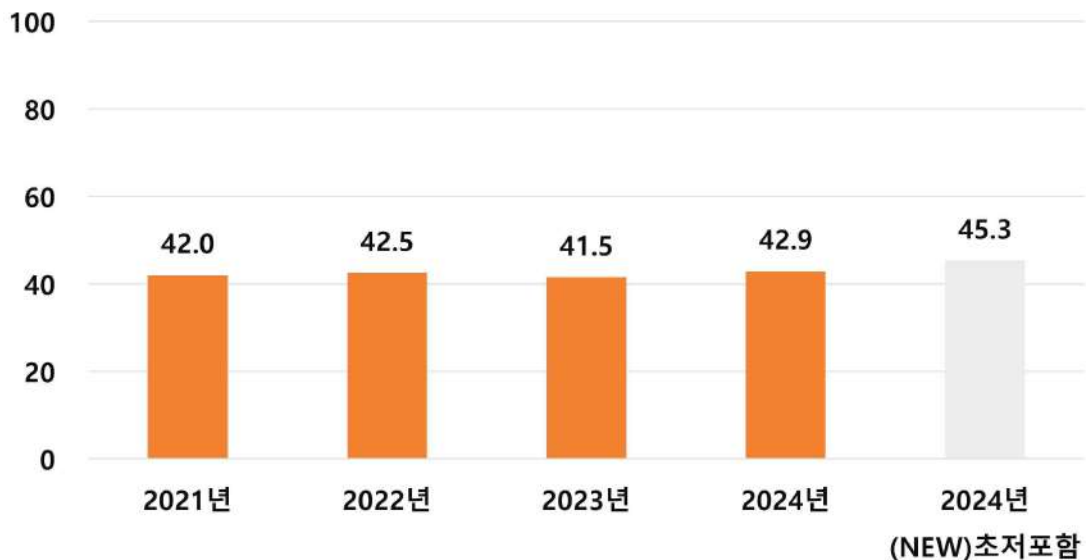
1) 4개년 추이 (증감)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총 100점 만점 중 42.9점으로, 2021년도에 비해, 과소수면(▲10%p), 과다공부(▲11%p) 아이들이 증가함
아동행복지수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감도 달라져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8.2점)은 아동행복지수가 0인 아이들보다(6.3점) 1.9점 더 높음

□ (아동행복지수 추이)

-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42.9점으로 2023년보다 1.4점 높은 점수로, 작년보다 수면시간은 늘고 공부시간이 줄어들음
- 코로나19 이후, 공부시간이 급증하다(2022년, 2023년) 2024년 소폭 감소함
- 2021년에 비해(2024년-2021년) 전반적으로 수면시간은 15분 감소하고, 공부시간은 28분 증가함

[그림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주: <2024 아동행복지수>는 '초등 저학년(1~3학년)'도 조사에 포함되어, 초등 저학년이 포함된 지수 값도 함께 표기함

〈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단위(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new)*	
아동행복지수	42.0	42.5	41.5	42.9	초등 저학년 포함	45.3
					동시행동 '미디어 시간' 포함	42.9

주: 아동행복지수 총 100점 만점

〈2024년 아동행복지수〉부터 '초등 저학년'이 포함된 지수, '동시행동으로 잡힌 미디어 시간을 포함한 경우'를 모두 병기함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표 2〉 4개년 주요 시간량 비교

단위(시간:분)

아동행복지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 2021년	2024년 (초등 저학년 포함)	
수면시간	8:14	7:49	7:51	7:59		-0:15	8:25	
공부시간	2:27	3:02	3:11	2:55		0:28	2:45	
미디어시간	2:34	2:02	1:58	2:00		-0:34	1:49	
				(동시행동 미디어 포함)	2:23	-0:11	(동시행동 미디어 포함)	2:10
운동시간	0:11	0:18	0:15	0:15		0:04	0:16	

주: 시간 계산에 포함된 행동코드표

□ 과소수면, 과다공부 증가

- 2024년 아이들의 일상생활 균형을 위협하는 과소수면, 과다공부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에 비해 모두 늘어나 2021년보다 2024년에 과소수면 10%p 증가, 과다공부 11%p 증가함
- 과다미디어 아동 비율(38.8%)로 2021년(53.8%)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

〈표 3〉 4개년 주요시간 균형정도

단위(명, %)

아동행복지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2021	2024 (초등 저학년 포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비율	학생 수	비율
□ 수면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287	15.7	1,088	24.6	582	26.1	1,895	25.2	10	1,902	18.8
권장(적정)	1,537	84.2	3,320	75.1	1,648	73.9	5,596	74.6	-10	8,223	81.1
과다	1	0.1	12	0.3	1	0.0	15	0.2	0	15	0.2
□ 공부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402	22.0	892	20.2	360	16.1	1,240	16.5	-5	1,424	14.0
권장(적정)	547	30.0	1,020	23.1	477	21.4	1,831	24.4	-6	2,118	20.9
과다	876	48.0	2,508	56.7	1,394	62.5	4,435	59.1	11	6,598	65.1
□ 미디어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권장	844	46.2	2,630	59.5	1,368	61.3	4,593	61.2	15	6,728	66.3
							(a) 3,861	(a) 51.4	5	5,776	57.0
과다	981	53.8	1,790	40.5	863	38.7	2,912	38.8	-15	3,412	33.7
							(a) 3,644	(a) 48.6	-5	4,364	43.0
□ 운동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1,692	92.7	3,866	87.5	2,010	90.1	6,657	88.7	-4	8,840	87.2
권장	133	7.3	554	12.5	221	9.9	849	11.3	4	1,300	12.8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a: 동시행동 미디어시간 포함 시

□ 아동행복지수와 주관적 행복감

- 아이들의 일상이 얼마나 균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동행복지수’의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각 생활에서 ‘권장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봄
- 주요 4개 생활 영역인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에서의 시간이 ‘권장’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즉,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인 아동행복지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곧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더 균형 잡힌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함
- 4개 생활 영역 모두에서 ‘권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즉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과소’나 ‘과다’한 생활로 사는, 즉 아동행복지수가 0점인 아이들에 비해 실제 주관적 행복감이 1.9점 더 높음

〈표 4〉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행복감

단위(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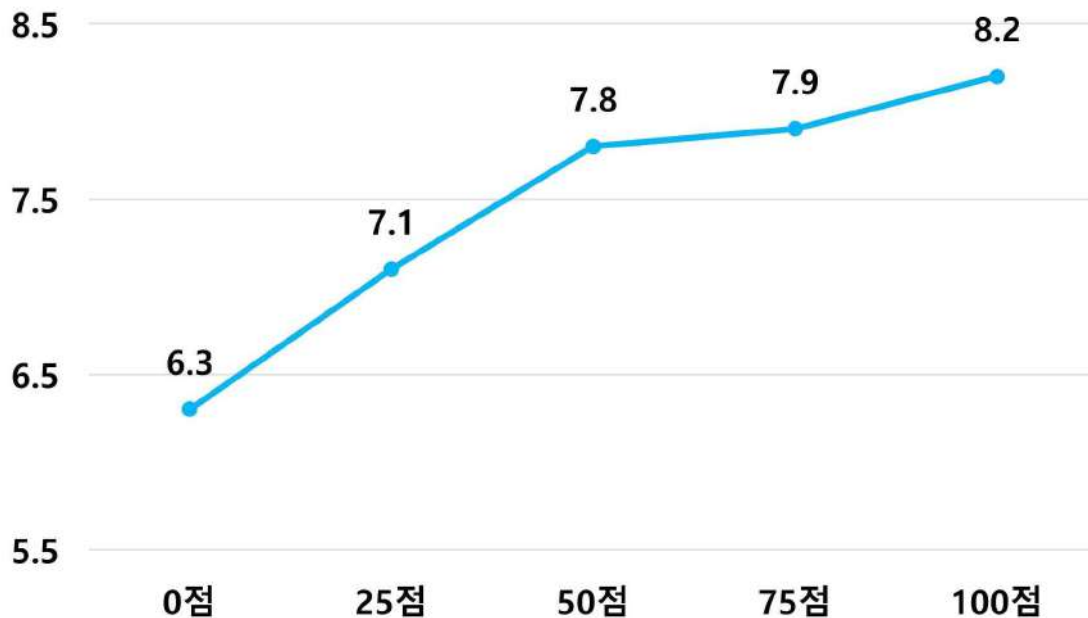
			학생 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사후분석
아동행복지수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0개	0점	697	6.3	2.0	169.408	0.000	0개 < 1개 < 2개, 3개, 4개
	1개	25점	2,547	7.1	2.0			
	2개	50점	5,125	7.8	1.8			
	3개	75점	1,515	7.9	1.8			
	4개	100점	257	8.2	1.6			

주: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4개 생활 영역 중에서 '권장'기준에 해당하는 적정시간을 보내는지, 즉 아동·청소년 저마다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의 개수를 합산해 '아동행복지수'로 산출한 값

*초등 저학년 포함

[그림 2]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주관적 행복감



2) 아동행복지수 (상) vs (중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16.4% 수준.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에 비해 학원·독서실에서의 시간이 더 길고 (38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짧음(53분▼)

□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아동행복지수가 ‘상’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전체 중 16.4%(초등 저학년 포함 시: 17.5%)에 불과함

〈표 5〉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

단위(명, %)

		학생 수		비율	
		초등 저학년 제외	초등 저학년 포함	초등 저학년 제외	초등 저학년 포함
아동행복지수	상	1,233	1,772	16.4	17.5
	중하	6,272	8,368	83.6	82.5
전체		7,505	10,140	100.0	100.0

주: 아동행복지수 상/중하(=75점 미만, 75점 이상) 상하 집단구분

① 주요장소 및 관계(시간일지 장소/활동별 코드)

- (주요 장소) 행복지수가 ‘상’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집(17분▲), 돌봄 관련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5분▲),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17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학원에 있거나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더 짧았음(38분▼)
- (주요 관계) 행복지수가 ‘상’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방과 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았고(31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었으며(53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음(5분▼, 2분▼)

〈표 6〉 행복지수별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

단위(명, 시간:분)

집단통계량						t	유의확률
행복지수 상/중하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집	상	1,772	6:02	121.1	5.306	0.000
		중하	8,368	5:45	143.5		
	돌봄	상	1,772	0:09	40.9	5.185	0.000
		중하	8,368	0:04	26.2		
	공부	상	1,772	0:56	71.3	-19.210	0.000
		중하	8,368	1:34	91.8		
	체육시설	상	1,772	0:21	43.1	16.251	0.000
		중하	8,368	0:04	18.3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사람	혼자	상	1,772	3:05	129.0	-8.917	0.000
		중하	8,368	3:36	142.1		
	가족	상	1,772	3:23	146.1	13.794	0.000
		중하	8,368	2:30	145.0		
	오프라인 친구	상	1,772	0:56	84.3	-2.125	0.034
		중하	8,368	1:01	90.9		
	온라인 친구	상	1,772	0:02	16.6	-3.686	0.000
		중하	8,368	0:04	24.3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시간일지에서 함께한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② 실제 시간 사용 x 시간 인식

-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 초저(23.3%), 초고(50.1%), 중등(67.1%), 고등(70.4%)
- 특히, 실제 수면시간 과소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초저(24.8%), 초고(50.1%), 중등(67.1%), 고등(70.4%)

〈표 7〉 수면시간 × 수면시간 인식

단위(명, %)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수면 시간	과소	학생 수	2	5	7	44	43	87	427	209	637	824	347	1,171
		비율	24.8	75.2	100.0	50.1	49.9	100.0	67.1	32.9	100.0	70.4	29.6	100.0
	적정	학생 수	611	2,016	2,627	645	2,103	2,748	788	1,314	2,102	324	421	745
		비율	23.3	76.7	100.0	23.5	76.5	100.0	37.5	62.5	100.0	43.5	56.5	100.0
전체		학생 수	613	2,021	2,634	689	2,146	2,835	1,215	1,523	2,739	1,148	768	1,916
		비율	23.3	76.7	100.0	24.3	75.7	100.0	44.4	55.6	100.0	59.9	40.1	100.0

주: 수면시간 → 시간일지: 전날 취침~당일 기상까지

수면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1번

- 본인의 평소 ‘공부시간이 과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면서 조금씩 나타남(초고 13.6%, 중등 12.8%, 고등 12.6%)
- 특히, 실제 공부시간 과다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공부시간이 과하다고 인식한 비율도 초등 저학년생(5.2%)보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느끼고 있음(초고 16.6%, 중등 15.3%, 고등 15.2%)

〈표 8〉 공부시간 × 공부시간 인식

단위(명, %)

공부시간이 과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공부 시간	적정	학생 수	5	283	287	47	712	759	55	674	729	17	325	342
		비율	1.6	98.4	100.0	6.2	93.8	100.0	7.5	92.5	100.0	5.0	95.0	100.0
	과다	학생 수	112	2,052	2,164	311	1,562	1,873	239	1,322	1,560	152	850	1,002
		비율	5.2	94.8	100.0	16.6	83.4	100.0	15.3	84.7	100.0	15.2	84.8	100.0
전체		학생 수	116	2,335	2,451	358	2,274	2,631	294	1,996	2,290	169	1,175	1,344
		비율	4.7	95.3	100.0	13.6	86.4	100.0	12.8	87.2	100.0	12.6	87.4	100.0

주: 공부시간 → 시간일지: 공부시간(학교수업 외 학습) 코드 합산 값
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2번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짐: 초저(44.1%), 초고(44.2%), 중등(58.8%), 고등(68.3%)
- 특히, 실제 운동시간 과소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고 있음: 초저(46.8%), 초고(47.4%), 중등(62.2%), 고등(71.3%)

〈표 9〉 운동시간 × 운동시간 인식

단위(명, %)

운동시간이 부족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운동 시간	과소	학생 수	1,021	1,162	2,184	1,148	1,276	2,424	1,537	935	2,472	1,256	505	1,760
		비율	46.8	53.2	100.0	47.4	52.6	100.0	62.2	37.8	100.0	71.3	28.7	100.0
	적정	학생 수	142	309	451	106	306	412	77	196	273	58	105	163
		비율	31.4	68.6	100.0	25.8	74.2	100.0	28.3	71.7	100.0	35.9	64.1	100.0
전체		학생 수	1,163	1,472	2,635	1,254	1,582	2,836	1,614	1,131	2,745	1,314	609	1,924
		비율	44.1	55.9	100.0	44.2	55.8	100.0	58.8	41.2	100.0	68.3	31.7	100.0

주: 운동시간 → 시간일지: 운동시간(학교체육 제외) 코드
운동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3번

③ 실제 행동 시간 x 행동 선호도

-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 평소 집콕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미있고(27.7%), 딱히 갈 곳도 없기 때문(25.1%)을 이유로 꼽았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와 같이 응답하는 비율도 더 높아짐
- 중·고등학생(중등 9.6%, 고등 5.0%)과 달리 초등학생들(초저 31.6%, 초고 20.1%)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집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또, 집콕을 선호하는 이유로 ‘친구랑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한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인터넷·휴대전화 게임(44.0%), 동영상·만화 감상,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의 기타 여가활동(46.5%)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라고 부가 응답함
- 초등학생의 과반수(초저 52.2%, 초고 54.0%)는 ‘인터넷·휴대전화 게임’이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나, 중·고등학생에게서는 이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중등 42.9%, 32.9%), ‘기타 여가활동’을 이유로 꼽은 아이들이 많았음(중등 47.0%, 고등 55.0%)

〈표 10〉 집콕 선호 여부

단위(명, %)

평소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집콕을 선호 한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1,156	1,479	2,635
		비율	43.9	56.1	100.0
	초고	학생 수	1,625	1,211	2,836
		비율	57.3	42.7	100.0
	중등	학생 수	1,919	826	2,745
		비율	69.9	30.1	100.0
	고등	학생 수	1,463	460	1,923
		비율	76.1	23.9	100.0
전체	학생 수	6,163	3,976	10,139	
	비율	60.8	39.2	100.0	

〈표 11〉 집콕 선호 이유

단위(명, %)

			친구랑 놀이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	용돈이 부족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가족 중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타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37	10	212	8	129	365	195	1,156
		비율	20.5	0.9	18.3	0.7	11.2	31.6	16.9	100.0
	초고	학생 수	415	55	405	15	122	326	287	1,625
		비율	25.5	3.4	24.9	0.9	7.5	20.1	17.7	100.0
	중등	학생 수	569	150	522	13	83	184	397	1,918
		비율	29.7	7.8	27.2	0.7	4.3	9.6	20.7	100.0
	고등	학생 수	487	190	405	3	53	73	251	1,462
		비율	33.3	13.0	27.7	0.2	3.6	5.0	17.2	100.0
전체		학생 수	1,708	405	1,544	39	387	948	1,130	6,161
		비율	27.7	6.6	25.1	0.6	6.3	15.4	18.3	100.0

주: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

〈표 12〉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명, %)

			인터넷게임, 휴대전화 게임을 마음껏 하기 위해	전화, 채팅, SNS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하기 위해	기타 여가활동 (동영상, 만화, 잡지,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123	1	105	7	237
		비율	52.2	0.2	44.4	3.2	100.0
	초고	학생 수	224	18	154	19	415
		비율	54.0	4.3	37.1	4.5	100.0
	중등	학생 수	244	29	268	28	569
		비율	42.9	5.2	47.0	4.9	100.0
	고등	학생 수	160	24	268	35	487
		비율	32.9	4.9	55.0	7.2	100.0
전체		학생 수	752	72	795	89	1,708
		비율	44.0	4.2	46.5	5.2	100.0

- (혼밥) 혼자 밥먹기 학교에 가는 평일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아침 식사 시간대에(초저 293명, 초고 370명),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대에(중등: 아침 470명, 저녁 356명, 고등: 아침 339명, 저녁 319명) 혼밥을 하였음
- 저녁 식사 시간대에 혼밥한 아이들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집’에서 혼밥을 하며, 초등 고학년 이후로는 ‘편의점’(초고 7.6%, 중등 8.9%, 고등 7.0%)도 주요 혼밥 장소가 됨. 전반적으로는 집(75.4%)뿐만 아니라 학교(그 주변)(7.8%), 학원·독서실·

도서관(그 주변)(6.3%), 편의점(7.8%)도 저녁 식사 시간대의 주요 혼밥 장소로 파악 됨

〈표 13〉 혼밥 여부

단위(명, %)

학교 가는 날,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			있다	없다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383	2,252	2,635
		비율	14.5	85.5	100.0
	초고	학생 수	556	2,280	2,836
		비율	19.6	80.4	100.0
	중등	학생 수	806	1,940	2,746
		비율	29.4	70.6	100.0
	고등	학생 수	618	1,306	1,924
		비율	32.1	67.9	100.0
전체	학생 수	2,363	7,778	10,141	
	비율	23.3	76.7	100.0	

〈표 14〉 평일 혼밥 시간대

단위(명, %)

학교 가는 날, 혼자 밥 먹게 되는 때는 주로 언제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아침 식사 시간대	293	19.9	370	25.2	470	32.0	339	23.0	1,471	100.0
점심 식사 시간대	55	12.4	82	18.5	155	35.0	152	34.3	443	100.0
저녁 식사 시간대	75	8.2	170	18.5	356	38.7	319	34.7	920	100.0

주: 중복응답

〈표 15〉 저녁 혼밥 장소

단위(명, %)

			집	학교 (그 주변)	학원, 독서실, 도서관 (그 주변)	지역아동센 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PC방, 전자오락실	편의점	기타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7	0	0	0	0	0	0	7
		비율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초고	학생 수	43	2	1	0	0	4	0	50
		비율	86.1	4.0	2.3	0.0	0.0	7.6	0.0	100.0
	중등	학생 수	119	4	10	0	2	13	1	149
		비율	79.9	2.4	6.7	0.0	1.4	8.9	0.8	100.0
	고등	학생 수	104	23	12	4	0	11	3	156
		비율	66.7	14.5	7.5	2.4	0.0	7.0	1.9	100.0
전체	학생 수	273	28	23	4	2	28	4	362	
	비율	75.4	7.8	6.3	1.0	0.6	7.8	1.1	100.0	

주: 저녁 혼밥 장소 → 문7-2번

〈표 16〉 어머니 직업유무별 혼밥 여부

단위(명, %)

			직업있음	직업없음	전체
혼밥여부	혼밥O	학생 수	1559	754	2361
		비율	66	32	100.0
	혼밥X	학생 수	4454	3239	7778
		비율	57.3	41.6	100.0
전체		학생 수	6013	3993	10139
		비율	59.3	39.4	100.0

〈표 17〉 어머니 직업별 혼밥 여부

단위(명, %)

			직업 있음							직업 없음				해당 없음	전체
			자유·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단순노무직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혼밥여부	혼밥 O	학생 수	303	76	623	313	132	6	106	668	3	78	5	48	2361
		비율	12.8	3.2	26.4	13.3	5.6	0.3	4.5	28.3	0.1	3.3	0.2	2.0	100.0
	혼밥 X	학생 수	907	189	1808	881	277	18	374	3024	5	197	13	85	7778
		비율	11.7	2.4	23.2	11.3	3.6	0.2	4.8	38.9	0.1	2.5	0.2	1.1	100.0
전체		학생 수	1210	265	2431	1194	409	24	480	3692	8	275	18	133	10139
		비율	11.9	2.6	24.0	11.8	4.0	0.2	4.7	36.4	0.1	2.7	0.2	1.3	100.0

주: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표 18〉 어머니 직업별 혼밥 장소

			직업 있음							직업 없음				해당 없음	전체
			자유·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단순노무직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혼밥장소	집	학생 수	98	15	215	97	47	1	41	164	1	25	3	12	719
		비율	13.6	2.1	29.9	13.5	6.5	0.1	5.7	22.8	0.1	3.5	0.4	1.7	100.0
	학교(그 주변)	학생 수	6	4	17	9	3	0	0	12	0	3	0	4	58
		비율	10.3	6.9	29.3	15.5	5.2	0.0	0.0	20.7	0.0	5.2	0.0	6.9	100.0
	학원·독서실·도서관(그 주변)	학생 수	8	3	20	6	4	0	4	20	0	1	0	2	68
		비율	11.8	4.4	29.4	8.8	5.9	0.0	5.9	29.4	0.0	1.5	0.0	2.9	100.0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학생 수	0	0	1	0	0	0	0	0	0	1	0	1	3
		비율	0.0	0.0	33.3	0.0	0.0	0.0	0.0	0.0	0.0	33.3	0.0	33.3	100.0
	PC방, 전자오락실	학생 수	1	0	2	0	0	0	0	1	0	0	0	0	4
		비율	25.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0.0	0.0	100.0
	편의점	학생 수	4	1	13	11	10	2	3	7	0	3	0	1	55
		비율	7.3	1.8	23.6	20.0	18.2	3.6	5.5	12.7	0.0	5.5	0.0	1.8	100.0
	기타 장소	학생 수	1	2	3	3	0	0	3	1	0	1	0	3	17
		비율	5.9	11.8	17.6	17.6	0.0	0.0	17.6	5.9	0.0	5.9	0.0	17.6	100.0

전체	학생 수	118	25	271	126	64	3	51	205	1	34	3	23	924
	비율	12.8	2.7	29.3	13.6	6.9	0.3	5.5	22.2	0.1	3.7	0.3	2.5	100.0

주: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 불면(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깼) 불면을 겪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전체의 13.1%였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불면을 겪는다는 아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음(초저 9.2%, 중등 11.0%, 중등 15.3%, 고등 18.7%)

○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환경적 요인(소음 등), 카페인 음료, 운동시간 부족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거나, 공부, 과제 등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내일 할 일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등 하나 이상의 이유로 불면을 겪는다고 보고함

〈표 19〉 불면 여부

단위(명, %)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깬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44	2,391	2,635
		비율	9.3	90.8	100.0
	초고	학생 수	311	2,525	2,836
		비율	11.0	89.0	100.0
	중등	학생 수	419	2,327	2,745
		비율	15.3	84.7	100.0
	고등	학생 수	359	1,565	1,924
		비율	18.7	81.3	100.0
전체		학생 수	1,332	8,808	10,140
		비율	13.1	86.9	100.0

〈표 20〉 학교급별 불면 이유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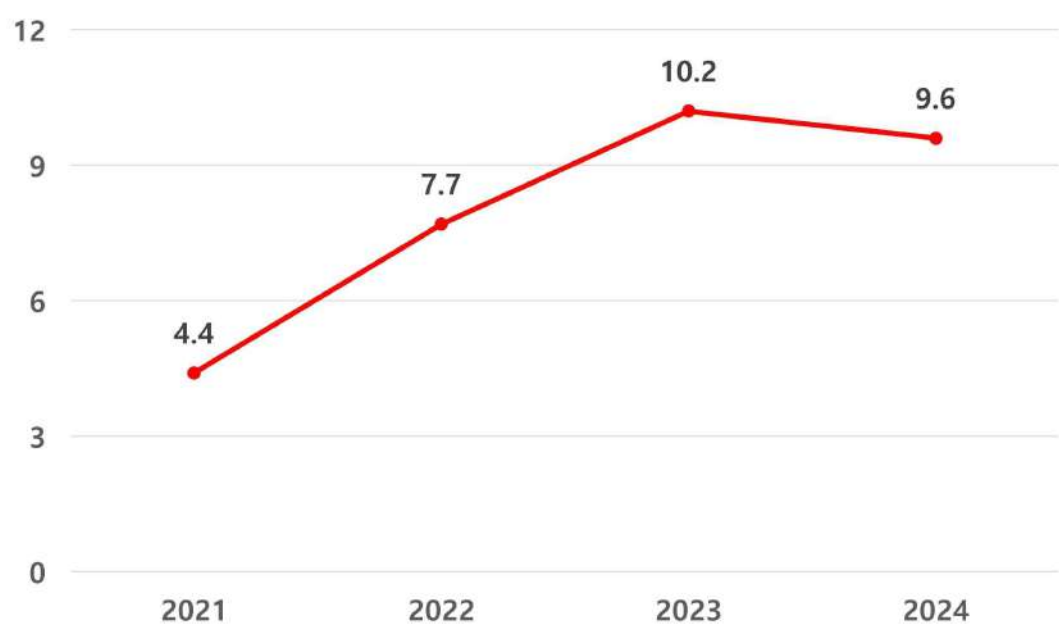
			전체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해야 할 일(공부, 과제 등)이 많아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기타
학교급	초저	학생 수	244	51	19	10	59	1	17	87
		비율	100.0	20.9	7.8	4.1	24.2	0.4	7.0	35.7
	초고	학생 수	311	87	32	12	76	5	41	58
		비율	100.0	28.0	10.3	3.9	24.4	1.6	13.2	18.6
	중등	학생 수	418	114	88	9	130	7	42	28
		비율	100.0	27.3	21.1	2.2	31.1	1.7	10.0	6.7
	고등	학생 수	358	73	87	10	123	7	29	29
		비율	100.0	20.4	24.3	2.8	34.4	2.0	8.1	8.1
	전체	학생 수	1,331	325	226	41	388	20	129	202
		비율	100.0	24.4	17.0	3.1	29.2	1.5	9.7	15.2

3) 3개년 아동 심리정서 추이

매년 우리나라 아이들의 충동적 자살생각, 우울·불안, 보호자의 방임·정서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반면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남

□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지난 4년간 아이들의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4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는 9.6%의 아이들이 충동적 자살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답변함

[그림 3]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표 21>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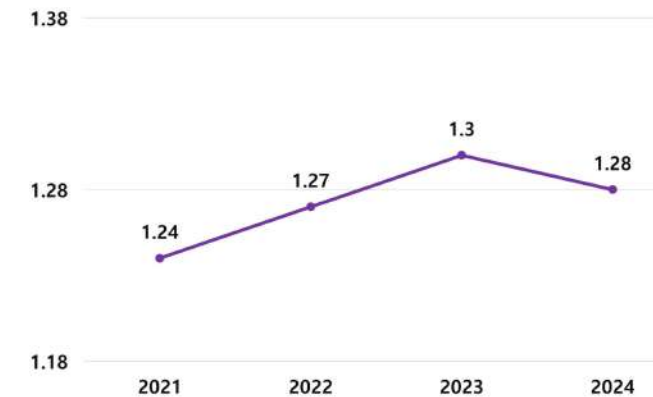
		단위(명, %)		
		예	아니오	전체
2021년	학생 수	81	1,744	1,825
	비율	4.4	95.6	100.0
2022년	학생 수	342	4,078	4,420
	비율	7.7	92.3	100.0
2023년	학생 수	227	2,004	2,231
	비율	10.2	89.8	100.0
2024년	학생 수	720	6,785	7,505
	비율	9.6	90.4	100.0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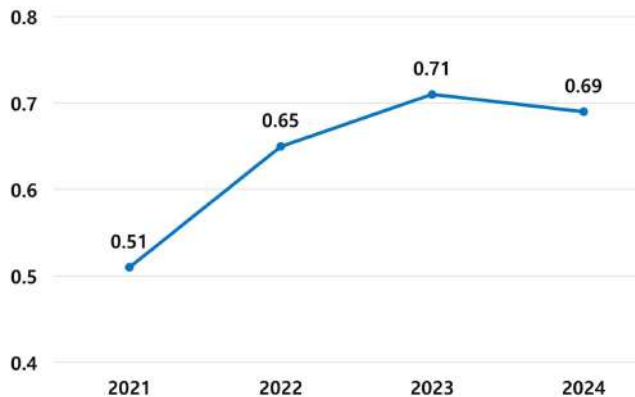
□ (우울·불안)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울·불안 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4년 1.28로 조사됨(2021년보다 0.04점 증가함)

□ (정서학대) 2024년 0.69로 2021년 이후로 보호자로부터 정서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2021년보다 0.18점 증가함)

[그림 4] 우울·불안 4개년 추이



[그림 5] 정서학대 4개년 추이



〈표 22〉 심리정서 4개년 추이

					단위(명, 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2024년-2021년
우울·불안	2021년	1,825	1.24	0.29	+0.04
	2022년	2,210	1.27	0.34	
	2023년	2,231	1.30	0.35	
	2024년	7,505	1.28	0.36	
자아존중감	2021년	1,825	3.11	0.51	-0.01
	2022년	2,210	3.08	0.55	
	2023년	2,231	3.06	0.56	
	2024년	7,505	3.10	0.57	
정서학대	2021년	1,825	0.51	0.89	+0.18
	2022년	1,947	0.65	1.00	
	2023년	2,231	0.71	1.12	
	2024년	7,505	0.69	1.08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주: 우울·불안은 총 3점 만점(1~3점). 자아존중감은 총 4점 만점(1~4점). 정서학대는 총 7점 만점(1~7점)

2. 전반적인 생활시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초등 저학년을 포함할 경우, 하루에 필수시간으로 10시간 59분, 학업시간으로 8시간 34분, 여가시간으로 4시간 27분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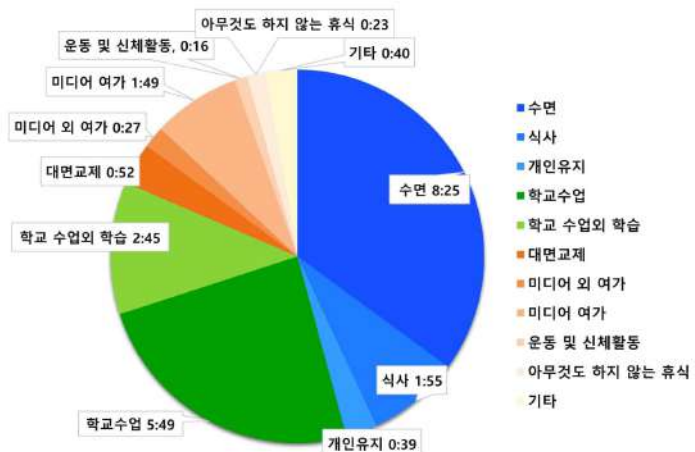
초등 저학년을 제외할 경우, 필수시간 10시간 29분, 학업시간 9시간 3분, 여가시간 4시간 28분으로 수면시간▼, 학업시간▲의 특징이 두드러짐.

- (전반적인 시간사용) 아이들은 하루 동안 필수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에 10시간 59분, 학업시간(학교수업, 학교수업 외 학습)에 8시간 34분, 여가시간(대면교제, 여가 활동 등)에 4시간 27분을 사용했음. 학교급이 높을수록 필수시간 사용은 적었고 학습 시간 사용은 많았음

[그림 6] 전반적인 시간사용



[그림 7] 전반적인 시간사용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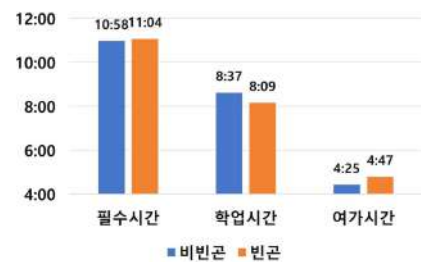
[그림 8] 학교급별 비교



[그림 9] 성별 비교



[그림 10] 빈곤 여부별 비교



〈표 23〉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포함)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여	초저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 필수시간	10:59	11:03	10:55	12:23	11:41	10:20	8:57	10:58	11:04
수면	8:25	8:32	8:18	9:39	9:05	7:51	6:32	8:24	8:30
식사	1:55	1:56	1:54	2:02	1:59	1:51	1:46	1:55	1:55
개인유지	0:39	0:35	0:43	0:42	0:37	0:38	0:39	0:39	0:39
□ 학업시간	8:34	8:30	8:38	7:10	7:47	9:27	10:22	8:37	8:09
학교수업	5:49	5:51	5:47	4:54	5:01	6:31	7:14	5:47	6:09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39	2:51	2:16	2:46	2:56	3:08	2:50	2:00
□ 여가시간	4:27	4:27	4:27	4:27	4:32	4:13	4:41	4:25	4:47
대면교제	0:52	0:50	0:53	1:14	1:00	0:34	0:32	0:51	0:53
미디어 외 여가	0:27	0:23	0:32	0:40	0:29	0:19	0:20	0:28	0:28
미디어 여가	1:49	1:52	1:46	1:18	1:46	2:05	2:13	1:47	2:05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21	0:11	0:20	0:19	0:14	0:12	0:16	0:18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2	0:24	0:18	0:21	0:24	0:31	0:23	0:23
기타	0:40	0:39	0:41	0:37	0:37	0:37	0:53	0:40	0:40

주: 시간일지에서 수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표 24〉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제외)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여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 필수시간	10:29	10:36	10:22	11:41	10:20	8:57	10:29	10:34
수면	7:58	8:08	7:48	9:05	7:51	6:32	7:58	8:05
식사	1:53	1:54	1:51	1:59	1:51	1:46	1:53	1:51
개인유지	0:38	0:34	0:43	0:37	12:38	0:39	0:38	0:38
□ 학업시간	9:03	8:59	9:08	7:47	9:27	10:22	9:06	8:35
학교수업	6:08	6:11	6:06	5:01	6:31	7:14	6:06	6:27
학교수업 외 학습	2:55	2:48	3:02	2:46	2:56	3:08	3:00	2:08
□ 여가시간	4:28	4:25	4:30	4:32	4:13	4:41	4:25	4:51
대면교제	0:44	0:41	0:46	1:00	0:34	0:32	0:43	0:45
미디어 외 여가	0:23	0:18	0:28	0:29	0:19	0:20	0:23	0:24
미디어 여가	2:00	2:03	1:57	1:46	2:05	2:13	1:58	2:16
운동 및 신체활동	0:15	0:20	0:10	0:19	0:14	0:12	0:15	0:18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5	0:24	0:26	0:21	0:24	0:31	0:25	0:26
기타	0:41	0:39	0:43	0:37	0:37	0:53	0:41	0:42

주: 시간일지에서 수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3.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

1) 필수시간

아이들의 학교급(연령)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 식사시간▼

- (수면시간) 아이들의 수면시간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짧았음. 특히, 초등학교생은 9시간 이상 수면하나, 중학생은 8시간에 못 미치고(7시간 51분), 고등학생은 6시간 32분으로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음
-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는 6분으로 크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8시간 32분)보다 여학생(8시간 18분, 14분▼)의 평균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식사시간) 아이들은 식사에 평균 2시간 전후의 시간을 사용하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식사시간이 더 짧았음. 성별과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음



〈표 25〉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A)	여 (B)	차이 (B-A)	초저 (A)	초고 (B)	중등 (C)	고등 (D)	차이 (D-A)	비빈곤 (A)	빈곤 (B)	차이 (B-A)
□ 필수시간	10:59	11:03	10:55	-0:08	12:23	11:41	10:20	8:57	-3:26	10:58	11:04	0:06
수면	8:25	8:32	8:18	-0:14	9:39	9:05	7:51	6:32	-3:07	8:24	8:30	0:06
식사	1:55	1:56	1:54	-0:02	2:02	1:59	1:51	1:46	-0:16	1:55	1:55	0:00
개인유지	0:39	0:35	0:43	0:08	0:42	0:37	0:38	0:39	-0:03	0:39	0:39	0:00

주: 시간일지에서 수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①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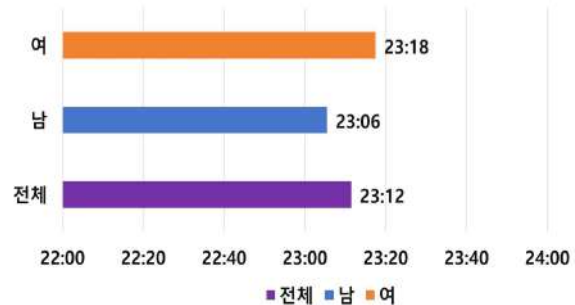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취침시간이 더 늦어져, 고등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취침하며, 오전 7시 9분 기상으로 제일 기상 시각이 빠름.

- (기상 및 취침시각) 아이들의 평균 취침시각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늦어져서, 초등학생은 오후 10~11시 사이에 취침하나(초저 22:06, 초고 22:39), 중학생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23:45)에 취침하고, 고등학생은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00:44)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고등학생(07:09 기상)은 평균 오전 7시 반 전후에 기상하는 초·중학생에 비해 평균 기상 시각이 더 이른 편

[그림 14] 학교급별 취침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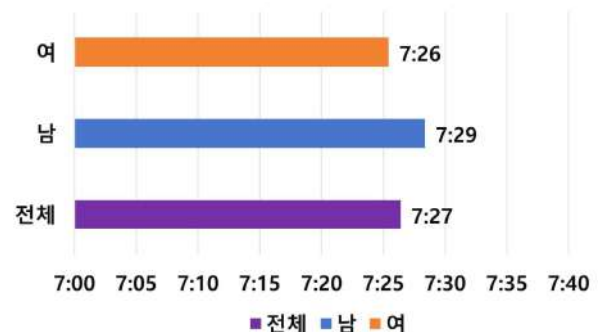
[그림 15] 성별 취침시각



[그림 16] 학교급별 기상시각



[그림 17] 성별 기상시각



〈표 26〉 성별, 학교급별 취침 및 기상 시각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평일	23:12	7:27	23:06	7:29	23:18	7:26	22:06	7:35	22:39	7:35	23:45	7:26	24:44	7:09

-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59분까지의 시간대에서 취침 중인 남학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취침 행위자 비율이 낮았으며,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취침 행위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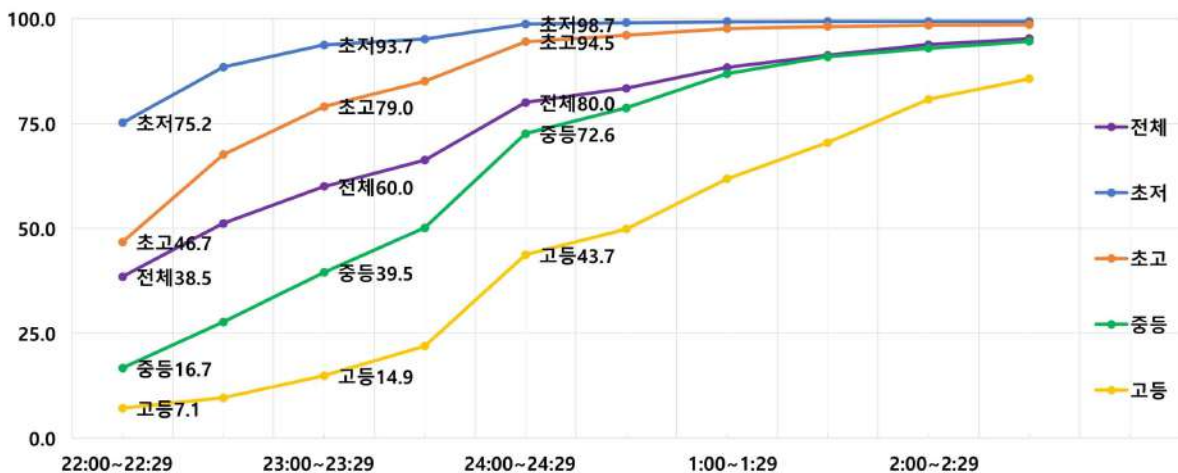
〈표 27〉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22:00 ~22:29	22:30 ~22:59	23:00 ~23:29	23:30 ~23:59	24:00 ~24:29	24:30 ~24:59	1:00 ~1:29	1:30 ~1:59	2:00 ~2:29	2:30 ~2:59
전체		38.5	51.2	60.0	66.3	80.0	83.4	88.4	91.2	93.8	95.3
성별	남	39.8	52.8	61.9	68.2	81.9	85.1	89.2	91.5	94.0	95.4
	여	37.2	49.6	58.0	64.2	78.0	81.6	87.5	90.9	93.7	95.1
학교급	초저	75.2	88.5	93.7	95.1	98.7	99.1	99.3	99.3	99.3	99.4
	초고	46.7	67.6	79.0	85.1	94.5	96.1	97.7	98.1	98.4	98.6
	중등	16.7	27.7	39.5	50.2	72.6	78.7	86.9	90.9	92.9	94.6
	고등	7.1	9.6	14.9	22.0	43.7	49.9	61.8	70.5	80.8	85.7
빈곤 여부	비빈곤	38.0	51.0	59.8	66.1	80.0	83.5	88.4	91.3	93.8	95.2
	빈곤	43.2	53.9	62.4	67.5	80.1	82.5	88.1	91.1	94.4	96.0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수면'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1

[그림 18]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② 식사 시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식사시간▼. 아침식사 시간이 저녁식사보다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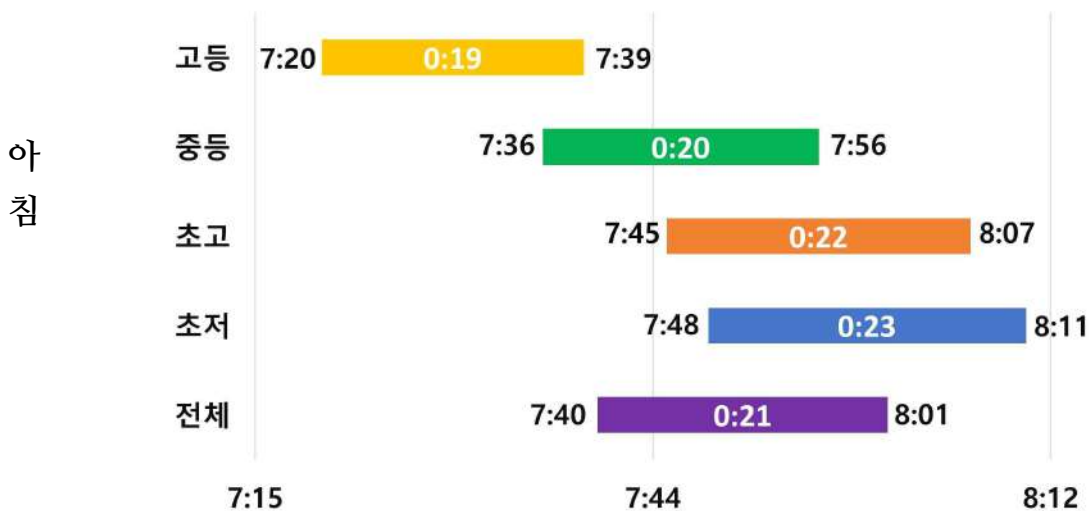
-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아이들의 점심식사는 오후 12~1시 사이에 시작되고 1~2시 사이에 종료되며 모든 학교급에서 거의 비슷한 양(1시간 전후)의 시간이 사용되었으나, 아침(21분)과 저녁(33분)에는 식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침·저녁 식사시간이 약간 짧았음(1~2분▼)

〈표 28〉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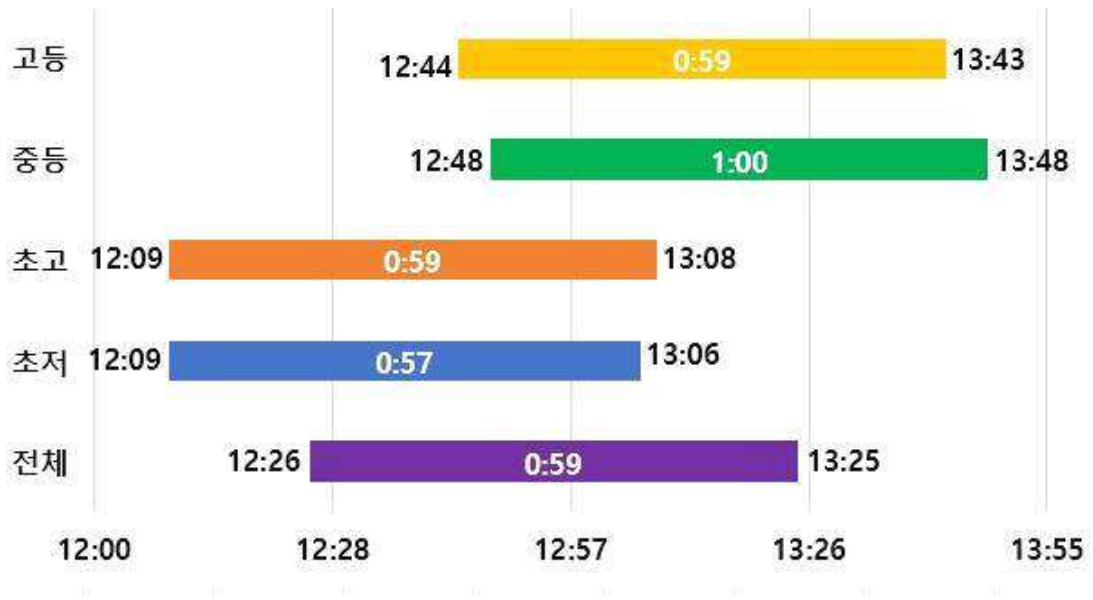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시작 시각	7:40	12:26	18:48	7:48	12:09	18:34	7:45	12:09	18:45	7:36	12:48	19:05	7:20	12:44	18:50
종료 시각	8:01	13:25	19:21	8:11	13:06	19:08	8:07	13:08	19:18	7:56	13:48	19:36	7:39	13:43	19:20
식사 시간	0:21	0:59	00:33	0:23	0:57	0:34	00:22	0:59	0:33	0:20	1:00	0:31	0:19	0:59	0:30

단위(시간:분)

[그림 19]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점심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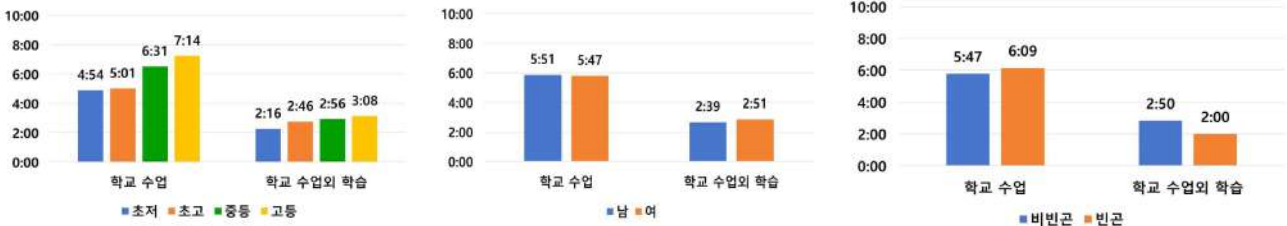


2) 학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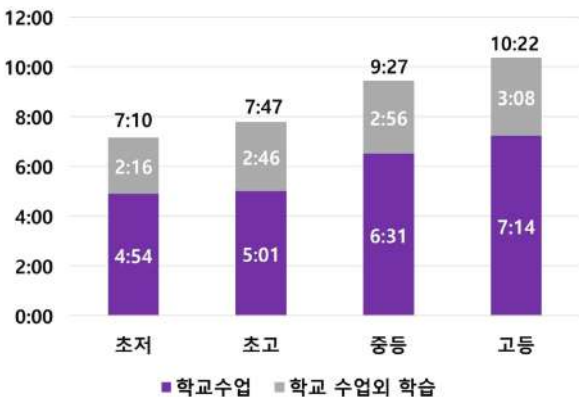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수업 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혼자공부시간▲.
 학교 수업시간은 고등이 초저보다 2시간 20분▲, 학교 수업 외 학습은 1시간 16분▲.
 혼자 공부를 80분 이상 하는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학생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빈곤 가정일수록 더 긴 편▲

- (학업시간) 아이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사교육, 혼자 공부)도 더 길고, 학교수업 외 학습 평균 시간은 초저 2시간 이상, 초고 이상은 3시간 전후의 시간으로 조사됨
- 빈곤 아동(6시간 9분, 22분▲)은 비빈곤 아동(5시간 47분)에 비해 학교수업(정규수업, 방과후학교 등) 시간이 긴 반면에, 학교수업 외 학습(사교육, 혼자 공부) 시간은 비빈곤 아동(2시간 50분, 50분▲)이 빈곤 아동(2시간)보다 긴 편으로 나타남

[그림 20] 학교급별 학업시간 [그림 21] 성별 학업시간 [그림 22]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그림 23] 학교급별 학업시간 세부



[그림 24]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세부



〈표 29〉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A)	여 (B)	차이 (B-A)	초저 (A)	초고 (B)	중등 (C)	고등 (D)	차이 (D-A)	비빈곤 (A)	빈곤 (B)	차이 (B-A)
□ 학업시간	8:34	8:30	8:38	0:08	7:10	7:47	9:27	10:22	3:12	8:37	8:09	-0:28
학교수업	5:49	5:51	5:47	-0:04	4:54	5:01	6:31	7:14	2:20	5:47	6:09	0:22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39	2:51	0:12	2:16	2:46	2:56	3:08	0:52	2:50	2:00	-0:50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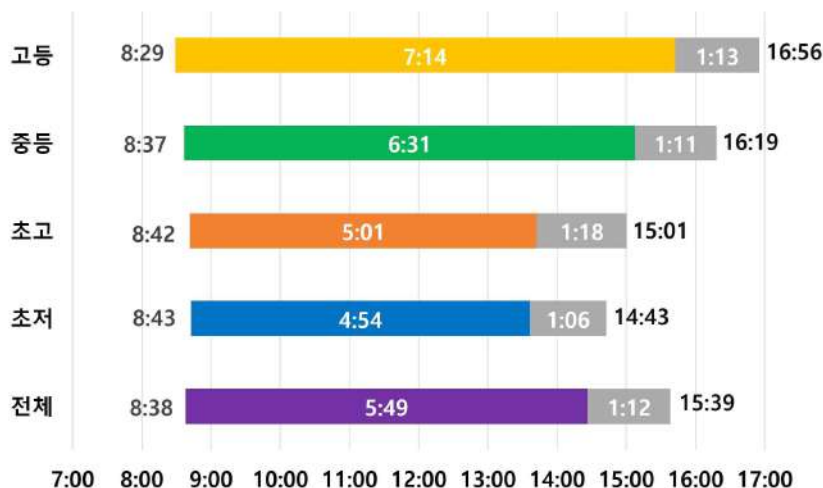
1 학교수업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수업 시간은 증가하며 고등이 초등 저학년보다 2시간 20분▲ 학교 수업 시간이 더 길.

□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 학교수업 시간은 고등이 아침 8시 29분에 시작으로 가장 빠르게 시작하여 오후 4시 56분에 가장 늦게 종료하며 7시간 14분으로 제일 긴 학교 수업 시간을 보냄
- 초저의 학교수업은 4시간 54분으로 가장 적으며, 뒤를 이어 초고가 5시간 1분, 중등이 6시간 31분으로 나타남

[그림 25]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표 30〉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단위(시:분, 시간:분)

학교수업 시작시각					학교수업 종료시각					학교수업 시간					(참고) 학교수업 시간 외(아동, 식사, 휴식 등) 시간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8:38	8:43	8:42	8:37	8:29	15:39	14:43	15:01	16:19	16:56	5:49	4:54	5:01	6:31	7:14	1:12	1:06	1:18	1:11	1:13

주: 행동코드 중, 학교수업 시간이 최초로 찍힌 시각 ~ 마지막으로 보고된 시각

□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는 오후 1시 30분, 초고는 오후 2시, 중등은 오후 3시 30분, 고등은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진행됨

〈표 31〉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전체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92.2	38.4	51.5	80.0	75.0	70.6	56.2	49.6	35.3	26.2	11.6	8.5	2.2
초저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85.4	4.2	79.2	80.8	51.6	44.4	30.8	24.2	14.7	11.0	6.4	5.1	1.0
초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7	3.0	91.0	91.4	63.9	56.7	23.3	19.9	14.0	10.5	8.0	7.0	1.1
중등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0	6.0	74.3	94.9	93.4	89.0	78.4	47.9	36.8	12.0	8.3	2.1
고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0	20.5	70.2	95.0	94.5	92.5	87.2	77.3	54.9	23.2	15.5	5.4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학교 수업'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3(국어, 수학, 영어) or 4(그 외 과목들) or 5(쉬는 시간) or 6(창의 체험,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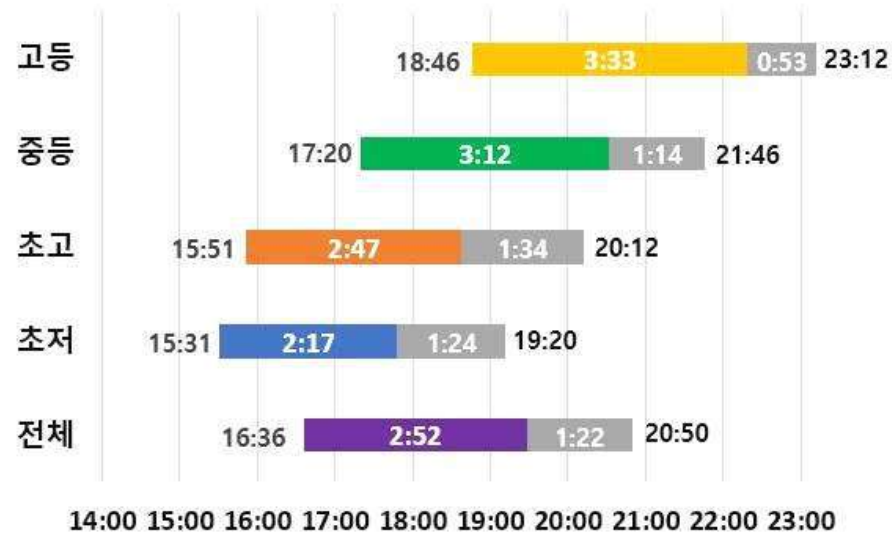
② 학교수업 외 학습

학교 수업 외 학습은 초저가 가장 적었으며(2시간 17분▼), 고등이 가장 길고(3시간 33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도 더 길
한편, 고등은 밤 12시 이후로도 학교수업 외 공부를 하는 학생이 17.6%나 있었음.

□ (학교수업 외 공부 시작시각, 종료시각, 공부시간)

- 초저는 학교수업 외 공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가장 빠르고, 학교수업 외 공부시간도 2시간 17분으로 제일 적은 편
- 고등은 학교수업외 학습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가장 늦으며, 평균 공부시간도 3시간 33분으로 제일 길

[그림 26]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표 32〉 학교급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단위(시:분, 시간: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학교수업 외 학습 종료시각					학교수업 외 학습 시간					(참고) 학교수업 시간 외(이동, 식사, 휴식 등) 시간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16:36	15:31	15:51	17:20	18:46	20:50	19:20	20:12	21:46	23:12	2:52	2:17	2:47	3:12	3:33	1:22	1:24	1:34	1:14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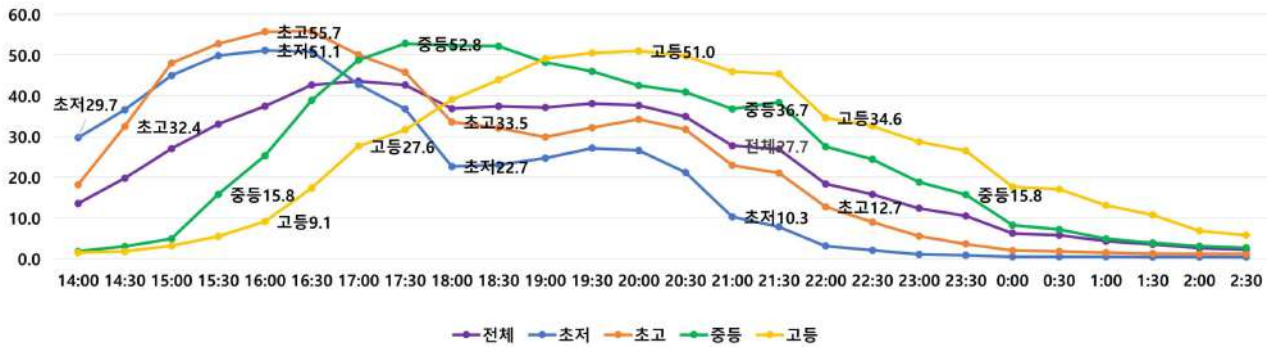
주1: 행동코드 중, 학교수업 외 학습 시간이 최초로 찍힌 시각 ~ 마지막으로 보고된 시각

주2: 학교수업 외 학습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와 초고는 오후 4시, 중등은 오후 5시 30분, 고등은 오후 8시 30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 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밤 12시 30분 이후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수업 외 학습을 하지 않으나, 고등의 17.1%는 여전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표 33〉 학교급별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전체	13.6	19.7	27.0	33.0	37.4	42.6	43.5	42.6	36.8	37.4	37.1	38.1	37.6
초저	29.7	36.6	44.9	49.9	51.1	50.9	42.8	36.7	22.7	23.0	24.7	27.1	26.5
초고	18.1	32.4	48.0	52.8	55.7	55.8	50.0	45.7	33.5	32.1	29.8	32.1	34.2
중등	1.8	3.0	4.9	15.8	25.2	38.9	48.7	52.8	52.3	52.2	48.2	46.0	42.5
고등	1.5	1.8	3.1	5.5	9.1	17.3	27.6	31.6	39.0	43.9	49.1	50.5	51.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0:00	0:30	1:00	1:30	2:00	2:30
전체	34.9	27.7	26.9	18.4	15.8	12.4	10.5	6.2	5.8	4.3	3.5	2.6	2.2
초저	21.2	10.3	7.8	3.1	2.0	1.1	0.8	0.4	0.4	0.4	0.4	0.4	0.4
초고	31.7	22.9	21.0	12.7	9.0	5.5	3.6	2.0	1.8	1.4	1.2	1.1	1.1
중등	40.9	36.7	38.4	27.5	24.4	18.8	15.8	8.2	7.2	4.9	3.9	3.1	2.7
고등	49.8	45.9	45.3	34.6	32.6	28.7	26.5	17.6	17.1	13.1	10.7	6.8	5.8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학교수업 외 학습'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 (방과후 (17:00~)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와 초고는 각각 오후 8시(24.3%, 22.0%), 중등은 저녁 9시(15.5%), 고등은 밤 11시(17.0%)에 학원, 과외, 돌봄센터, 온라인 수업 등을 가장 많이 종료함

〈표 34〉 방과 후 시간대별 사교육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적률	1:00	2:00	1~3시 누적률
전체		8.4	7.8	11.7	18.0	13.2	8.8	8.0	2.4	78.4	1.9	0.8	81.1
성별	남	8.3	7.6	12.1	18.2	13.1	8.3	7.6	1.9	77.2	1.6	0.8	79.6
	여	8.5	8.1	11.3	17.7	13.3	9.4	8.4	3.0	79.6	2.2	0.9	82.7
학교급	초저	14.5	11.4	17.9	24.3	9.0	2.4	0.6	0.0	80.1	0.0	0.0	80.2
	초고	10.3	10.2	12.8	22.0	15.4	8.5	4.0	0.6	83.7	0.3	0.1	84.1
	중등	5.1	5.6	10.0	14.1	15.5	14.2	12.9	3.9	81.4	2.0	1.0	84.3
	고등	2.0	2.7	4.1	8.9	12.4	10.4	17.0	6.3	63.8	6.6	2.9	73.4
빈곤 여부	비빈곤	8.4	7.9	11.8	18.1	13.5	9.1	8.2	2.5	79.5	1.9	0.9	82.3
	빈곤	8.9	7.6	10.8	16.1	10.5	5.5	5.7	2.0	66.9	1.4	0.3	1.6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학원/과외 수업'(시간일지 활동 코드: 7 or 8) 또는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9 or 10)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혼자 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 혼자공부를 가장 많이 종료한 시각은 초저와 초고는 각각 오후8시((20.5%, 17.7%), 중등과 고등은 각각 오후 11시(11.1%, 14.0%)에 가장 많이 종료하였음
- 초등학생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

〈표 35〉 방과 후 시간대별 혼자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적률	1:00	2:00	1~3시 누적률
전체		6.1	5.7	8.5	13.8	9.4	6.9	6.8	2.3	59.6	1.7	0.8	62.1
성별	남	5.7	5.3	8.2	14.1	9.4	6.2	6.4	1.7	57.1	1.4	0.8	59.3
	여	6.6	6.2	8.8	13.5	9.5	7.6	7.2	2.8	62.2	2.1	0.9	65.2
학교급	초저	9.9	8.7	14.9	20.5	7.4	2.1	0.6	0.0	64.0	0.0	0.1	64.0
	초고	7.3	6.7	10.0	17.7	12.7	6.9	3.5	0.5	65.3	0.3	0.1	65.7
	중등	4.2	3.9	4.5	8.5	9.9	11.0	11.1	3.6	56.8	1.8	1.0	59.5
	고등	2.0	2.8	3.4	6.5	6.8	7.6	14.0	5.9	49.0	6.2	2.8	58.0
빈곤	비빈곤	6.0	5.7	8.6	14.0	9.6	7.2	7.0	2.3	60.4	1.8	0.9	63.1
여부	빈곤	6.9	6.0	7.7	11.5	8.2	3.9	4.7	1.8	50.8	1.2	0.4	52.4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시간일지 활동 코드: 11)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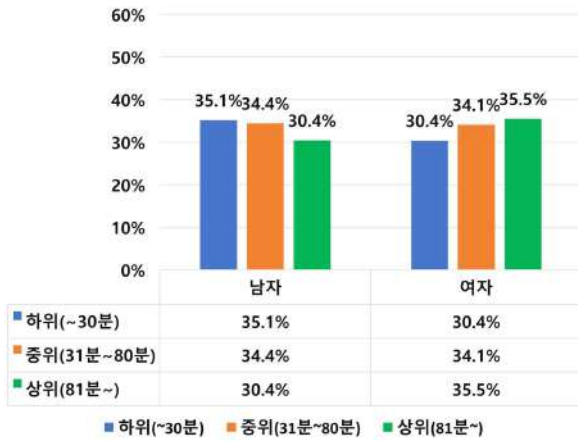
3 혼자 공부

혼자 공부를 하루에 80분 이상 하는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며, 비빈곤가정이 빈곤가정보다 8.6%p ▲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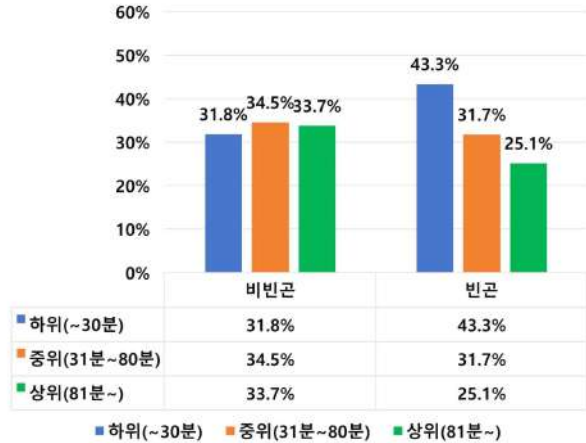
□ 집단별 혼자공부(상) 비율 차이

- (성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혼자공부 시간 ‘상’ 비율이 5.16%p 더 많음
- (학교급별) 혼자공부 ‘상’ 비율은 초저(18.3%), 초고(32.3%), 중등(36.6%), 고등(48.5%) 순으로 나타남
-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상’ 비율은 비빈곤이 빈곤보다 많으나(8.6%p▲), ‘하’ 비율은 비빈곤이 빈곤보다 적음(1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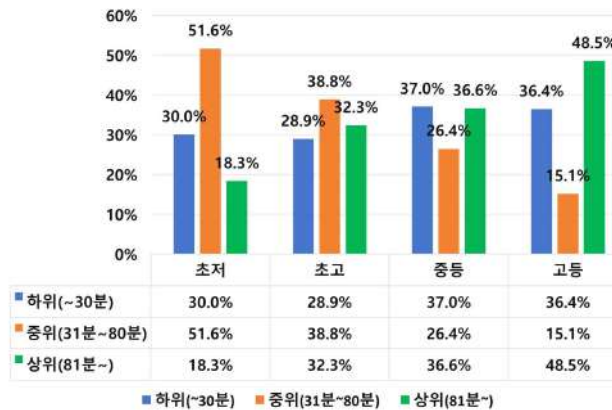
[그림 28] 성별 혼자공부



[그림 29]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그림 30] 학교급별 혼자공부



〈표 36〉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시간 차이

단위(명, %)

			혼자공부 시간 상, 중, 하위			전체
			하위 (30분 미만)	중위 (30분 이상~80분 미만)	상위 (80분 이상)	
성별	남자	학생 수	1,831	1,793	1,585	5,210
		비율	35.1	34.4	30.4	100.0
	여자	학생 수	1,497	1,682	1,751	4,930
		비율	30.4	34.1	35.5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학교급	초저	학생 수	792	1,361	482	2,635
		비율	30.0	51.6	18.3	100.0
	초고	학생 수	819	1,100	918	2,836
		비율	28.9	38.8	32.3	100.0
	중등	학생 수	1,017	725	1,003	2,745
		비율	37.0	26.4	36.6	100.0
	고등	학생 수	701	290	933	1,924
		비율	36.4	15.1	48.5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빈곤 여부	비빈곤	학생 수	2,943	3,193	3,113	9,249
		비율	31.8	34.5	33.7	100.0
	빈곤	학생 수	385	282	223	891
		비율	43.3	31.7	25.1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3) 여가시간

여가활동 중 대면교제 시간은 52분(행위자 비율 74.7%),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1시간 7분(행위자 비율 79.4%)임.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시간량으로 살펴보면,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춤추기·악기 연주·그림그리기(12분)’가 가장 ▼ 짧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휴식’이 (23분)으로 가장 ▲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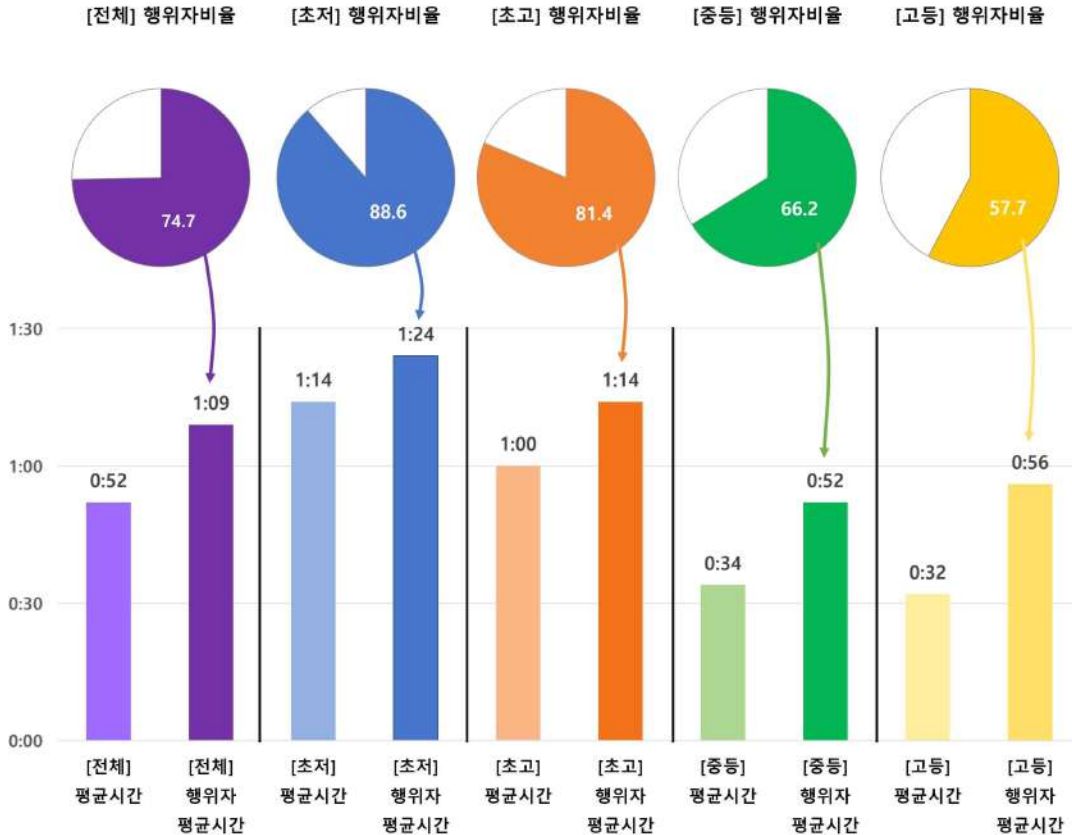
1 대면교제¹⁾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면교제 하는 아동의 비율과 시간이 줄어들어 고등은 초저보다 42분 ▼, 행위자 비율은 30.9%p ▼

□ (대면교제 평균시간 및 행위자비율)

- (전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대면교제 전체 평균시간은 41분이고 여가시간에 대면교제를 하는 아이들은 전체 중 74.7%이며, 이들은 평균 1시간 9분을 함
- (학교급) 대면교제 평균시간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초저(1시간 14분)으로 고등(32분)보다 42분 더 대면교제를 많이 함

[그림 31] 학교급별 대면교제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1) 대면교제 시간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표 37〉 대면교제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0:52	74.7	1:09	0:51	75.2	1:08	0:53	69.4	1:16
초저	1:14	88.6	1:24	1:14	88.8	1:23	1:18	86.5	1:31
초고	1:00	81.4	1:14	1:00	81.6	1:14	1:04	79.4	1:21
중등	0:34	66.2	0:52	0:34	66.5	0:51	0:36	62.5	0:57
고등	0:32	57.7	0:56	0:32	58.9	0:54	0:34	48.9	1:10

주: 대면교제 → 시간일지 활동 코드: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14 or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20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친구들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친구들과 대면교제 하는 아이들의 전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의 경우 오후 10시에 1.9%에서 2.3%로 다시 늘어남
- 빈곤의 경우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 감소하다가 오후 6시 30분(2.3%▲), 오후 8시(1.7%▲), 오후 10시(0.9%▲)에 소폭씩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과정을 반복함

〈표 38〉 방과 후 시간대별 친구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6.2	5.6	3.1	2.9	1.5	1.3	1.2	1.1	0.8	0.8	0.7	0.6	0.4	0.4
성별	남	6.4	5.7	3.0	2.7	1.5	1.4	1.0	1.1	0.8	0.7	0.6	0.6	0.3	0.4
	여	5.9	5.5	3.3	3.0	1.5	1.3	1.4	1.2	0.8	0.9	0.8	0.6	0.5	0.4
학교 급	초저	6.8	6.5	2.3	1.7	0.8	0.6	0.4	0.2	0.2	0.1	0.0	0.1	0.0	0.0
	초고	5.5	5.3	3.4	2.8	1.1	0.7	0.8	0.9	0.4	0.4	0.1	0.1	0.1	0.0
	중등	5.4	4.4	1.9	1.8	1.4	1.2	1.2	1.1	1.0	1.1	0.8	0.5	0.4	0.2
	고등	7.4	6.6	5.6	6.1	3.4	3.2	2.9	2.9	2.0	1.9	2.3	2.3	1.4	1.6
빈곤 여부	비빈곤	6.0	5.5	3.2	2.9	1.5	1.3	1.2	1.1	0.8	0.8	0.7	0.6	0.4	0.4
	빈곤	8.2	7.1	2.2	2.3	2.2	1.6	1.7	1.5	0.6	0.7	0.9	0.8	0.7	0.4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14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가족과 함께한 아이들의 비율은 친구와의 대면교제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5시 이후 점차 상승하다 오후 8시 30분(12.2%) 이후 다시 하락함
- 특히, 학교급별로 행위자 비율에 극심한 차이를 나타냄. 초저의 경우 오후 8시 30분

에 24.2%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3.2%의 아이들만 해당함

- 또한, 가족과의 시간이 다소 반등하는 시간인 오후 6시에도 초저는 11.3%가 가족과 함께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1.7%만이 가족과 함께함

〈표 39〉 방과 후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5.1	5.9	5.8	7.6	7.9	9.5	10.7	12.2	12.0	11.1	7.5	5.6	3.2	2.1
성별	남	4.7	5.2	6.1	7.4	7.4	9.1	9.7	11.8	12.4	11.3	7.6	5.7	3.1	1.9
	여	5.5	6.6	5.5	7.7	8.4	9.9	11.8	12.7	11.6	11.0	7.5	5.4	3.4	2.3
학교 급	초저	10.6	11.6	11.3	13.6	14.4	17.6	21.1	24.2	22.6	19.6	8.8	4.1	1.8	1.3
	초고	5.6	6.8	6.8	9.4	9.4	11.5	12.2	14.0	14.1	13.5	10.8	6.8	3.8	2.2
	중등	1.7	2.2	2.5	3.5	3.5	4.4	4.8	5.2	6.3	6.4	5.9	6.3	3.9	2.4
	고등	1.7	2.0	1.7	2.3	2.9	2.5	2.9	3.2	2.6	2.8	3.3	4.6	3.4	2.8
빈곤 여부	비빈곤	5.1	5.9	5.9	7.6	7.7	9.5	10.8	12.3	12.2	11.3	7.6	5.5	3.2	2.1
	빈곤	5.2	5.8	5.4	6.7	8.9	8.8	10.1	11.9	10.3	9.3	6.9	5.9	3.7	2.5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20

②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1시간 7분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가장 많이 하고(51.4%) 오래 함(23분). 종이책 읽기는 33.6%가 15분을 함. 특히, 초저는 휴식보다 책읽기 시간이 7분▲ 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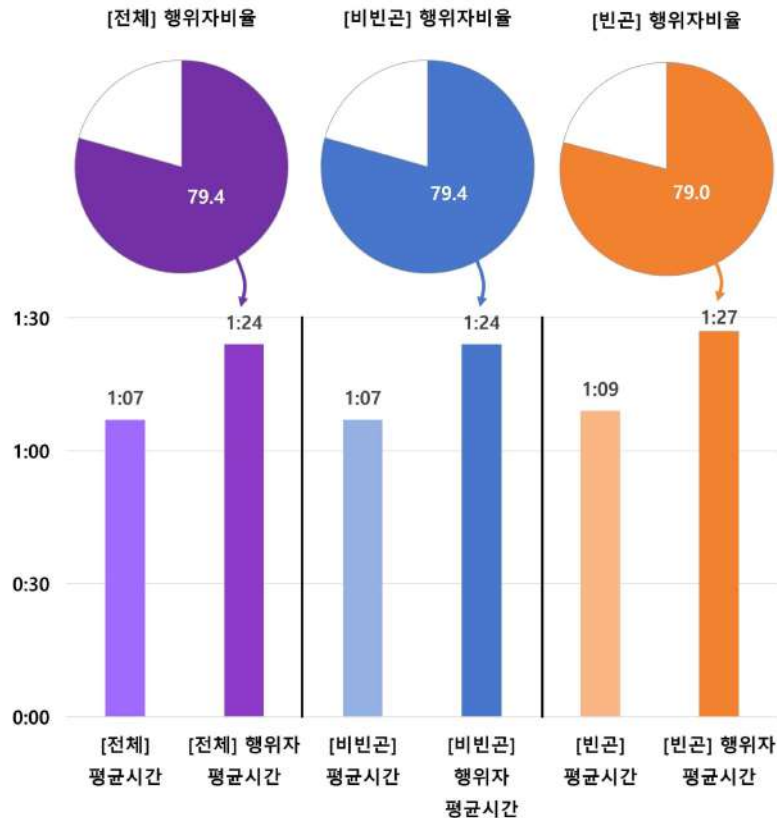
□ (전체)

- 미디어 기기 미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평균 1시간 7분. 79.4%의 아이들이 여가 시간에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가를 보내는데, 이들은 1시간 24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 (대상자별)

- 빈곤아동의 미디어 기기 미사용 평균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비빈곤(1시간 7분)보다 2분▲ 더 길었고 비율도 빈곤(79.0%)보다 비빈곤(79.4%)이 0.4%p▲ 더 높았으며, 이들은 3분▲ 더 길게 미디어 기기가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그림 32] 빈곤 여부별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 학교급별로는 초저(85.6%)가 여가시간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감소 해 고등이 11.1%p▼ 더 짧음. 사용하는 아이들의 평균 시간 또한 초저는 1시간 31분으로 가장 길며, 중등(1시간 17분)이 가장 짧게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표 40〉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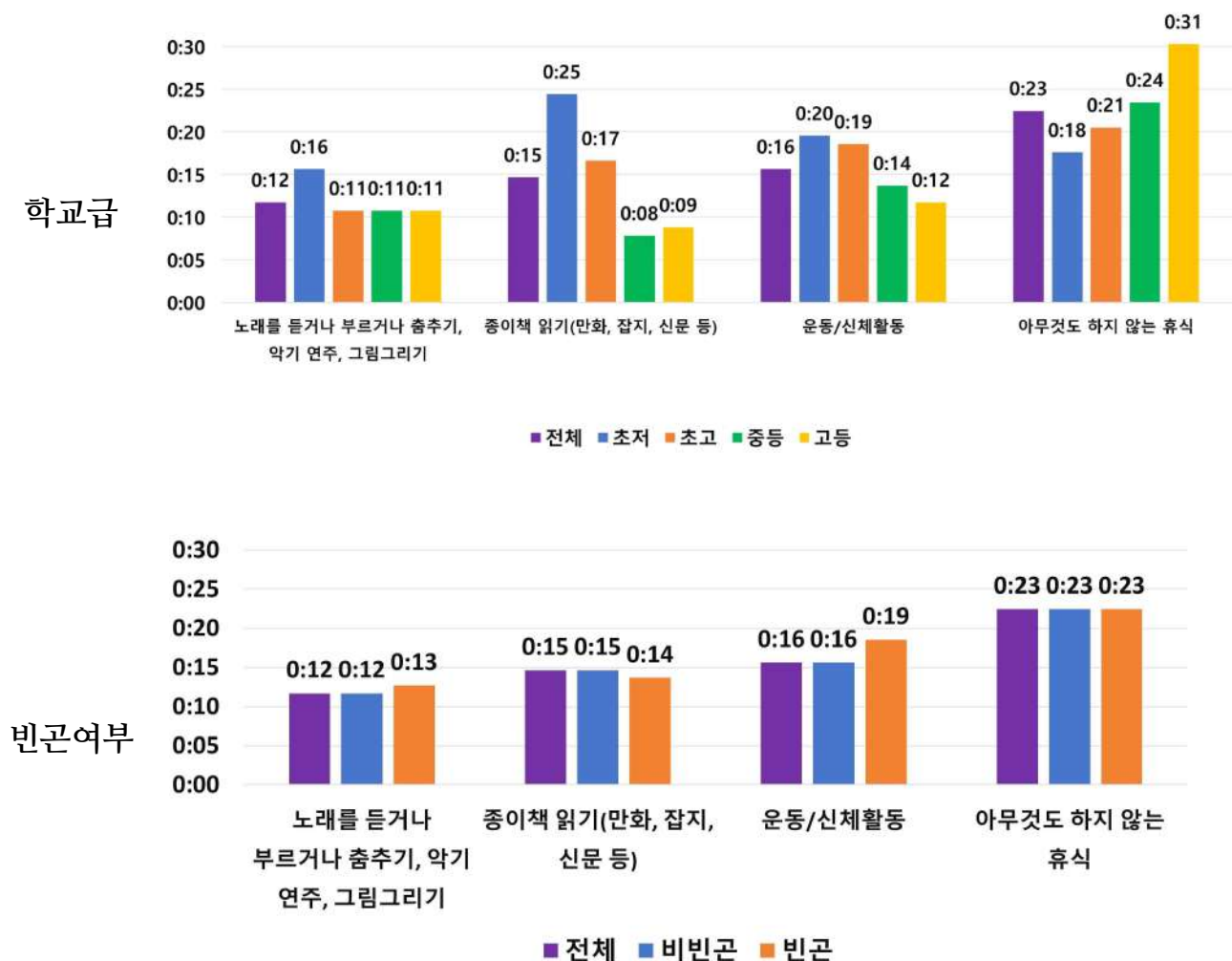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1:07	79.4	1:24	1:07	79.4	1:24	1:09	79.0	1:27
초저	1:18	85.6	1:31	1:19	85.8	1:32	1:11	82.8	1:26
초고	1:09	82.1	1:24	1:09	82.3	1:23	1:12	80.5	1:29
중등	0:57	73.9	1:17	0:56	73.7	1:16	1:05	76.7	1:24
고등	1:03	74.5	1:24	1:02	74.3	1:24	1:09	76.1	1:30

주: 행위자비율이란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종이책 읽기'(코드: 12 & 동시행동: 미디어X) or '운동 및 신체활동'(13) or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15) or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낮잠, 멍 때리는 시간)'(16)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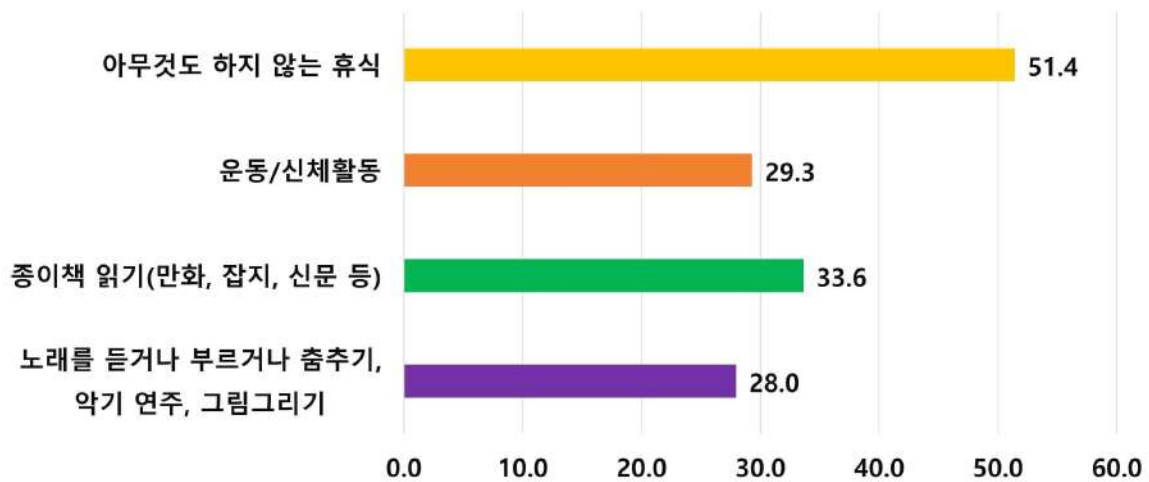
□ (세부 활동)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낸 여가시간의 세부활동

- 세부 활동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평균 23분, 행위자 비율은 51.4%로 가장 긴 시간으로 많은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 미사용 여가시간에 휴식을 취함
- 다만, 특이하게 ‘초저’만 종이책 읽기(25분)을 가장 길게 하는 특이점을 보였으며, 중등이 종이책(8분) 읽기 시간이 가장 짧은 것과 비교해 17분▲ 더 책을 읽음
- 빈곤아이들이 비빈곤아이들보다 운동, 신체활동 시간이 3분▲ 더 길

[그림 33]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전체 평균시간



[그림 34]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



〈표 41〉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1)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전체	0:12	28.0	0:12	27.6	0:13	31.3
	초저	0:16	37.4	0:16	37.2	0:16	39.3
	초고	0:11	27.4	0:11	26.8	0:14	34.8
	중등	0:11	24.2	0:11	23.7	0:12	30.0
	고등	0:11	21.3	0:11	21.3	0:12	21.1
종이책 읽기(만화, 잡지, 신문 등)	전체	0:15	33.6	0:15	33.9	0:14	31.1
	초저	0:25	52.5	0:25	53.1	0:22	45.9
	초고	0:17	40.6	0:18	40.7	0:16	39.1
	중등	0:08	20.1	0:08	19.9	0:08	22.3
	고등	0:09	16.8	0:09	16.8	0:10	16.9

〈표 42〉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2)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운동/신체활동	전체	0:16	29.3	0:16	28.9	0:19	33.7
	초저	0:20	36.2	0:20	36.2	0:18	36.5
	초고	0:19	33.2	0:18	32.3	0:24	43.7
	중등	0:14	24.1	0:13	23.7	0:19	27.9
	고등	0:12	21.5	0:12	20.9	0:12	26.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전체	0:23	51.4	0:23	51.8	0:23	47.7
	초저	0:18	45.9	0:18	46.4	0:14	40.6
	초고	0:21	51.3	0:21	52.3	0:17	40.1
	중등	0:24	52.8	0:24	52.6	0:25	55.4
	고등	0:31	57.1	0:30	57.4	0:35	54.6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 행위자 비율

- 운동 및 신체활동의 경우 오후 5시(5.4%)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활동을 종료함
- 반면, 중등의 경우 밤 8시 30분에 4.7%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마쳐, 중등 아이들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방과 후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5.4	5.0	4.1	4.2	3.6	3.8	3.8	3.4	2.6	2.0	1.2	1.0	0.6	0.4
성별	남	6.9	6.1	5.3	5.5	4.7	4.5	4.5	4.2	3.2	2.4	1.6	1.2	0.8	0.6
	여	3.8	3.8	2.9	2.9	2.6	3.1	3.0	2.6	2.0	1.5	0.8	0.8	0.5	0.3
학교 급	초저	7.6	7.2	5.0	4.6	3.6	3.5	3.6	2.8	1.4	1.2	0.4	0.2	0.1	0.0
	초고	6.2	5.7	5.6	5.6	4.7	4.6	3.7	2.8	2.5	1.7	0.9	0.6	0.2	0.2
	중등	3.8	3.4	2.9	3.2	3.3	3.5	4.4	4.7	3.7	2.7	2.0	1.6	1.1	0.6
	고등	3.4	3.1	2.6	3.1	2.7	3.5	3.3	3.3	2.8	2.5	1.9	1.7	1.6	1.3
빈곤 여부	비빈곤	5.2	4.9	4.0	4.2	3.6	3.7	3.7	3.4	2.5	1.9	1.2	1.0	0.7	0.5
	빈곤	7.6	5.1	4.9	4.4	4.3	4.4	4.2	4.0	3.6	2.6	1.4	0.7	0.2	0.0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20

③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며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1시간 49분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빈곤가정일수록 평균 시간이 길어짐

□ (전체)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평균 1시간 49분. 84.3%의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며 여가를 보내는데, 이들은 평균 2시간 9분을 사용함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균 시간도 함께 증가함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비빈곤아동 보다 빈곤아동이 더 길(평균 18분)

〈표 44〉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1:49	84.3	2:09	1:47	84.2	2:08	2:05	85.8	2:25
초저	1:18	82.9	1:33	1:16	82.7	1:32	1:30	85.1	1:45
초고	1:46	86.3	2:03	1:45	86.1	2:02	2:00	88.8	2:15
중등	2:05	85.7	2:26	2:04	85.7	2:24	2:21	86.1	2:43
고등	2:13	81.4	2:44	2:11	81.1	2:42	2:30	83.2	3:00

주: 행위자 비율이란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온라인 책 읽기'(코드: 12 & 동시행동: 미디어O) or '게임'(17) or '영상 시청'(18) or '온라인으로 대화 및 연락'(19)인 사람들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 오후 5시에 전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TV, 동영상 시청을 종료하였음(3.8%)
- 반면, 고등은 저녁 7시(3.5%) 중등은 밤 9시(4.7%)에 시청을 종료하며, 고등의 경우 새벽 2시에 종료하는 비율도 1.3%로 가장 늦게까지 시청함
- 빈곤 아이들이 비빈곤 아이들보다 새벽 2시 종료 비율이 더 높아 좀 더 늦게까지 영상을 시청함

〈표 45〉 방과후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계	1:00	2:00
전체		5.4	3.6	3.8	3.8	3.4	2.6	2.0	1.2	1.0	0.6	0.4
성별	남	6.9	4.7	4.5	4.5	4.2	3.2	2.4	1.6	1.2	0.8	0.6
	여	3.8	2.6	3.1	3.0	2.6	2.0	1.5	0.8	0.8	0.5	0.3
학교 급	초저	7.6	3.6	3.5	3.6	2.8	1.4	1.2	0.4	0.2	0.1	0.0
	초고	6.2	4.7	4.6	3.7	2.8	2.5	1.7	0.9	0.6	0.2	0.2
	중등	3.8	3.3	3.5	4.4	4.7	3.7	2.7	2.0	1.6	1.1	0.6
	고등	3.4	2.7	3.5	3.3	3.3	2.8	2.5	1.9	1.7	1.6	1.3
빈곤 여부	비빈곤	5.2	3.6	3.7	3.7	3.4	2.5	1.9	1.2	1.0	0.7	0.5
	빈곤	7.6	4.3	4.4	4.2	4.0	3.6	2.6	1.4	0.7	0.2	0.0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영상 시청(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케이블/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시간일지 활동 코드: 18)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 비율

□ 방과 후(17:00~) 시간대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 게임을 가장 많이 종료한 시간은 밤 8시(9.1%)로, 고등을 제외하고 모두 이 시기 종료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고등학생은 밤 11시에 가장 많이 종료함(10%)
- 이에, 고등학생이 가장 밤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며, 새벽 2시에도 고등 1.4%, 중등 1.0%로 여전히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음
- 빈곤아이들이 비빈곤 아이들보다 새벽 2시 종료 비율이 0.4%p▲ 더 높아 좀 더 늦게까지 게임을 함을 알 수 있음

〈표 46〉 방과 후 시간대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계	1:00	2:00
전체		3.7	3.0	4.0	9.1	6.8	6.0	5.4	1.4	39.3	1.2	0.6
성별	남	4.1	3.4	4.5	11.2	8.2	8.0	7.2	1.8	48.4	1.4	0.7
	여	3.2	2.5	3.6	6.8	5.2	4.0	3.5	1.0	29.8	0.9	0.4
학교 급	초저	4.6	4.3	6.7	11.4	5.8	2.2	0.6	0.0	35.7	0.0	0.0
	초고	4.4	3.3	5.5	12.2	10.4	6.7	2.9	0.5	45.9	0.3	0.1
	중등	3.1	2.5	2.0	7.2	6.9	9.5	9.4	1.7	42.1	1.4	1.0
	고등	2.3	1.4	1.2	3.9	2.3	5.4	10.0	4.2	30.7	3.8	1.4
빈곤 여부	비빈곤	3.7	2.9	3.9	9.0	6.7	5.9	5.2	1.4	38.7	1.2	0.6
	빈곤	3.9	3.3	5.5	9.5	7.5	7.1	7.6	1.9	46.3	0.4	0.2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게임(PC,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시간일지 활동 코드: 17)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 비율

4. 지역별 시간 사용 비교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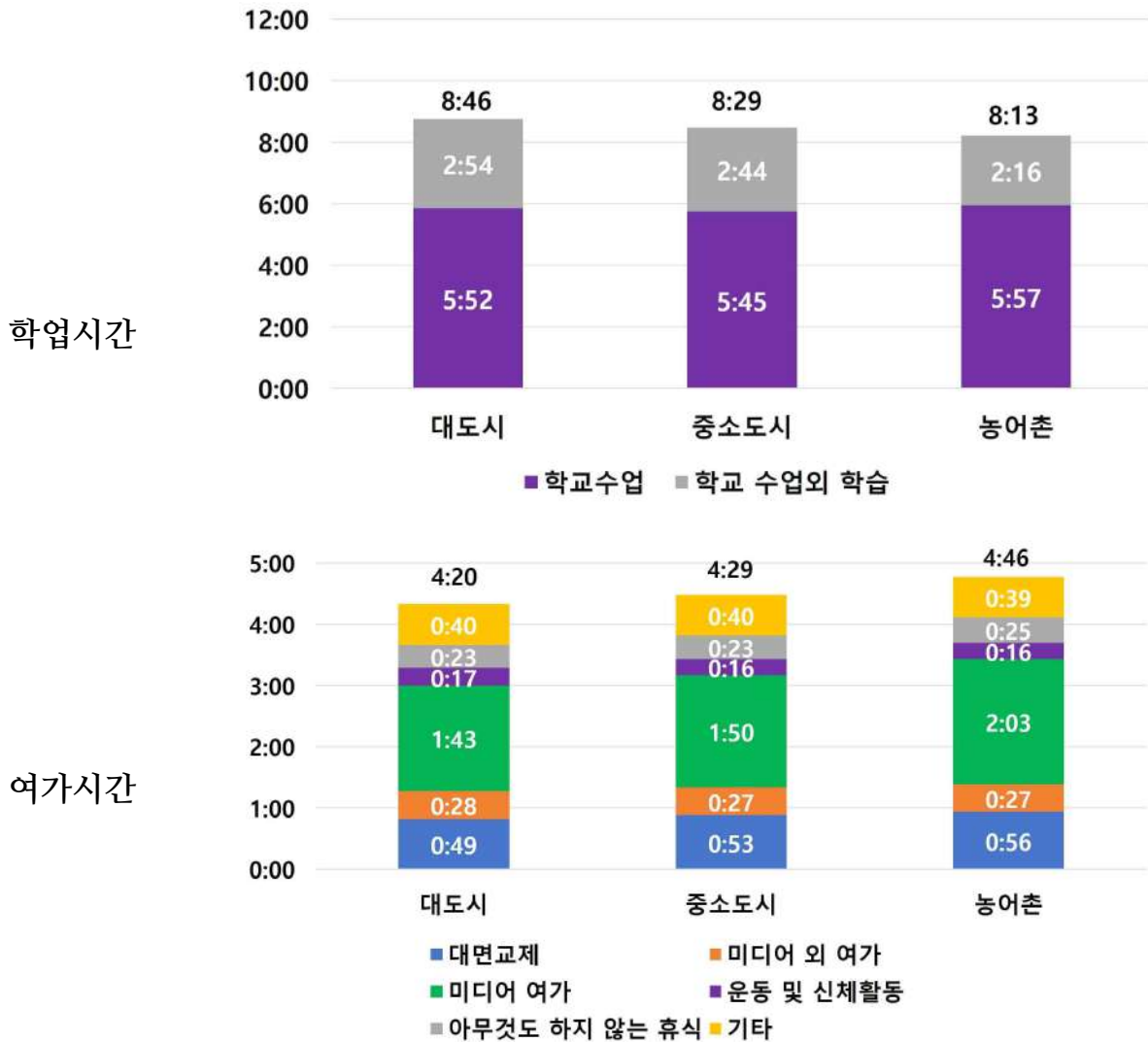
대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아이들에 비해 수면시간은 7분▼ 적고,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38분▲ 더 길었으며, 미디어 여가시간이 26분▼더 짧음

□ (차이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시간 사용 및 차이

- (필수 시간) 대도시 아이들(10시간 54분)이 농어촌 아이들(11시간 1분)에 비해 7분▼적었으며, 특히 수면시간(7분▼), 개인유지 시간(3분▼)이 대도시가 더 적으나, 식사는 4분▲ 더 길
- (학습 시간) 대도시 아이들의 학습 시간(8시간 46분)이 농어촌(8시간 13분)보다 33분▲이나 길었으나, 오히려 학교 수업시간은 5분▼ 적으나,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38분▲ 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대도시 아이들이(4시간 20분)으로 농어촌 아이들보다 26분▼ 더 짧음. 이는 농어촌 아이들의 미디어 여가시간이 대도시 아이들보다 20분▲ 이나 더 길기 때문임

[그림 35] 지역별 시간사용





〈표 47〉 지역 규모별 시간 사용 및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대도시-농어촌 차이(A-C)
□ 필수시간	10:59	10:54	11:02	11:01	-0:07
수면	8:25	8:20	8:28	8:27	-0:07
식사	1:55	1:56	1:55	1:52	0:04
개인 유지	0:39	0:38	0:39	0:41	-0:03
□ 학업시간	8:34	8:46	8:29	8:13	0:33
학교수업	5:49	5:52	5:45	5:57	-0:05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54	2:44	2:16	0:38
□ 여가시간	4:27	4:20	4:29	4:46	-0:26
대면교제	0:52	0:49	0:53	0:56	-0:07
미디어 외 여가	0:27	0:28	0:27	0:27	0:01
미디어 여가	1:49	1:43	1:50	2:03	-0:20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17	0:16	0:16	0:01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3	0:23	0:25	-0:02
기타	0:40	0:40	0:40	0:39	0:01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5. 장소, 활동,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사용

1) 방과 후 장소

방과 후 가장 아이들이 가장 오래 있는 곳은 ‘집’이며, 초등 저학년(6시간 58분)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고 고등(3시간 56분)이 가장 짧았으며, 약 90% 이상이 집에 귀가하는 시각은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학교급(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차 1시간씩▲ 늦어져, 초저는 저녁 6시 30분, 고등은 밤 9시 30분이 정도가 되어야 대부분 집에 있게 됨

□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초등 저학년들은 집(6시간 58분)에 가장 오래 머무름.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집에 머무른 평균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초저(6시간 58분)가 고등(3시간 56분)에 비해 3시간 2분▲ 더 집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됨
- 반면, 공부하는 장소에는 중등(1시간 35분)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초등 고학년이 체육시설에 있는 시간이(9분)으로 가장 짧. 고등은 식당, 편의점 카페에서의 평균 시간이 가장 짧(5분)
- 행위자 비율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이 될수록 집, 돌봄, 공부, 체육시설 모두 줄어들지만 식당, 편의점, 카페 시간만 유일하게 점차 증가하여(9.2%) 초등 저학년보다 6.8%p▲ 더 행위자 비율이 높음

〈표 48〉 방과 후 학교급별, 장소별 머무른 시간

단위(시간:분, %)

머무른 시간		학교급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집	평균시간	6:58	6:32	5:13	3:56
	행위자비율	99.2	98.3	96.5	87.0
돌봄	평균시간	0:09	0:06	0:02	0:02
	행위자비율	6.6	5.6	2.7	2.5
공부	평균시간	1:24	1:30	1:35	1:18
	행위자비율	70.8	67.8	62.7	44.2
체육시설	평균시간	0:08	0:09	0:05	0:04
	행위자비율	11.5	12.1	7.1	4.8
식당, 편의점, 카페	평균시간	0:01	0:02	0:03	0:05
	행위자비율	2.4	4.8	7.3	9.2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 (초저)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집에 있는 비율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저녁 6시 30분 이후에야 94.6%가 집에 있으며, 다른 장소 시간은 급감함

〈표 49〉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저학년생)

단위(%)

초저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7.6	20.1	31.3	41.2	59.3	84.9	94.6	97.0	98.7	99.1	99.3	99.5	1.0
돌봄	1.1	2.7	4.5	4.9	5.0	3.9	1.0	0.5	0.4	0.3	0.3	0.3	0.2
공부	5.5	27.9	47.2	52.3	44.6	26.5	8.3	3.2	1.5	0.7	0.4	0.6	0.3
체육시설	0.4	1.5	3.0	4.6	5.9	4.9	2.1	1.1	0.6	0.1	0.0	0.0	0.0
식당, 편의점, 카페	0.2	0.3	0.6	0.6	0.7	0.6	0.7	0.3	0.2	0.1	0.0	0.0	0.0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초고) 초고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함. 하지만, 초저보다 1시간▲ 더 후인 저녁 7시 30분에야 91.1%가 집에 들어갔고, 공부 관련 장소는 저녁 8시 30분이 되어서야 5.7%로 줄기 시작함

〈표 50〉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고학년생)

단위(%)

초고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3.2	16.5	40.2	44.7	54.0	74.2	86.4	91.1	95.0	97.6	98.2	99.0	4.7
돌봄	0.7	1.1	3.3	3.8	4.4	3.5	1.9	1.2	1.1	0.9	0.9	0.9	0.7
공부	1.5	13.7	41.6	51.2	47.9	37.8	19.6	10.5	5.7	2.4	1.0	1.1	0.5
체육시설	0.3	1.2	2.9	4.2	5.0	5.3	3.8	2.6	1.6	0.6	0.4	0.1	0.1
식당, 편의점, 카페	0.5	1.0	1.1	1.3	1.3	0.9	1.1	0.9	0.4	0.1	0.1	0.0	0.1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중등) 중등의 경우 초고보다 1시간▲ 뒤인 저녁 8시 30분에 93.6%가 집에 들어가며, 공부 장소 또한 이 시간대에 5.6%로 줄기 시작함

〈표 51〉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중학생)

단위(%)

중등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4.0	22.8	47.4	49.6	57.5	64.9	73.5	84.2	93.6	95.5	48.2	19.8	7.7
공부	1.4	9.5	28.0	43.4	45.5	38.4	25.3	15.1	5.6	2.9	1.3	1.4	1.1
체육시설	0.2	0.7	1.9	2.4	2.1	2.7	2.8	1.9	0.9	0.5	0.2	0.2	0.2
식당, 편의점, 카페	0.2	1.2	1.9	1.7	2.3	2.1	1.1	0.5	0.3	0.2	0.2	0.2	0.1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고등) 고등의 경우 시간대별 장소를 기록한 행위자 비율이 최대 91.7%로 다른 학교급 아동들이 기록 비율이 전체의 98~99%에 육박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가 잡힘. 고등의 경우 중등보다 1시간▲ 뒤인 저녁 9시 30분, 가장 높은 비율인 83.6%가 '집'에 머물러 귀가 시간이 가장 늦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저녁 9시 30분을 기준으로 공부 관련 장소도 8.6%로 조금씩 감소해, 12시 30분이 되어서야 1.8%로 떨어짐

〈표 52〉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고등학생)

단위(%)

고등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2.7	7.5	22.3	42.1	49.5	48.5	49.0	60.8	77.7	83.6	69.2	44.2	26.3
공부	0.4	2.4	8.6	19.5	28.2	31.4	29.5	24.5	14.2	8.6	3.4	2.1	1.8
체육시설	0.0	0.2	1.1	1.2	1.2	1.6	1.8	1.5	1.1	0.7	0.5	0.3	0.4
식당, 편의점, 카페	0.4	0.3	1.2	3.4	3.9	2.4	2.1	0.8	0.6	0.3	0.1	0.1	0.2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2) 방과 후 활동

방과 후에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은 오후 5시가 가장 높고▲, ‘혼자 공부’는 새벽 6시까지 2.6%가 하고 있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콕 아이들은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수면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90%대에 진입함

□ (학습)

- 학원/과외 수업은 오후 5시에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후 꾸준히 감소해 저녁 9시에 9.1%대로 줄어듦
- 사교육의 경우 학원/과외수업과 함께, 방송/온라인 수업, 학습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오후 5시(36.8%)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5.9%대에 진입함
- 사교육 외에 ‘혼자공부’까지 포함하는 시간인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의 경우에도 오후 5시(50.6%)가 최고치 비율이며, 가장 늦은 시간인 밤 12시가 되어서야 6.6%대로 학습을 하는 행위자 비율이 대폭 감소함
- 이에, 학원/과외는 자정 이후로는 행위자 비율이 0%대에 진입하나, 사교육은 새벽 1시(0.7%) 이후 0%대에 진입함. 혼자공부까지 포함한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은 새벽 2시에 2.6%로, 잠을 자지 않고 혼자공부를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

단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2:00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	21.4	36.4	48.0	50.6	45.7	46.2	42.8	31.6	20.4	13.5	6.6	4.5	2.6
사교육	16.9	28.6	35.9	36.8	29.3	25.1	19.3	12.3	5.9	3.3	1.3	0.7	0.5
학원/과외 수업	15.8	26.8	32.9	33.3	25.7	20.0	14.3	9.1	3.9	2.2	0.6	0.0	0.0

주1: 학교수업 외 학습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주2: 사교육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주3: 학원/과외 수업 → 시간일지 활동 코드: ‘국어, 수학, 영어’=7 or ‘그 외 과목들’=8

□ (여가)

- (집콕)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특성인 ‘집콕’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집콕하는 아이들 대부분 ‘공부’를 2시간 20분으로 가장 길게 하였으며, 가장 짧았던 ‘대면교제’ 시간(37분)보다 1시간 43분▲ 더 공부하고 83%가 공부 행위를 함
- ‘미디어 여가’는 평균 1시간 38분으로 ‘미디어 외 여가’보다 47분▲더 하며, 공부 다음인 78.2%가 많은 비율이 미디어 여가를 즐김. 초저가 가장 적고 중등이 많
- 대면교제는 평균 37분으로 가장 짧으며, 행위자 비율도 55.1%로 집에서 약 절반의 학생 정도만 대면교제를 함. 특히, 초저는 1시간(80.5%)으로 다른 여가시간과 큰 차이가 없고 행위자 비율도 높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짧아져 ‘집콕하는’ 고등은 16분(25.5%)만 ‘대면교제’를 하고, 행위자 비율도 가장 낮음

〈표 54〉 집콕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별 행위자 비율(방과 후~잘 때까지)

단위(시간:분, %)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5:26	93.6	5:27	98.7	5:49	97.4	5:31	93.4	4:42	81.4
공부	2:20	83.0	2:07	93.1	2:30	90.8	2:34	81.8	2:03	59.4
미디어 외 여가	0:51	64.2	1:07	78.2	0:55	70.0	0:42	58.2	0:37	45.3
미디어 여가	1:38	78.2	1:13	80.5	1:40	83.1	1:55	80.1	1:46	65.3
대면교제	0:37	55.1	1:00	80.1	0:44	65.4	0:20	41.0	0:16	25.5

주: 방과 후, 귀가 후 잘 때까지 활동(장소:집)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공부(학교수업 외 학습)=7~11,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3, 15, 16,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대면교제=14, 20

□ (수면)

- 밤 10시에 51.3%인 과반수의 아동들이 자기 시작하나, 새벽 1시가 되어서야 91.2%인 즉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로소 잠에 든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약 3%대에 해당하는 일부 아동은 여전히 새벽 3시가 되었음에도 수면 행위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표 55〉 시간대별 수면 행위자 비율

단위(%)

	22:00	23:00	0:00	1:00	2:00	3:00
수면	51.3	66.3	83.4	91.2	95.3	96.6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3) 함께한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3시간 31분으로 가장 길며▲, 학교급에서는 중등(4시간 8분)이 가장 길▲. 초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길▲

□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 전체 평균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3시간 31분)이 가장 길며, 행위자 비율도 가장 높음(90.3%).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2시간 39분)으로 혼자 시간보다는 52분▼ 더 짧음. 오프라인 친구와의 시간은 약 1시간(53.1%)이며, 온라인 친구와는 4분(5.5%)로 온라인 친구와의 시간이 가장 짧음
- 학교급별로 초저는 혼자시간(2시간 31분)보다 가족 및 친인척(4시간 53분) 시간이 가장 길고, 98.8%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 반면, 초고, 중등, 고등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며, 특히 중등은 혼자 시간이 4시간 8분으로 가장 길

〈표 56〉 학교급별, 방과 후 함께한 사람별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7:14	97.8	8:15	99.8	7:58	99.4	6:39	98.5	5:35	92.0
혼자	3:31	90.3	2:31	86.2	3:41	91.7	4:08	94.6	3:44	87.7
가족 및 친인척	2:39	85.7	4:53	98.8	3:11	95.7	1:22	82.9	0:41	57.0
오프라인 친구	1:00	53.1	0:50	50.0	1:03	57.6	1:04	55.3	1:04	47.5
온라인 친구	0:04	5.5	0:01	2.4	0:03	5.8	0:05	7.3	0:06	6.6

주: 시간일지에서 함께한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 혼자 있는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밤 11시에 97.6%로 가장 높음
-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가 가장 많으며(67.9%), 점차 감소하여 저녁 5시 이후로는 7.5%만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함
- 오프라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후 2시에 15.3%로 가장 높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오후 4시부터는 7% 이하로 지속 감소함

○ 온라인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가 8.9%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함

〈표 57〉 방과 후 시간대별 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비율

단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전체	87.8	76.5	69.4	65.2	77.3	81.8	85.5	90.9	96.2	97.6	32.7	15.7
혼자	15.2	27.1	41.7	54.0	70.6	76.1	80.2	87.0	93.3	95.0	31.3	14.8
가족 및 친인척	67.9	48.1	28.8	7.5	4.1	3.4	3.0	2.4	1.1	0.7	0.3	0.2
오프라인 친구	15.3	10.7	7.0	4.6	4.3	1.9	1.5	1.2	1.0	0.8	0.4	0.1
온라인 친구	8.9	7.5	6.9	4.2	3.2	2.7	2.6	2.4	2.1	1.9	1.6	1.0

주: 시간일지에서 함께한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Ⅱ. 아동행복지수 관련(촉진, 저해) 요인

Ⅱ. 아동행복지수 관련 요인

1. 요즘 아이들 생활 특성과 아동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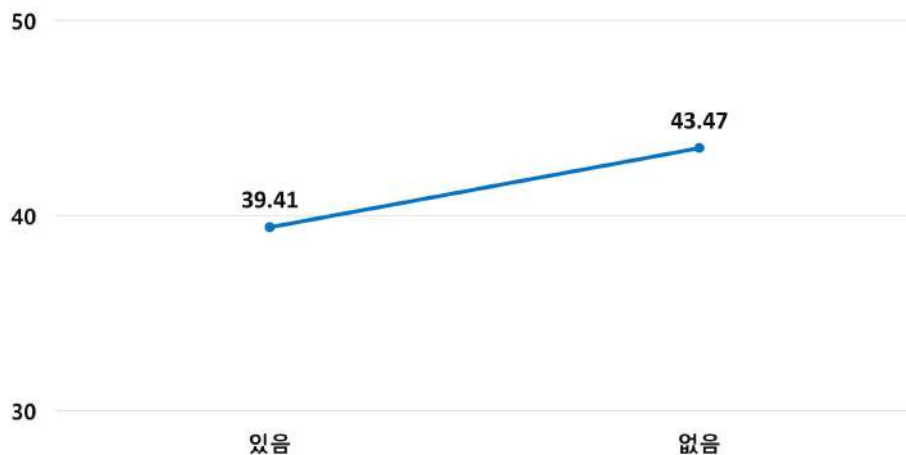
1) 밤에 쉽게 잠 못 드는 아이들

밤에 쉽게 잠 못 드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학업시간▲, 대면교제▼, 미디어여가▲이며, 우울불안▲, 자살생각▲, 자해경험▲, 비행행동▲ 고민상담자 없음▲

□ (아동행복지수)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아동행복지수가 4.06점▼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음($p < .001$)

[그림 36]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58〉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면경험	있음	1,332	39.41	22.52	6.175	0.000
	없음	8,808	43.47	21.56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 $<.001$, ** $p<.01$, * $<.05$

□ (불면 아이들 비율 및 이유)

- 우리나라 아이들의 13.1%는 평소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불면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늘어남
- 주된 이유는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29.2%)’ ‘소음 등의 환경적인 이유(24.4%)’, ‘해야할 일’이 많아서 (17%),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9.7%)’ 순으로 조사됨.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증가함

〈표 59〉 학교급별 불면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244	2,391	108.612	0.000
		비율	100.0	9.3	90.7		
	초고	학생 수	2,836	311	2,525		
		비율	100.0	11.0	89.0		
	중등	학생 수	2,746	419	2,327		
		비율	100.0	15.3	84.7		
	고등	학생 수	1,924	359	1,565		
		비율	100.0	18.7	81.3		
	전체	학생 수	10,141	1,333	8,808		
		비율	100.0	13.1	86.9		

***<.001, **p<.01, *<.05

〈표 60〉 학교급별 불면 이유

단위(명, %)

			전체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해야 할 일(공부, 과제 등)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운동 을 안하면 잠이 안옴)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를 하느라 (핸드폰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기타	χ^2	유의 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44	51	19	10	59	1	17	87	164.166	0.000
		비율	100.0	20.9	7.8	4.1	24.2	0.4	7.0	35.7		
	초고	학생 수	311	87	32	12	76	5	41	58		
		비율	100.0	28.0	10.3	3.9	24.4	1.6	13.2	18.6		
	중등	학생 수	418	114	88	9	130	7	42	28		
		비율	100.0	27.3	21.1	2.2	31.1	1.7	10.0	6.7		
	고등	학생 수	358	73	87	10	123	7	29	29		
		비율	100.0	20.4	24.3	2.8	34.4	2.0	8.1	8.1		
	전체	학생 수	1,331	325	226	41	388	20	129	202		
		비율	100.0	24.4	17.0	3.1	29.2	1.5	9.7	15.2		

***<.001, **p<.01, *<.05

□ (생활시간)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불면이 없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수면시간 34분▼로 큰 차이가 나으며, 학업시간은 31분▲임. 여가시간 또한 5분▲ 더 많았으나, 대면교제 시간은 9분▼, 미디어 여가시간은 8분▲인 특징을 보임

〈표 61〉 불면경험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어 외 여가	미디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불면경험	해당	1,332	10:26	7:55	1:56	0:37	9:00	6:11	2:49	4:32	0:43	0:28	1:56	0:16	0:26	0:41
	비해당	8,808	11:03	8:29	1:55	0:39	8:29	5:45	2:44	4:26	0:52	0:27	1:47	0:16	0:22	0:39

□ (심리·정서)

- (자해)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9명의 중고생 중에서 14.2%인 155명이 자해 경험 이 있으며, 불면이 없는 아이들(3.8%)에 비해 10.4%p▲ 더 높아 큰 차이를 보임

〈표 62〉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해여부)

자해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경험	해당	학생 수	1,089	155	934	201.256	0.000
		비율	100.0	14.2	85.8		
	비해당	학생 수	6,417	244	6,173		
		비율	100.0	3.8	96.2		
	전체	학생 수	7,506	399	7,107		
		비율	100.0	5.39	94.7		

- (자살 생각)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8명의 중고생 중에서 24.8%인 270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 불면이 없는 아이들(7.0%)에 비해 17.8%p▲더 높아 불면을 경험한 아이들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큰 폭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3〉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자살생각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경험	해당	학생 수	1,088	270	818	339.972	0.000
		비율	100.0	24.8	75.2		
	비해당	학생 수	6,417	450	5,967		
		비율	100.0	7.0	93.0		
	전체	학생 수	7,505	720	6,785		
		비율	100.0	9.6	90.4		

***<.001, **p<.01, *<.05

○ (우울·불안) 불면이 있는 아이들은 우울·불안(1.54점▲)을 더 느끼고 있음

〈표 64〉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면경험	해당	1,088	1.54	0.48	-19.595	0.000
	비해당	6,417	1.24	0.32		

○ (고민상담자)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8명의 중고생의 18.1%인 197명이 고민상담자가 없다고 응답하여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고민상담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p▲ 큰 폭으로 더 많았음

〈표 65〉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고민상담자 여부)

단위(명, %)

고민상담자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경험	해당	학생 수	1,088	891	197	120.557	0.000
		비율	100.0	81.9	18.1		
	비해당	학생 수	6,417	5,923	494		
		비율	100.0	92.3	7.7		
	전체	학생 수	7,505	6,814	691		
		비율	100.0	90.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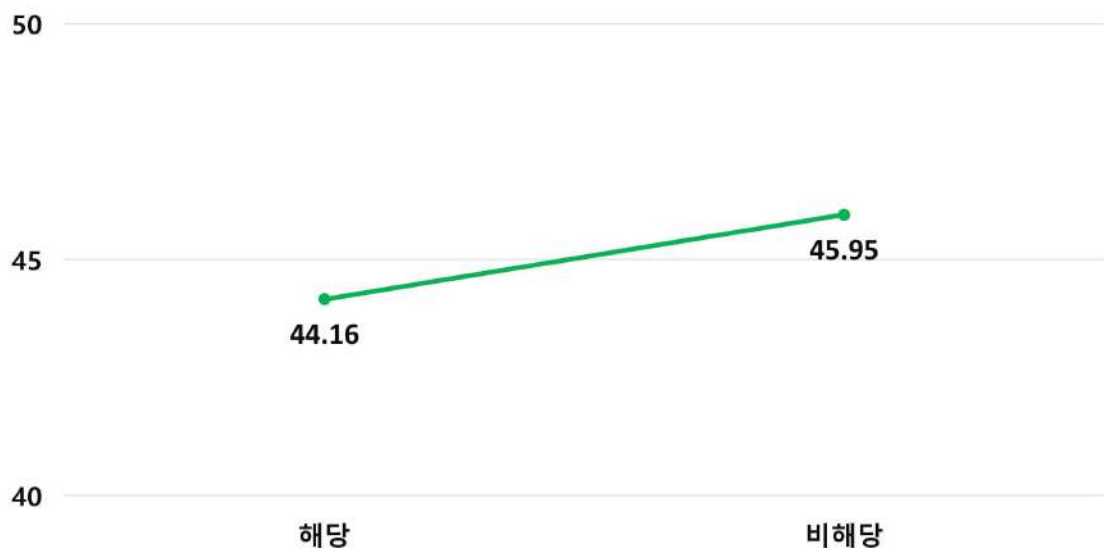
2)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우울불안▲, 자살생각▲

□ (아동행복지수)

- 가족과 공부를 주제로 대화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압박이 평균 이상인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아동행복 지수가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 (45.95점)에 비해 1.79점▼

[그림 3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66〉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	해당	3,746	44.16	21.20	-4.046	0.000
	비해당	6,394	45.95	21.69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 (생활시간)

-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수면시간(21분▼), 여가시간(25분▼) 더 짧았음
- 반면,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학업시간이 45분▲이나 더 길었으며, 특히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36분▲으로 큰 차이를 보여 학교 외 학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표 6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어 외 여가	미디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것 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공부압박 받는 아이들	해당	3,746	10:45	8:11	1:54	0:39	9:02	5:54	3:08	4:11	0:47	0:25	1:41	0:14	0:21	0:39
	비해당	6,394	11:06	8:32	1:55	0:38	8:17	5:45	2:31	4:36	0:53	0:28	1:53	0:17	0:23	0:39

***<.001, **p<.01,*<.05

□ (심리·정서)

- (자살) 공부 압박을 받는 2,943명의 중고생 중에서 10.8%인 319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 그렇지 않은 아이들(8.8%)보다 2%p▲

〈표 68〉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자살생각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	해당	학생수	2,943	319	2,624	4.066	0.000
		비율	100.0	10.8	89.2		
	비해당	학생수	4,563	402	4,161		
		비율	100.0	8.8	91.2		
	전체	학생수	7,506	721	6,785		
		비율	100.0	9.6	90.4		

***<.001, **p<.01,*<.05

- (우울·불안)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0.04점▲ 우울·불안을 더 느끼고 있고 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함(p<.001)

〈표 69〉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	해당	2,942	1.31	0.38	4.066	0.000
	비해당	4,563	1.27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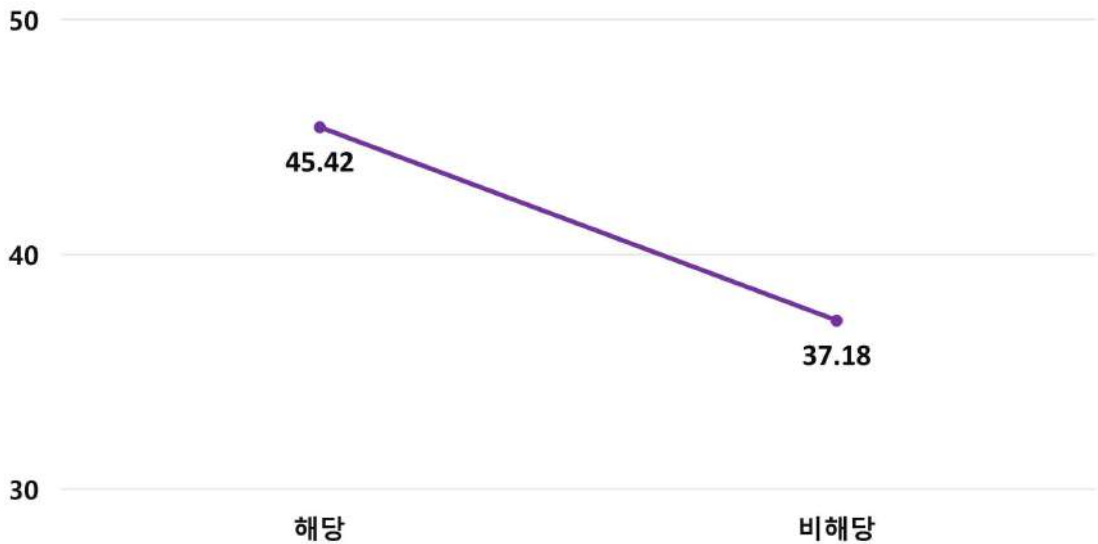
3)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주말에 보호자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대면교제▲, 미디어 외 여가▲, 운동 및 신체활동▲, 자살▼, 자해▼, 우울불안▼, 고민 상담할 사람 있음▲

□ (아동행복지수)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45.42점)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37.18점)에 비해 8.24점▲ 더 높아 그 차이가 큼

[그림 38]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70>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9,977	45.42	21.46	4,395	0.000
	비해당	163	37.18	23.73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 (생활시간)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생활시간은 특히 ‘수면’시간 52분▲ 으
로 큰 특징을 보였으며, 여가시간(31분▲) 중에서도 특히 대면교제 시간이 30분▲,
미디어 외 여가시간도 8분▲ 길었고,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도 6분▲
- 이처럼,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을 할 경우 운동과, 대면교제, 미디어 외 여가등 더 건
강한 여가시간이 높았으며, 반대로 미디어 여가는 8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은
17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어 외 여가	미디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것 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9,977	10:59	8:25	1:54	0:39	8:32	5:47	2:44	4:27	0:52	0:27	1:48	0:16	0:22	0:39
	비해당	163	10:07	7:30	2:07	0:28	9:56	7:05	2:51	3:55	0:21	0:19	1:51	0:09	0:39	0:33

***<.001, **p<.01,*<.05

□ (심리·정서)

- (자해)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자해경험 비율(5.1%)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14.7%)보다 9.6%p▼로 큰 폭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72〉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해여부) 비교

단위(명, %)

자해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49	376	6,973	28.126	0.000
		비율	100.0	5.1	94.9		
	비해당	학생수	156	23	133		
		비율	100.0	14.7	85.3		
	전체	학생수	7,505	399	7,106		
		비율	100.0	5.3	94.7		

***<.001, **p<.01,*<.05

- (자살생각)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자살생각 비율(9.3%)은 주
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15.7%p▼더 낮아 큰 차이를 보임

〈표 73〉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자살생각) 비교

단위(명, %)

자살생각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50	682	6,668	43.481	0.000
		비율	100.0	9.3	90.7		
	비해당	학생수	156	39	117		
		비율	100.0	25.0	75.0		
	전체	학생수	7,506	721	6,785		
		비율	100.0	9.6	90.4		

***<.001, **p<.01, *<.05

- (우울·불안) 주말에 보호자와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울·불안 0.21점▼ 더 낮음

〈표 74〉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7,349	1.28	0.36	-4.577	0.000
	비해당	156	1.49	0.57		

- (고민상담자) 보호자와 주말활동을 함께 하는 아이들은 ‘고민 상담자가 있다는 비율이 20.7%p▲ 큰 폭으로 더 많았음

〈표 75〉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고민상담자) 비교

단위(명, %)

고민 상담자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49	6,704	645	78.380	0.000
		비율	100.0	91.2	8.8		
	비해당	학생수	156	110	46		
		비율	100.0	70.5	29.5		
	전체	학생수	7,505	6,814	691		
		비율	100.0	90.8	9.2		

***<.001, **p<.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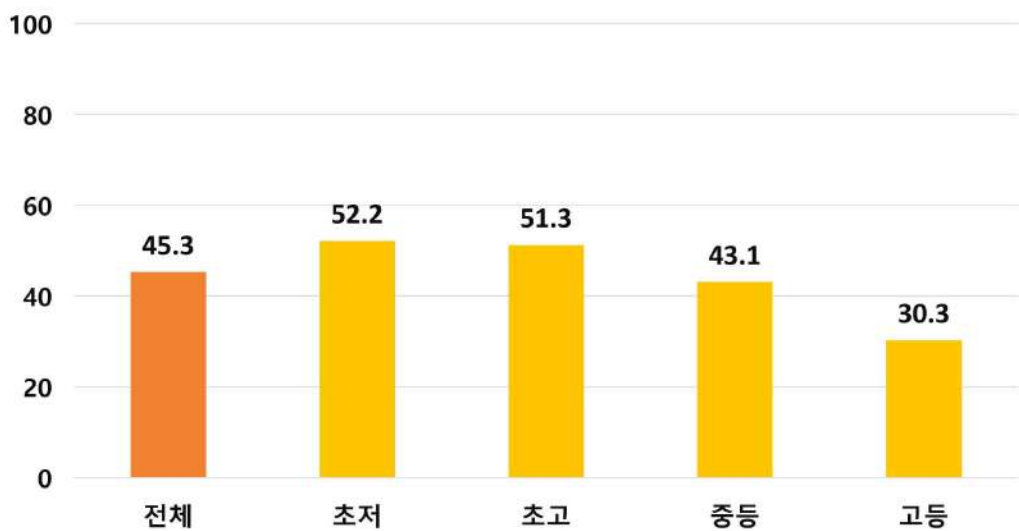
2. 학교급(연령)과 아동행복지수

학교급(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 불균형이 심화되어 아동행복지수는▼ 감소함.

□ (아동행복지수)

- 초저(52.2점)의 아동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등(30.3점)의 경우 21.9점▼ 감소함

[그림 39]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76>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명, %)

		학생 수	평균 점수	표준편차	표준화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교급	초저	2,635	52.2	16.14	0.31	51.57	52.81
	초고	2,836	51.3	19.57	0.36	50.44	51.88
	중등	2,745	43.1	22.02	0.42	42.23	43.89
	고등	1,924	30.3	21.98	0.50	29.36	31.32
	전체	10,140	45.3	21.53	0.21	44.87	45.71

***<.001, **p<.01,*<.05

1) 시간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공부▲, 미디어시간▲, 방과 후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 (증가시간) 혼자공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미디어

○ 혼자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초저(46분)에서 고등(1시간 51분)으로 지속 증가하여, 고등이 초저보다 1시간 5분▲ 더 혼자 공부함

○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시간 또한 초저(17분)에서 고등(30분) 지속증가하여 13분▲

○ 미디어 시간도 초저(1시간 19분)에서 고등(2시간 53분)으로 증가해, 1시간 33분▲

〈표 77〉 주행동 시간요인(증가시간)

단위(시간:분)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
혼자 공부하는 시간 (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학 교 급	초저	2,635	0:46	0:41	214.289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03	1:03			
		중등	2,745	1:11	1:23			
		고등	1,924	1:51	2:05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시간 (낮잠, 멍때리는 시간)	학 교 급	초저	2,635	0:17	0:30	40.929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0:21	0:34			
		중등	2,745	0:24	0:40			
		고등	1,924	0:30	0:50			
미디어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5	1:19	1:10	296.001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50	1:36			
		중등	2,745	2:22	2:12			
		고등	1,924	2:53	2:48			

- (감소시간) 방과 후 운동, 방과 후 취침 때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대화 시간
- 방과 후 운동시간의 경우 초저(16분)에서 고등(7분)으로 지속감소하여, 9분▼
- 방과 후 취침 전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초저(4시간 54분)이나, 지속 감소하여 고등(44분)으로 4시간 9분▼
- 가족과의 대화 시간량 또한, 초저(50분)에서 지속감소하여 고등(9분)이 40분▼

〈표 78〉 주행동 시간요인(감소시간)

단위(시간:분)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
방과 후 운동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5	0:16	0:33	44.954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0:14	0:33			
		중등	2,745	0:09	0:29			
		고등	1,924	0:07	0:26			
방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4	4:54	2:12	2703.955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3:12	2:12			
		중등	2,741	1:24	1:32			
		고등	1,922	0:44	1:09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5	0:50	0:55	472.211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0:32	0:44			
		중등	2,745	0:14	0:26			
		고등	1,924	0:09	0:27			

2) 심리정서 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정서(고립, 미래불안)▲, 긍정정서(편안함, 행복감)▼, 자살 및 자해경험 ▲, 상담 및 병원방문 ▲, 부모님께 고민상담▼, 고민상담할 사람 없음▲

□ (부정정서) 고립감, 미래 불안감

○ 부정정서는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 증가하여, 고등이 초고보다 고립감은 0.53점 ▲, 미래 불안감은 2.72점▲ 더 높음

□ (긍정정서) 편안함, 주관적 행복감

○ 반면, 긍정정서는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 감소하여, 고등이 초저보다 편안함은 1.00점▼, 주관적 행복감은 1.77점▼

〈표 79〉 심리정서 요인

단위(명, %)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고립감	학 교 급	초저	-	-	-	162,565	0.000	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86	0.95			
		중등	2,745	2.15	1.02			
		고등	1,924	2.39	1.10			
미래 불안감	학 교 급	초저	2,635	3.26	2.27	1438.607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4.37	2.50			
		중등	2,745	6.11	2.27			
		고등	1,924	7.09	2.04			
편안함	학 교 급	초저	2,635	8.16	1.38	181.241	0.000	고등<중등<초저,초고
		초고	2,836	8.17	1.55			
		중등	2,745	7.60	1.72			
		고등	1,924	7.16	1.93			
주관적 행복감	학 교 급	초저	2,635	8.27	1.46	453.713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8.01	1.73			
		중등	2,745	7.13	1.95			
		고등	1,924	6.50	2.09			

주: 초저는 고립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 (충동정서) 자살 생각, 자해

-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고(4.3%)에서 고등(7.3%)으로 갈수록 3.0%p▲
- 심지어, 자살생각 또한 초고(5.3%)에서 고등(15.4%)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1%p▲로 큰폭 상승함
- (이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응답한 자살생각의 이유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간 갈등’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임

〈표 80〉 학교급별 자해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22.010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7	122	2,715		
		비율	100.0	4.3	95.7		
	중등	학생 수	2,745	136	2,609		
		비율	100.0	5.0	95.0		
	고등	학생 수	1,924	141	1,783		
		비율	100.0	7.3	92.7		
	전체	학생 수	7,506	399	7,017		
		비율	100.0	5.3	94.7		

주: 초저는 자해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표 81〉 학교급별 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135.645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6	151	2,685		
		비율	100.0	5.3	94.7		
	중등	학생 수	2,745	272	2,473		
		비율	100.0	9.9	90.1		
	고등	학생 수	1,924	297	1,627		
		비율	100.0	15.4	84.6		
	전체	학생 수	7,505	720	6,785		
		비율	100.0	9.6	90.4		

주: 초저는 자살생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표 82〉 학교급별 자살생각 이유

단위(명, %)

			전체	학교 성적	가족 간 갈등	선후배 또는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	—	—	—	41.962	0.000
		비율	—	—	—	—	—	—	—		
	초고	학생 수	151	17	70	27	4	26	7		
		비율	100.0	11.3	46.4	17.9	2.6	17.2	4.6		
	중등	학생 수	271	32	103	56	3	59	18		
		비율	100.0	11.8	38.0	20.7	1.1	21.8	6.6		
	고등	학생 수	297	48	84	31	7	107	20		
		비율	100.0	16.2	28.3	10.4	2.4	36.0	6.7		
	전체	학생 수	719	97	257	114	14	192	45		
		비율	100.0	13.5	35.7	15.9	1.9	26.7	6.3		

주: 초저는 자살생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 (정신건강 상담 및 도움) 자살 생각, 자해

- (도움) 우울, 자살 등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구한 경험이 초고(4%), 고등(10%)로 고등이 6%p▲ 연령과 함께 증가함

〈표 83〉 학교급별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62.285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6	119	2,717		
		비율	100.0	4.0	96.0		
	중등	학생 수	2,745	176	2,569		
		비율	100.0	6.4	93.6		
	고등	학생 수	1,923	191	1,732		
		비율	100.0	10.0	90.0		
	전체	학생 수	7,504	486	7,018		
		비율	100.0	6.5	93.5		

주: 초저는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3) 공부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공부압박▲, 부모 교육열의(참여)▼, 주말학원▲

□ (부모 교육열의 및 공부압박)

- 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열의'는 초저(2.56점)에서 고등(1.97점)으로 갈수록 지속감소하여 0.59점▼
- 반면, 공부압박은 초저(2.29점)에서 고등(2.49점)으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0.2점▲ 더 증가함

〈표 84〉 부모 및 관계요인

단위(명, %)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교육열의	학 교 급	초저	2,635	2.56	0.50	427.966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2.39	0.61			
		중등	2,745	2.19	0.65			
		고등	1,924	1.97	0.67			
공부압박	학 교 급	초저	2,635	2.29	0.86	50.981	0.000	초고,초저<고등,중등
		초고	2,836	2.26	0.94			
		중등	2,745	2.54	1.05			
		고등	1,924	2.49	1.11			

□ (방과 후)

- 정규수업이 끝난 후 46.0%는 '집'으로 가고 32.2%는 '학원'으로 제일 먼저 감
- 특히, 초등 저학년은 24.4%만 '집'으로 가고 30.4%는 '학원'으로 41.5%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로 제일 먼저 가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가 끝난 후 '학원'을 보내는 초등저학년 부모의 23.8%는 '하교 후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함

〈표 85〉 정규수업 후(방과 후) 제일 먼저 가는 곳

단위(명, %)

			전체	집	학교 ¹⁾	학원	돌봄센터 ²⁾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6	644	1,095	802	79	16	2070.782	0.000
		비율	100.0	24.4	41.5	30.4	3.0	0.6		
	초고	학생 수	2,837	1,269	437	1,024	67	40		
		비율	100.0	44.7	15.4	36.1	2.4	1.4		
	중등	학생 수	2,745	1,690	78	904	21	52		
		비율	100.0	61.6	2.8	32.9	0.8	1.9		
	고등	학생 수	1,923	1,060	169	538	13	143		
		비율	100.0	55.1	8.8	28.0	0.7	7.4		
전체		학생 수	10,141	4,663	1,779	3,268	180	251		
		비율	100.0	46.0	17.5	32.2	1.8	2.5		

***<.001, **p<.01, *<.05

주: 1) 학교: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2)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표 86〉 방과 후 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

단위(명, %)

			전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 후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서	선행 학습을 위해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 (불안해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117	937	504	71	30	95	480	1391.173	0.000
		비율	100.0	44.3	23.8	3.4	1.4	4.5	22.7		
	초고	학생 수	2,253	1551	187	75	32	110	298		
		비율	100.0	68.8	8.3	3.3	1.4	4.9	13.2		
	중등	학생 수	2,142	1,839	48	60	23	68	104		
		비율	100.0	85.9	2.2	2.8	1.1	3.2	4.9		
	고등	학생 수	1,274	1139	10	21	15	16	73		
		비율	100.0	89.4	0.8	1.6	1.2	1.3	5.7		
전체	학생 수	7,786	5,466	749	227	100	289	955			
	비율	100.0	70.2	9.6	2.9	1.3	3.7	12.3			

***<.001, **p<.01, *<.05

□ (주중 사교육)

○ 주중 역시 78.1%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 대부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초저의 경우 84.5%가 학원을 다니는데 이 중 44.1%는 교과목 학원을 39.6%는 예체능 학원을 다니다 초고가 되면 전체의 63%가 교과목 학원을 17.7%가 예체능 학원을 다님

○ 또한, 초저의 64%, 초고의 40.1%는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가는데, 초저의 34.3% 초고의 19.7%가 방과후 학교에서 ‘예체능수업’을 수강하고 있어 초저에서 초고로 올라가면서 학원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포착됨

〈표 87〉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단위(명, %)

학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408	1,163	1,043	21	1311.960	0.000
		비율	100.0	15.5	44.1	39.6	0.8		
	초고	학생 수	2,836	517	1,786	502	31		
		비율	100.0	18.2	63.0	17.7	1.1		
	중등	학생 수	2,745	624	1,885	205	31		
		비율	100.0	22.7	68.7	7.5	1.1		
	고등	학생 수	1,924	671	1,102	139	12		
		비율	100.0	34.9	57.3	7.2	0.6		
	전체	학생 수	10,140	2,220	5,936	1,889	95		
		비율	100.0	21.9	58.5	18.6	0.9		

*** $\angle .001$, ** $p \angle .01$, * $\angle .05$

〈표 88〉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단위(명, %)

학습지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6	1,179	1,377	35	45	351.276	0.000
		비율	100.0	44.7	52.2	1.3	1.7		
	초고	학생 수	2,836	1,433	1,327	27	49		
		비율	100.0	50.5	46.8	1.0	1.7		
	중등	학생 수	2,745	1,752	932	28	33		
		비율	100.0	63.8	34.0	1.0	1.2		
	고등	학생 수	1,923	1,302	575	23	23		
		비율	100.0	67.7	29.9	1.2	1.2		
	전체	학생 수	10,140	5,666	4,211	113	150		
		비율	100.0	55.9	41.5	1.1	1.5		

*** $\angle .001$, ** $p \angle .01$, * $\angle .05$

〈표 89〉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방과 후 학교)

단위(명, %)

방과 후 학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4	949	558	904	223	1628.100	0.000
		비율	100.0	36.0	21.2	34.3	8.5		
	초고	학생 수	2,837	1,700	373	558	206		
		비율	100.0	59.9	13.1	19.7	7.3		
	중등	학생 수	2,746	2,248	263	200	35		
		비율	100.0	81.9	9.6	7.3	1.3		
	고등	학생 수	1,924	1,395	386	81	62		
		비율	100.0	72.5	20.1	4.2	3.2		
	전체	학생 수	10,141	6,292	1,580	1,743	526		
		비율	100.0	62.0	15.6	17.2	5.2		

***<.001, **p<.01, *<.05

□ (주말 사교육)

- 주말에 우리나라 아이들 중 57.2% 학원을 다녀, 과반수의 아이들이 주말에도 학원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9%는 국영수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음. 또 39.3%는 주말에 학습지(태플릿 PC, 종이)로 공부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말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비율은 감소하고(초저 48.0%, 고등 36.8%), 학습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증가함(초저, 56.7%, 고등 65.4%)

〈표 90〉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단위(명, %)

학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266	623	709	37	852.573	0.000
		비율	100.0	48.0	23.6	26.9	1.4		
	초고	학생 수	2,836	1,331	1,036	420	49		
		비율	100.0	46.9	36.5	14.8	1.7		
	중등	학생 수	2,746	1,035	1,438	229	44		
		비율	100.0	37.7	52.4	8.3	1.6		
	고등	학생 수	1,923	708	1,047	142	26		
		비율	100.0	36.8	54.4	7.4	1.4		
	전체	학생 수	10,140	4,340	4,144	1,500	156		
		비율	100.0	42.8	40.9	14.8	1.5		

***<.001, **p<.01, *<.05

〈표 91〉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단위(명, %)

학습지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495	1,081	24	35	70.823	0.000
		비율	100.0	56.7	41.0	0.9	1.3		
	초고	학생 수	2,836	1,648	1,108	27	53		
		비율	100.0	58.1	39.1	1.0	1.9		
	중등	학생 수	2,745	1,756	907	31	51		
		비율	100.0	64.0	33.0	1.1	1.9		
	고등	학생 수	1,924	1,258	605	28	33		
		비율	100.0	65.4	31.4	1.5	1.7		
	전체	학생 수	10,140	6,157	3,701	110	172		
		비율	100.0	60.7	36.5	1.1	1.7		

***<.001, **p<.01,*<.05

4) 관계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10분 이상 대화▼, 부모와 공부주제로 대화▲, 집콕 선호비율▲, 고민상담할 사람 없음▲, 부모님께 고민상담▼,

□ (대화)

- (부모님)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초저(98.3%)에서 고등(83.5%)로 갈수록 비율이 감소함(14.7%P▼)
- (가족 대화주제) 가족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의 37.3%가 ‘공부, 성적, 장래희망’ 등에 대해 주로 대화한다고 응답함. 특히 이 주제로 대화한다는 응답자가 초저(19.5%), 고등(57.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증가하여 38.2%p▲ 더 많아짐

〈표 92〉 학교급별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

			단위(명, %)			
			전체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χ^2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4	2588	46	495.365
		비율	100.0%	98.3%	1.7%	
	초고	학생 수	2836	2755	81	
		비율	100.0%	97.1%	2.9%	
	중등	학생 수	2745	2561	184	
		비율	100.0%	93.3%	6.7%	
	고등	학생 수	1924	1607	317	
		비율	100.0%	83.5%	16.5%	
	전체	학생 수	10139	9511	628	0.000
		비율	100.0%	93.8%	6.2%	

***<.001, **p<.01, *<.05

〈표 93〉 학교급별 가족과의 대화주제

												단위(명, %)	
			전체	게임, 인터넷, 모바일	공부, 성적, 장래희망	외모	연예인, 방송	나의 기분이나 생각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족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468	514	82	89	397	72	5	8	1128.162	0.000
		비율	100.0	55.7	19.5	3.1	3.4	15.1	2.7	0.2	0.3		
	초고	학생 수	2,835	1,269	864	72	113	309	161	13	34		
		비율	100.0	44.8	30.5	2.5	4.0	10.9	5.7	0.5	1.2		
	중등	학생 수	2,746	891	1,295	44	131	207	119	4	55		
		비율	100.0	32.4	47.2	1.6	4.8	7.5	4.3	0.1	2.0		
	고등	학생 수	1,925	447	1,111	17	85	149	54	5	57		
		비율	100.0	23.2	57.7	0.9	4.4	7.7	2.8	0.3	3.0		
	전체	학생 수	10,141	4,075	3,784	215	418	1,062	406	27	154		
		비율	100.0	40.2	37.3	2.1	4.1	10.5	4.0	0.3	1.5		

***<.001, **p<.01, *<.05

- (학교 선생님) 우리나라 아이들의 49.4%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응답함

〈표 94〉 학교급별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 대화

단위(명, %)

			전체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572	1,063	142.722	0.000
		비율	100.0	59.7	40.3		
	초고	학생 수	2,836	1,426	1,410		
		비율	100.0	50.3	49.7		
	중등	학생 수	2,746	1,199	1,547		
		비율	100.0	43.7	56.3		
	고등	학생 수	1,924	934	990		
		비율	100.0	48.5	51.5		
	전체	학생 수	10,141	5,131	5,010		
		비율	100.0	50.6	49.4		

***<.001, **p<.01,*<.05

□ (집콕 선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

- (비율) 우리나라 아이들 중, 60.8%는 ‘여유시간에 집콕(집에서만 시간 보내기)’을 선호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콕 선호 비율 또한 증가하여 초저(43.9%)에 비해 고등(76.1%)이 32.2%p▲더 집콕을 선호함
- (이유) 집콕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초저는 1위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31.6%)’인 반면, 고등(5.0%)으로 갈수록 해당이유는 감소함. 반면, 고등 1위인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33.3%)’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속 증가함

〈표 95〉 집콕 선호 여부

단위(명, %)

평소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집콕을 선호 한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1,156	1,479	2,635
		비율	43.9	56.1	100.0
	초고	학생 수	1,625	1,211	2,836
		비율	57.3	42.7	100.0
	중등	학생 수	1,919	826	2,745
		비율	69.9	30.1	100.0
	고등	학생 수	1,463	460	1,923
		비율	76.1	23.9	100.0
전체		학생 수	6,163	3,976	10,139
		비율	60.8	39.2	100.0

〈표 96〉 학교급별 집콕 선호 이유

단위(명, %)

			전체	친구랑 놀이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	용돈이 부족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가족 중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1,156	237	10	212	8	129	365	195	706.187	0.000
		비율	100.0	20.5	0.9	18.3	0.7	11.2	31.6	16.9		
	초고	학생 수	1,625	415	55	405	15	122	326	287		
		비율	100.0	25.5	3.4	24.9	0.9	7.5	20.1	17.7		
	중등	학생 수	1,918	569	150	522	13	83	184	397		
		비율	100.0	29.7	7.8	27.2	0.7	4.3	9.6	20.7		
	고등	학생 수	1,462	487	190	405	3	53	73	251		
		비율	100.0	33.3	13.0	27.7	0.2	3.6	5.0	17.2		
	전체	학생 수	6,161	1,708	405	1,544	39	387	948	1,130		
		비율	100.0	27.7	6.6	25.1	0.6	6.3	15.4	18.3		

***<.001, **p<.01, *<.05

□ (고민상담) 고민 상담하는 사람

- 초저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는 사람 1위가 어머니(62.2%) 2위가 친구(12.3%), 3위가 아버지(9.5%)임
- 중등은 1위가 어머니(46.3%), 2위는 친구(26.2%), 3위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9.7%)’임
- 고등도 중등과 마찬가지로 1위 어머니(33.4%), 2위 친구(32.2%), 3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13.6%)임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어머니(28.8%p▼), 아버지(1.4%p▼)에 대한 고민상담은 감소하고, 친구(19.9%p▲)와 아예 고민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9%p▲증가함

〈표 97〉 학교급별 고민상담 대상

단위(명, %)

		전체	이야기(상담)할 사람이 없음	아버지(혹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보호자)	어머니(혹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보호자)	형제/자매	함께 사는 어른(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	친구/선후배	학교 선생님(담임/상담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선생님	기타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수	—	—	—	—	—	—	—	—	—	570.425	0.000
		비율	—	—	—	—	—	—	—	—	—		
	초고	학생수	2,836	163	269	1,765	128	29	350	63	18		
		비율	100.0	5.7	9.5	62.2	4.5	1.0	12.3	2.2	0.6		
	중등	학생수	2,745	266	211	1,271	105	16	720	85	20		
		비율	100.0	9.7	7.7	46.3	3.8	0.6	26.2	3.1	0.7		
	고등	학생수	1,923	262	131	642	113	9	619	104	11		
		비율	100.0	13.6	6.8	33.4	5.9	0.5	32.2	5.4	0.6		
	전체	학생수	7,504	691	611	3,678	346	54	1,689	252	49		
		비율	100.0	9.2	8.1	49.0	4.6	0.7	22.5	3.4	0.7		

주: 초저는 고민상담 대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5) 균형시간 인식 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면▲ 과소수면 인식▲, 과소운동 인식▲, 과다미디어 인식▲ 증가.

□ (과소수면 인식)

- 불면 외에, 실제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낀 아이들은 36.2%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 부족을 느끼는 비율 또한 지속 증가함

〈표 98〉 학교급별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613	2,022	912.887	0.000
		비율	100.0	23.3	76.7		
	초고	학생 수	2,836	690	2,146		
		비율	100.0	24.3	75.7		
	중등	학생 수	2,745	1,218	1,527		
		비율	100.0	44.4	55.6		
	고등	학생 수	1,923	1,153	770		
		비율	100	60.0	40.0		
	전체	학생 수	10,139	3,674	6,465		
		비율	100.0	36.2	63.8		

***<.001, **p<.01, *<.05

□ (과소운동 인식)

- 우리나라 아이들의 52.7%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 또한 증가함

〈표 99〉 학교급별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163	1,472	388.852	0.000
		비율	100.0	44.1	55.9		
	초고	학생 수	2,836	1,254	1,582		
		비율	100.0	44.2	55.8		
	중등	학생 수	2,745	1,614	1,131		
		비율	100.0	58.8	41.2		
	고등	학생 수	1,923	1,314	609		
		비율	100.0	68.3	31.7		
	전체	학생 수	10,139	5,345	4,794		
		비율	100.0	52.7	47.3		

***<.001, **p<.01, *<.05

□ (과다 미디어 인식)

○ 우리나라 아이들의 55.8%는 ‘미디어 사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며, 지속 증가함

〈표 100〉 학교급별 과도한 미디어 사용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315	1,320	183.538	0.000
		비율	100.0	49.9	50.1		
	초고	학생 수	2,837	1,422	1,415		
		비율	100.0	50.1	49.9		
	중등	학생 수	2,745	1,636	1,109		
		비율	100.0	59.6	40.4		
	고등	학생 수	1,924	1,284	640		
		비율	100.0	66.7	33.3		
	전체	학생 수	10,141	5,657	4,484		
		비율	100.0	55.8	44.2		

***<.001, **p<.01, *p<.05

6) 기타

건강문제로 인한 결석은 초고가 가장▲, 고등이 가장▼. 희망직업은 초저, 중등, 고등 모두 1위는 의료계열(의사, 간호사)이며, 초고는 1위가 운동선수 또는 관련직업임.

□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

○ 우리나라 아이들 중, 34%는 한 달 동안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이 있음

〈표 101〉 학교급별 결석 여부 및 일수

단위(명, %)

			전체	전혀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4	1,788	567	233	39	7	110.432	0.000
		비율	100.0	67.9	21.5	8.8	1.5	0.3		
	초고	학생 수	2,836	2,002	556	226	38	14		
		비율	100.0	70.6	19.6	8.0	1.3	0.5		
	중등	학생 수	2,745	1,748	702	200	73	22		
		비율	100.0	63.7	25.6	7.3	2.7	0.8		
	고등	학생 수	1,923	1,155	564	152	33	19		
		비율	100.0	60.1	29.3	7.9	1.7	1.0		
	전체	학생 수	10,138	6,693	2,389	811	183	62		
		비율	100.0	66.0	23.6	8.0	1.8	0.6		

***<.001, **p<.01, *p<.05

□ (희망직업)

- 희망하는 직업유형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미술, 음악 관련 직업’ ‘엔터테인먼트, 방송인’을 선호하는 편이고 중고등학생일수록 ‘교육 계열’ ‘공무원’ ‘의료계열’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표 102〉 학교급별 희망하는 직업 유형

단위(명, %)

희망하는 직업 유형 (2개 응답)			전체	교육 계열 (교사 또는 교수)	공무원	의료 계열 (의사, 간호사 등)	운동선 수 또는 관련 직업	미술 관련 직업 (화가, 디자인, 큐레이 터 등)	음악 관련 직업 (가수, 성악가, 연주자 등)	엔터테 인먼트 (아이돌, 배우, 모델, 유튜버, 연예인, 방송인 등)	엔지니 어 또는 개발자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군인· 경찰	창업 (CEO, 요식업, 카페 등의 자영업 사장님)	임대업 (건물주, 오피스 텔 등 임대업 자)	투자 전문가 (주식, 코인 등)	부모님 사업 (가업) 물려 받기	기타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2,634	207	132	399	337	341	112	376	199	73	110	109	23	9	9	198	668.6 56	0.000
		비율	100.0	7.9	5.0	15.1	12.8	12.9	4.3	14.3	7.6	2.8	4.2	4.1	0.9	0.3	0.3	7.5		
	초 고	학생 수	2,838	284	136	358	432	336	122	406	189	86	82	137	24	9	19	218		
		비율	100.0	10.0	4.8	12.6	15.2	11.8	4.3	14.3	6.7	3.0	2.9	4.8	0.8	0.3	0.7	7.7		
	중 등	학생 수	2,745	304	252	382	270	262	108	224	262	97	95	145	38	35	13	258		
		비율	100.0	11.1	9.2	13.9	9.8	9.5	3.9	8.2	9.5	3.5	3.5	5.3	1.4	1.3	0.5	9.4		
	고 등	학생 수	1,922	187	200	285	89	136	50	107	325	46	73	126	13	30	11	244		
		비율	100.0	9.7	10.4	14.8	4.6	7.1	2.6	5.6	16.9	2.4	3.8	6.6	0.7	1.6	0.6	12.7		
	전 체	학생 수	10,139	982	720	1,424	1,128	1,075	392	1,113	975	302	360	517	98	83	52	918		
		비율	100.0	9.7	7.1	14.0	11.1	10.6	3.9	11.0	9.6	3.0	3.6	5.1	1.0	0.8	0.5	9.1		

Ⅲ.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Ⅲ.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1. 지역별 아동행복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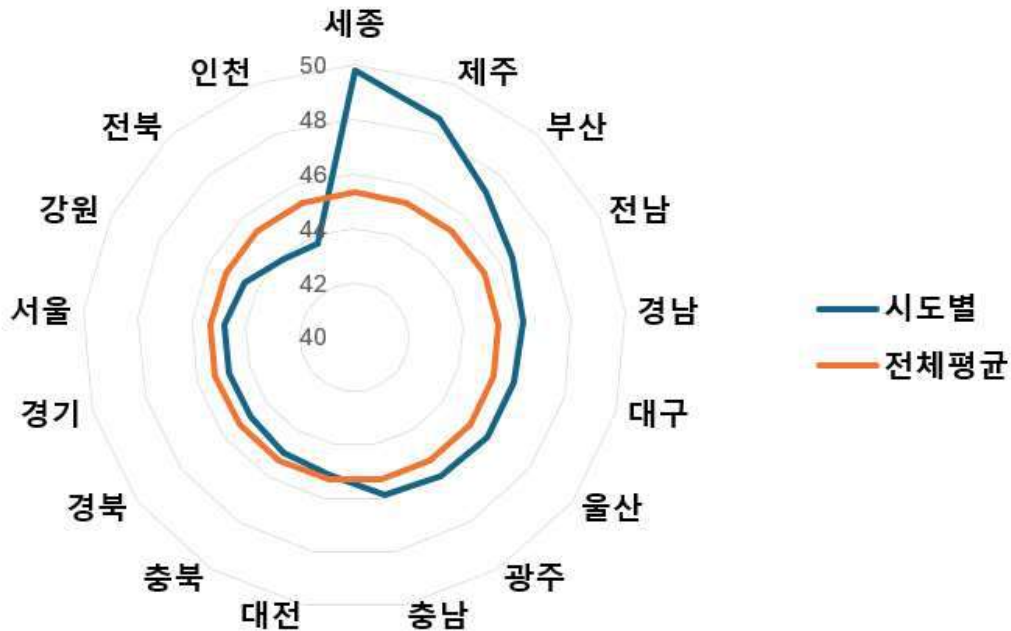
1) 아동행복지수 비교

아동행복지수의 전국 평균은 45.3점이며, 1위 세종(49.8점)과 17위 인천(43.7점)은 6.1점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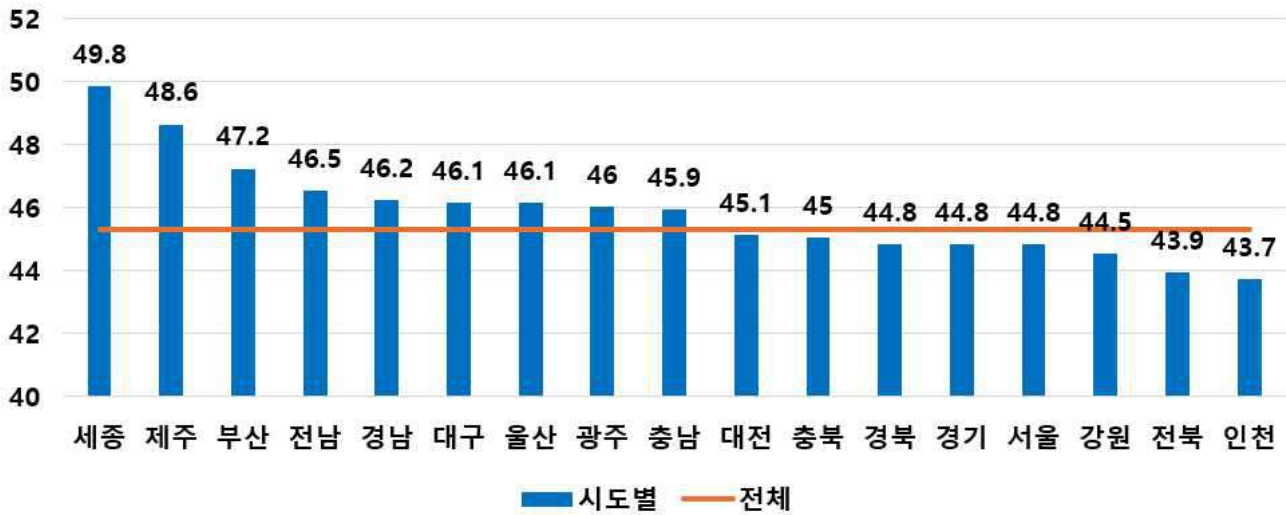
□ (아동행복지수)

- 아동행복지수의 전체 평균은 45.3점이며, 아동행복지수 1위는 세종(49.8점), 17위는 인천(43.7점)으로 세종이 인천보다 아동행복지수가 6.1점▲ 더 높음

[그림 40]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방사형)



[그림 41]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막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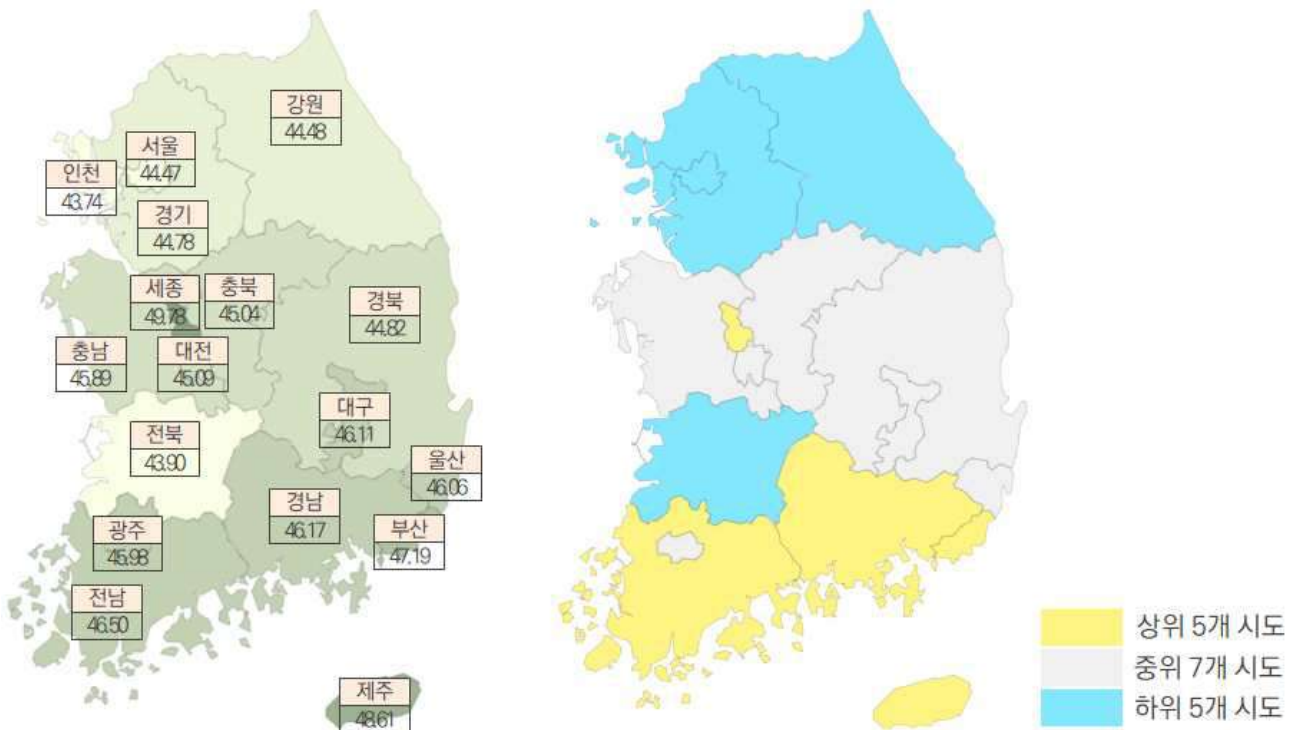
〈표 10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및 순위

단위(점)

순위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역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아동행복지수	45.3	49.8	48.6	47.2	46.5	46.2	46.1	46.1	46	45.9	45.1	45	44.8	44.8	44.8	44.5	43.9	43.7

주: 1) '아동행복지수' =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이는 아동·청소년이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주요 4개 생활 영역 중에서 '권장(적정)'기준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내는 즉,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의 개수를 합산해 '아동행복지수'로 산출함
 2) 아동행복지수 산출기준표 (행복지수는 총 100점 만점)
 3)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2023년 11월~12월임

[그림 4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상·중·하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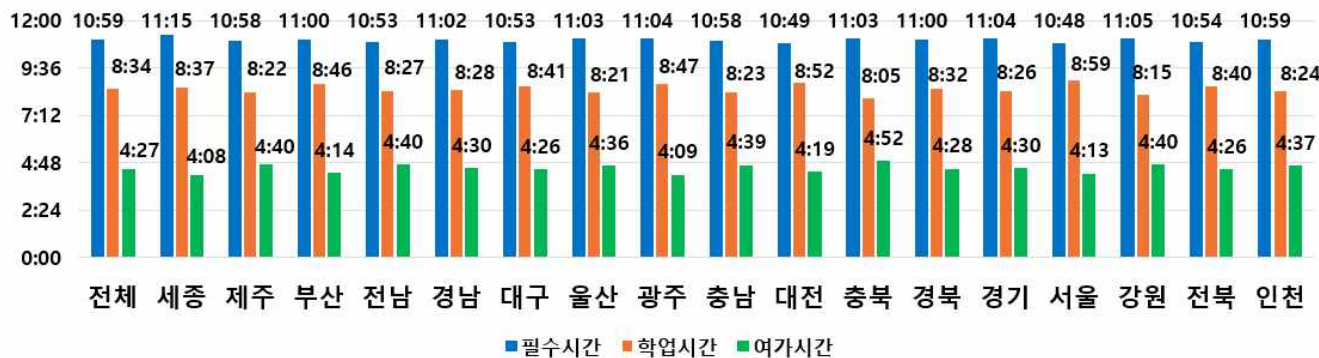
2) 아이들의 하루 일상 차이

전반적인 하루 생활시간 비교에서는 세종이 인천보다 여가시간이 29분▼낮지만 대면교제(23분▲), 미디어 여가(38분▼)임

□ (전반적인 생활시간)

- 아동행복지수 1위 도시인 세종은 필수시간이 11시간 15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 시간은 평균과 비슷하고, 여가시간은 가장 낮은 4시간 8분임
- 세종과 인천을 비교하면, 세종이 수면(14분▲), 학교수업(14분▲), 학교수업 외 학습(1분▼) 차이가 나며, 특히 대면교제(23분▲), 미디어 여가(38분▼)으로 전체 여가시간은 인천보다 29분▼낮지만 대면교제 시간은 높고 미디어 여가시간은 낮음

[그림 43]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표 10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단위(시간,분)																		
	전체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 필수시간	10:59	11:15	10:58	11:00	10:53	11:02	10:53	11:03	11:04	10:58	10:49	11:03	11:00	11:04	10:48	11:05	10:54	10:59
수면	8:25	8:35	8:23	8:27	8:25	8:26	8:21	8:35	8:32	8:26	8:16	8:27	8:25	8:29	8:14	8:31	8:22	8:21
식사	1:55	1:59	1:59	1:57	1:49	1:56	1:55	1:49	1:57	1:51	1:56	1:54	1:54	1:56	1:56	1:50	1:51	1:57
개인유지	0:39	0:41	0:36	0:36	0:39	0:40	0:37	0:39	0:35	0:41	0:37	0:42	0:41	0:39	0:38	0:44	0:41	0:41
□ 학업시간	8:34	8:37	8:22	8:46	8:27	8:28	8:41	8:21	8:47	8:23	8:52	8:05	8:32	8:26	8:59	8:15	8:40	8:24
학교수업	5:49	5:53	6:04	5:52	6:11	5:55	5:54	5:49	6:04	5:51	6:04	5:45	6:08	5:35	5:51	5:50	6:11	5:39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44	2:18	2:54	2:16	2:33	2:47	2:32	2:43	2:32	2:48	2:20	2:24	2:51	3:08	2:25	2:29	2:45

□ 여가시간	4:27	4:08	4:40	4:14	4:40	4:30	4:26	4:36	4:09	4:39	4:19	4:52	4:28	4:30	4:13	4:40	4:26	4:37
대면교제	0:52	1:09	1:01	0:47	0:47	0:49	0:56	0:58	0:47	0:55	0:50	1:03	0:50	0:54	0:47	0:51	0:54	0:46
미디어 외 여가	0:27	0:22	0:36	0:25	0:29	0:26	0:27	0:25	0:23	0:27	0:27	0:22	0:25	0:28	0:30	0:23	0:25	0:31
미디어 여가	1:49	1:23	1:31	1:38	2:06	1:56	1:46	1:55	1:43	1:57	1:44	2:02	1:56	1:49	1:36	2:05	1:55	2:01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15	0:18	0:23	0:18	0:17	0:19	0:16	0:16	0:18	0:17	0:18	0:18	0:15	0:15	0:18	0:12	0:1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2	0:28	0:20	0:24	0:22	0:21	0:22	0:23	0:22	0:20	0:28	0:22	0:23	0:25	0:22	0:21	0:25
기타	0:40	0:37	0:46	0:41	0:36	0:40	0:37	0:40	0:37	0:40	0:41	0:39	0:37	0:41	0:40	0:41	0:39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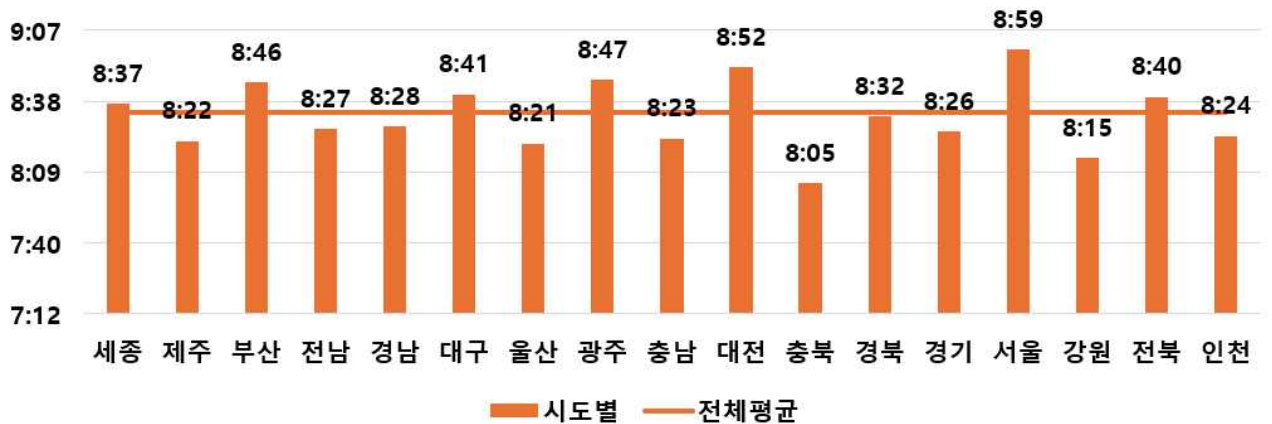
*초등저학년 포함

[그림 4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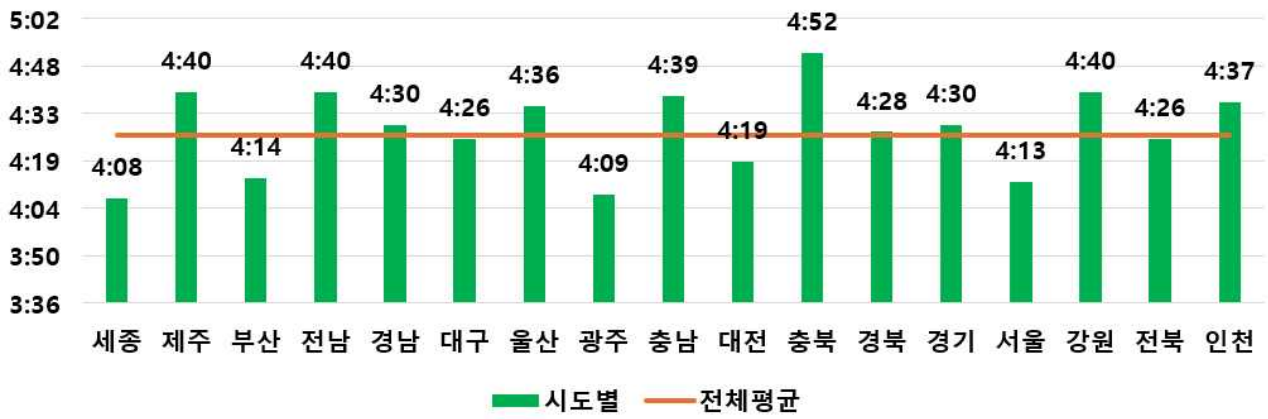
필수시간



학업시간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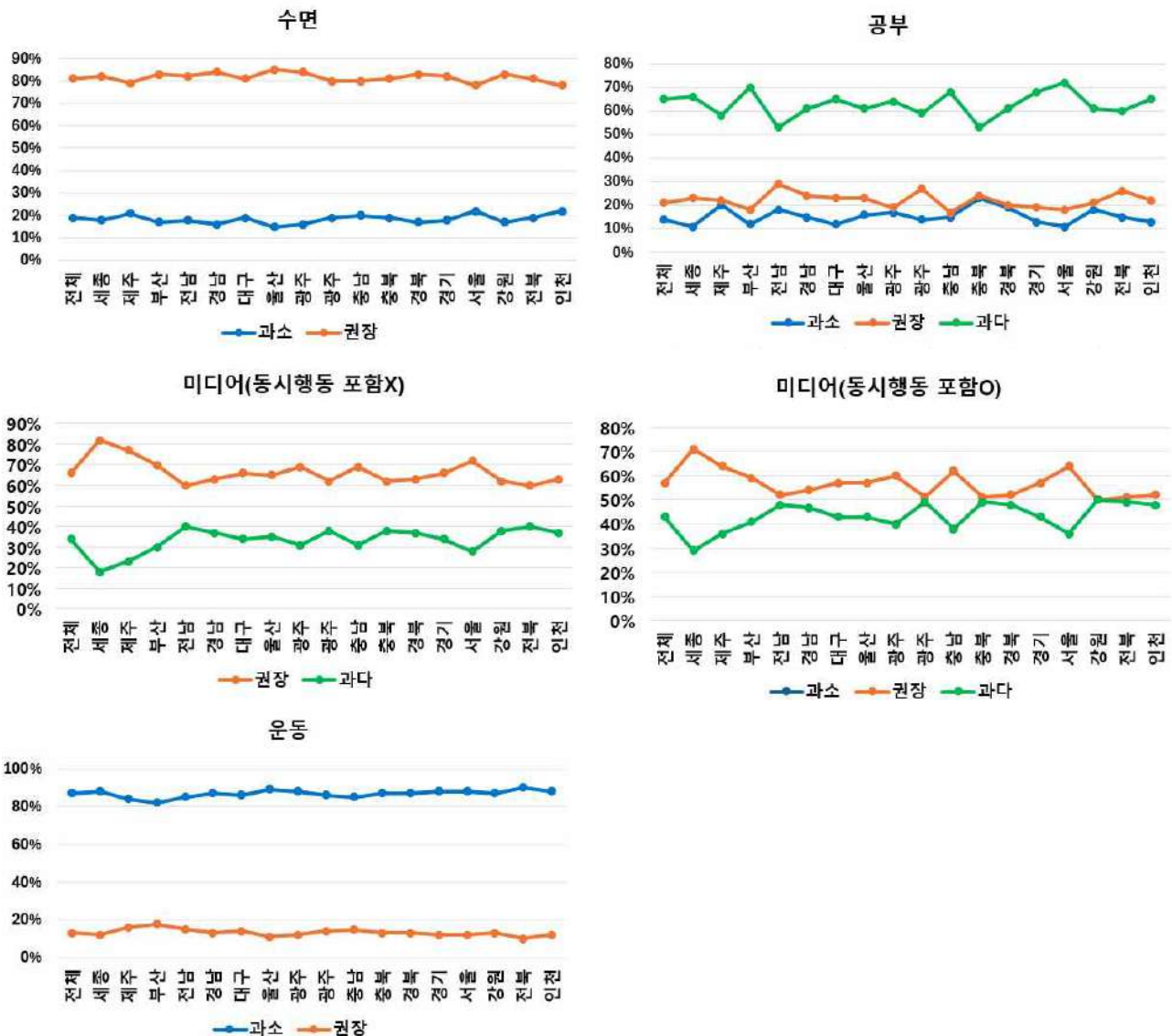
3) 주요시간 균형 정도

시간의 균형 수준을 보면, 수면시간은 대부분 ‘권장’ 수준이며, 공부하는 ‘과다’ 비율이 높음

□ 주요시간 균형정도

- (수면) 대부분 ‘권장’ 수준이나 서울과 인천 각 22%로 과소수면 비율이 높음
- (공부) 전국적으로 ‘과다’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72%), 부산(70%)이 높음
- (미디어) ‘과다’ 비율은 충북과 강원이 각 38%로 가장 높고 세종(18%)이 가장 낮음
학습과 같은 다른 주 행동과 함께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전반적으로 과다 비율이 증가함. 특히 강원이 15%p▲ 증가하며, 50%로 가장 높음
- (운동) 전국적으로 ‘과소’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제주(16%)와 부산(18%)이 ‘권장’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함

[그림 45]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균형정도(꺾은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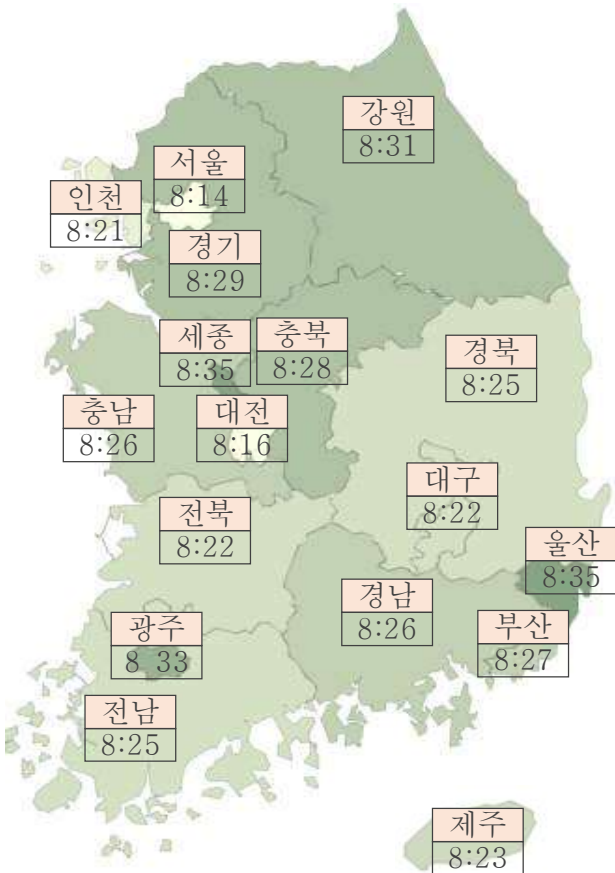
〈표 105〉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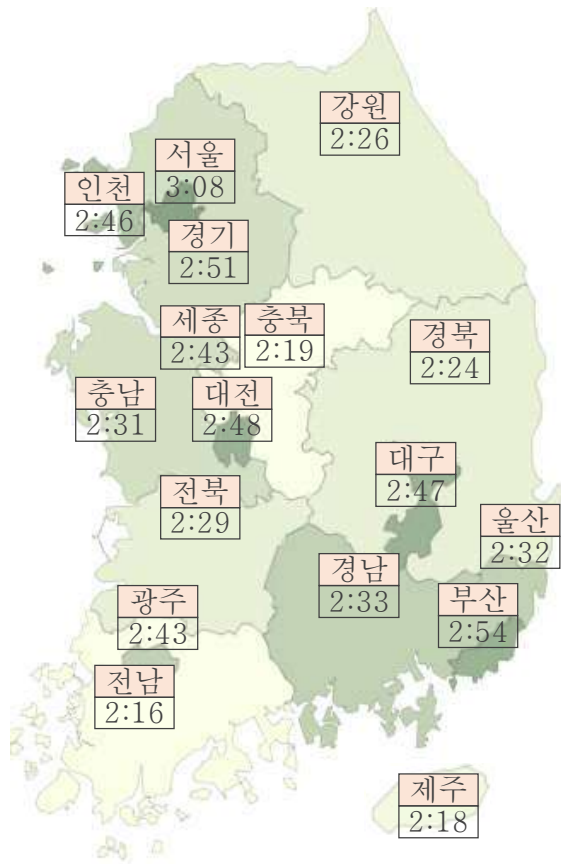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공부시간				미디어시간				운동시간			
		(전체)	과소	권장	과다	(전체)	과소	권장	과다	(전체)	권장		과다				
											동시X	동시O	동시X	동시O	(전체)	과소	권장
전체	학생 수	10,140	1,902	8,223	15	10,140	1,424	2,118	6,598	10,140	6,728	5,776	3,412	4,364	10,140	8,840	1,300
	비율	100	19	81	0	100	14	21	65	100	66	57	34	43	100	87	13
세종	학생 수	120	21	99	-	120	13	27	80	120	98	85	22	35	120	105	15
	비율	100	18	82	-	100	11	23	66	100	82	71	18	29	100	88	12
제주	학생 수	157	33	124	-	157	32	34	91	157	121	101	36	56	157	132	25
	비율	100	21	79	-	100	20	22	58	100	77	64	23	36	100	84	16
부산	학생 수	584	101	482	1	584	71	106	408	584	408	342	176	242	584	477	107
	비율	100	17	83	0	100	12	18	70	100	70	59	30	41	100	82	18
전남	학생 수	342	60	28	-	342	62	99	181	342	205	178	137	164	342	292	50
	비율	100	18	82	-	100	18	29	53	100	60	52	40	48	100	85	15
경남	학생 수	696	111	582	3	696	101	169	426	696	441	375	255	321	696	602	94
	비율	100	16	84	0	100	15	24	61	100	63	54	37	46	100	87	13
대구	학생 수	465	88	377	-	465	58	107	300	465	309	266	156	199	465	400	65
	비율	100	19	81	-	100	12	23	65	100	66	57	34	43	100	86	14
울산	학생 수	245	36	209	-	245	39	56	150	245	159	140	86	105	245	217	28
	비율	100	15	85	-	100	16	23	61	100	65	57	35	43	100	89	11
광주	학생 수	316	50	264	2	316	55	60	201	316	219	191	97	125	316	278	38
	비율	100	16	84	0	100	17	19	64	100	69	60	31	40	100	88	12
충남	학생 수	442	86	355	1	442	62	120	261	442	273	224	169	218	442	378	64
	비율	100	19	80	0	100	14	27	59	100	62	51	38	49	100	86	14
대전	학생 수	294	58	235	1	294	45	50	199	294	202	183	92	111	294	250	44
	비율	100	20	80	0	100	15	17	68	100	69	62	31	38	100	85	15
충북	학생 수	312	60	252	-	312	71	76	166	312	194	160	118	152	312	272	40
	비율	100	19	81	-	100	23	24	53	100	62	51	38	49	100	87	13
경북	학생 수	473	79	393	1	473	89	96	288	473	297	248	176	225	473	410	63
	비율	100	17	83	0	100	19	20	61	100	63	52	37	48	100	87	13
경기	학생 수	2,914	531	2,380	3	2,914	379	564	1,971	2,914	1,930	1,665	984	1,249	2,914	2,568	346
	비율	100	18	82	0	100	13	19	68	100	66	57	34	43	100	88	12
서울	학생 수	1,560	343	1,213	3	1,560	166	278	1,117	1,560	1,118	991	442	569	1,560	1,375	185
	비율	100	22	78	0	100	11	18	72	100	72	64	28	36	100	88	12
강원	학생 수	276	47	229	-	276	51	57	168	276	170	137	106	139	276	241	35
	비율	100	17	83	-	100	18	21	61	100	62	50	38	50	100	87	13
전북	학생 수	346	67	279	-	346	51	88	207	346	208	176	138	170	346	313	33
	비율	100	19	81	-	100	15	26	60	100	60	51	40	49	100	90	10
인천	학생 수	598	130	468	-	598	79	132	387	598	375	313	223	285	598	527	71
	비율	100	22	78	-	100	13	22	65	100	63	52	37	48	100	88	12

주: '동시O'는 동시행동 포함 (공부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한 것) '동시X'는 동시행동 미디어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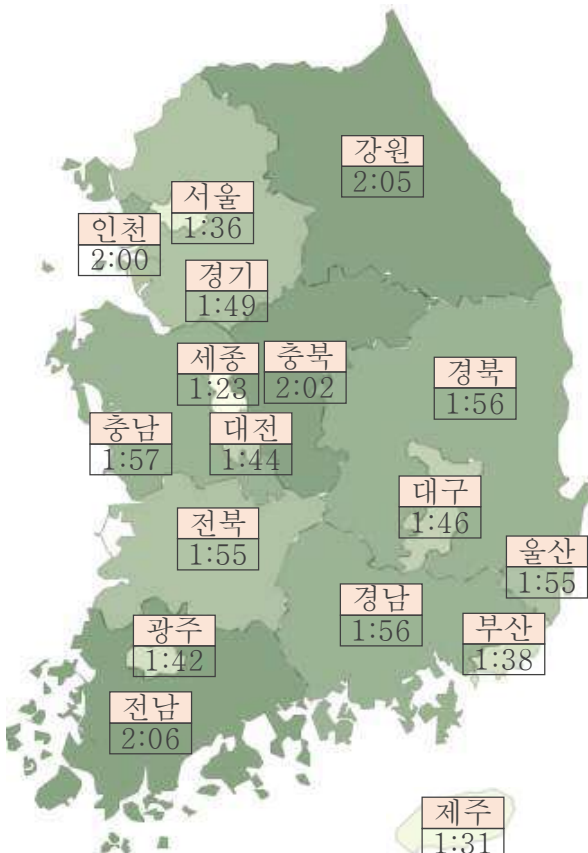
[그림 46] 17개 시도별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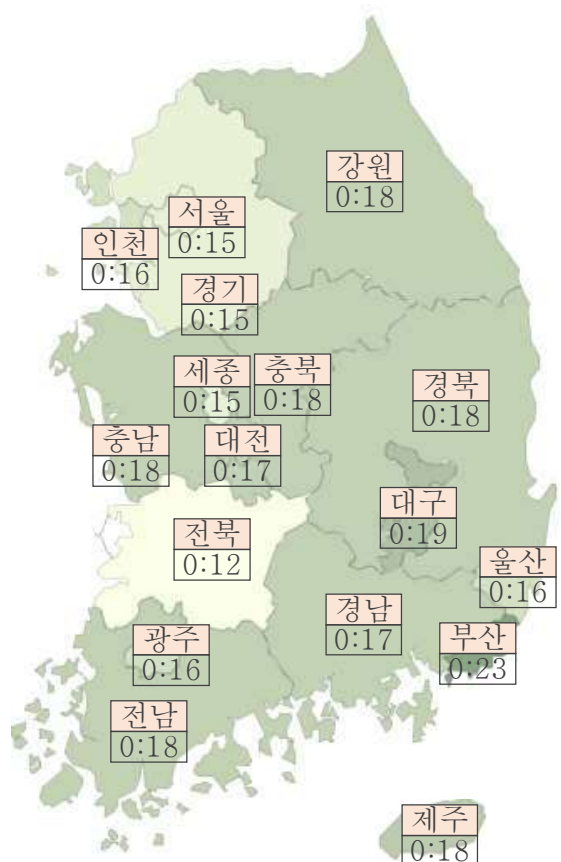
[그림 47] 17개 시도별 공부시간



[그림 48]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그림 49] 17개 시도별 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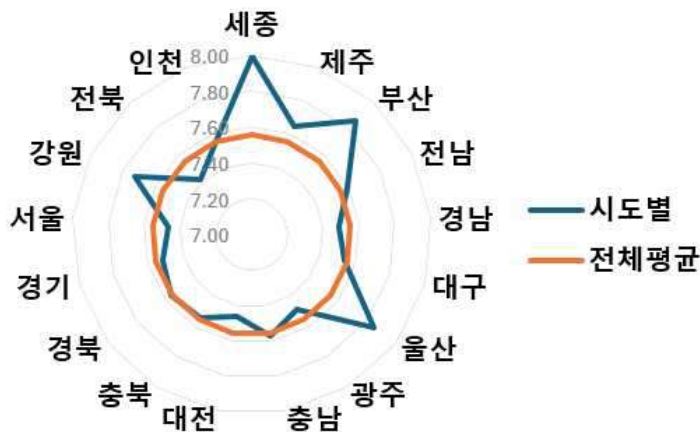
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전국 평균 7.55점이며, 아동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세종’이 아동행복지수 또한 8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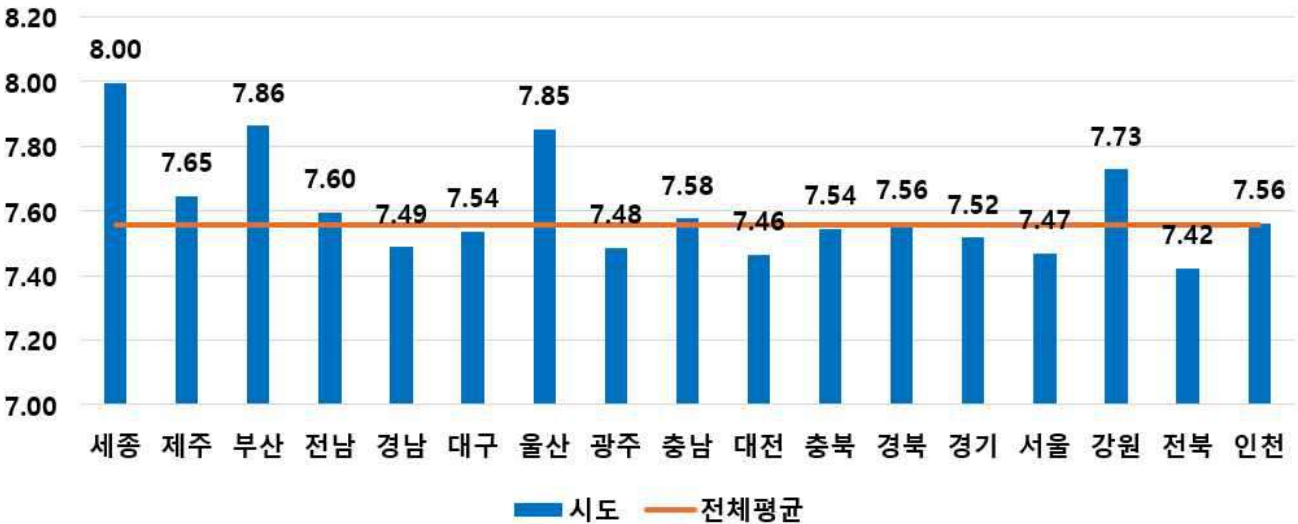
□ 주관적 행복감

-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7.55점(10점 만점)을 차지함
-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는 ‘아동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8점)이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전북(7.42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주관적 행복감은 0.58점 차이임
- 이러한 각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t=2.367^{**}$, $p<.01$)

[그림 50]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방사형)



[그림 51]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막대형)



〈표 106〉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

단위(명, 점)					
	학생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전체	10,140	7.55	1.92	2.367	0.002
세종	120	8.00	1.75		
제주	157	7.65	2.11		
부산	584	7.86	1.84		
전남	342	7.60	2.02		
경남	696	7.49	1.97		
대구	465	7.54	2.02		
울산	245	7.85	1.63		
광주	316	7.48	1.99		
충남	442	7.58	1.91		
대전	294	7.46	2.00		
충북	312	7.54	1.88		
경기	2,914	7.52	1.90		
서울	1,560	7.47	1.94		
강원	276	7.73	1.83		
전북	346	7.42	2.05		
인천	598	7.56	1.99		

***p<.001, **p<.01, *p<.05

2. 상위지역 VS 하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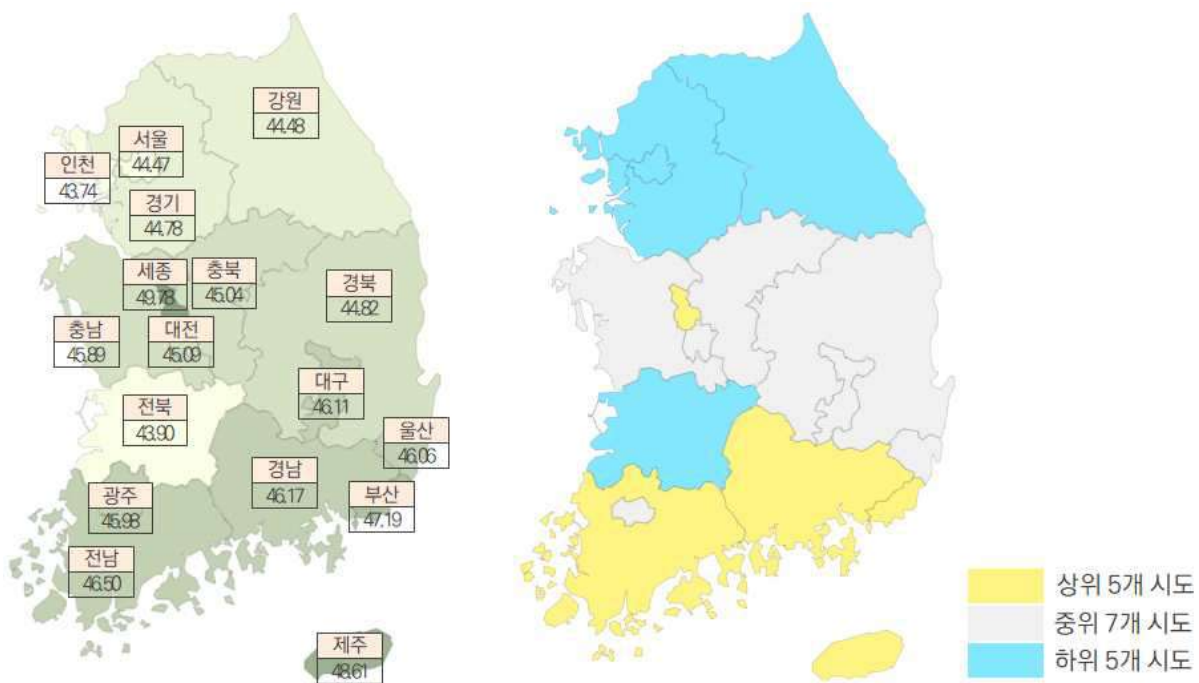
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 순위

아동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상위 5개 지역(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하위 5개 지역(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을 선정함. 상위지역의 아동행복지수 평균이 **3.4점▲**

□ (상하위 지역 선정)

-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을 선정함
- 상위지역은 세종(49.8점), 제주(48.6점), 부산(47.2점), 전남(46.5점), 경남(46.2점)이며 하위지역은 경기(44.8점), 서울(44.8점), 강원(44.5점), 전북(43.9점), 인천(43.7점)임
- 아동행복지수 전체 17개 시도별 평균은 45.3점으로 1위 지역인 세종(49.8점)은 4.5점 더 높으며, 17위 지역인 인천(43.7점)은 1.6점▼ 더 낮음

[그림 5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중위, 하위 지역



〈표 107〉 17개 시도별 행복지수 및 순위

단위(시도, 점)

시도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순위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아동행복지수	45.3	49.8	48.6	47.2	46.5	46.2	46.1	46.1	46.0	45.9	45.1	45.0	44.8	44.8	44.8	44.5	43.9	43.7

주: 시간 계산에 포함된 행동코드표

〈표 107〉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하위 5개 지역 선정지역

단위(시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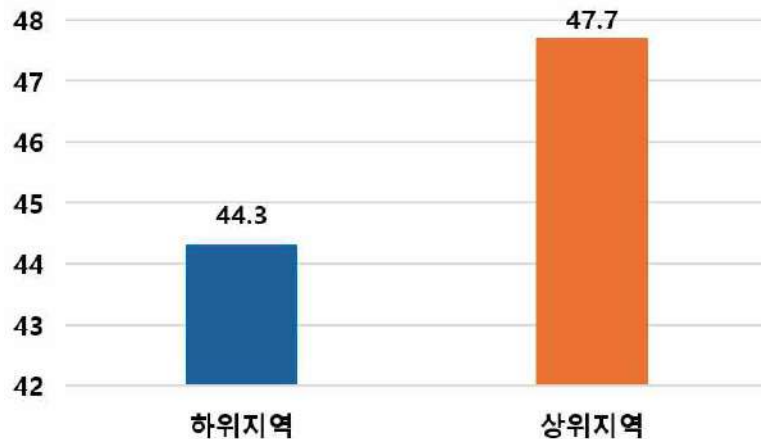
구분	상위지역	구분	하위지역
1위	세종(49.8)	13위	경기(44.8)
2위	제주(48.6)	14위	서울(44.8)
3위	부산(47.2)	15위	강원(44.5)
4위	전남(46.5)	16위	전북(43.9)
5위	경남(46.2)	17위	인천(43.7)

□ (아동행복지수)

○ 상·하위지역의 아동행복지수 평균 점수 비교 결과, 하위지역 44.3점, 상위지역 47.7점으로 상위지역이 3.4점▲ 더 높음.

○ 상위지역일수록 아동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가짐($p < .05$)

[그림 53]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평균비교



〈표 109〉 상·하위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명, 점)

아동행복지수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하위지역	5,694	44.3	21.35	-4.148	0.000
상위지역	1,899	47.7	21.67		

〈표 110〉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구분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025*

*** $p < .001$, ** $p < .01$, * $p < .05$

2) 상·하위지역 간의 하루 일상 차이

상위지역의 학생이 학교수업 시간이 더 길었으며, 하위지역은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과 미디어 여가시간 각 1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생활시간)

-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주요 시간 평균 차이 비교 결과 상위지역이 학교수업(9분▲), 학교수업 외 학습(10분▼), 미디어 여가(10분▼) 차이를 보임

[그림 54]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시간:분)



〈표 111〉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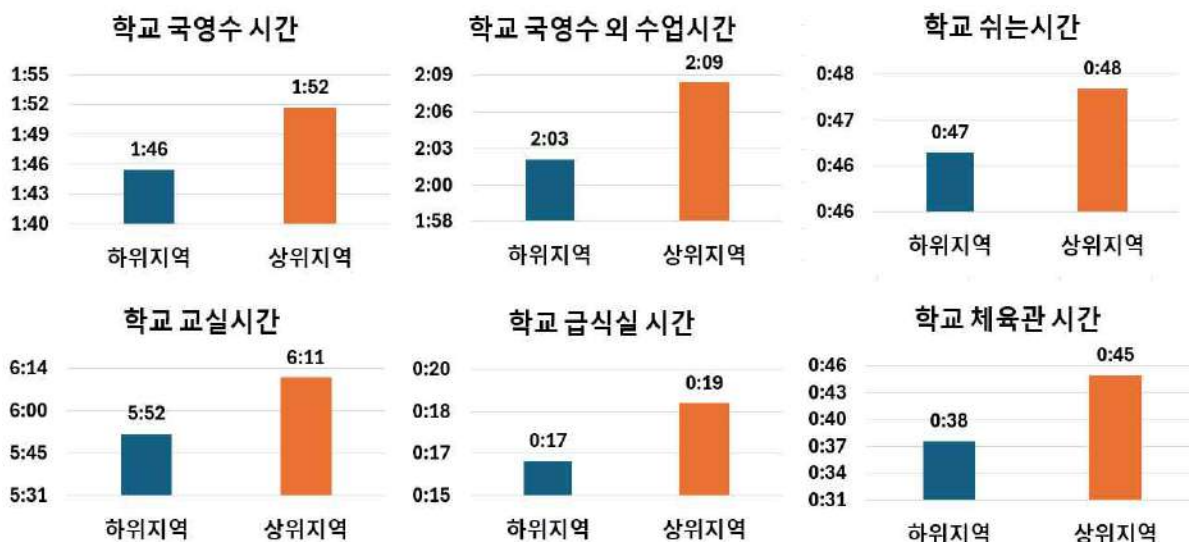
단위(명, 시간:분)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						전체	하위지역						평균 차이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평균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평균	
□ 필수시간	11:15	10:58	11:00	10:53	11:02	11:01	10:59	11:04	10:48	11:05	10:54	10:59	10:58	0:03
수면	8:35	8:23	8:27	8:25	8:26	8:27	8:25	8:29	8:14	8:31	8:22	8:21	8:23	0:03
식사	1:59	1:59	1:57	1:49	1:56	1:56	1:55	1:56	1:56	1:50	1:51	1:57	1:54	0:02
개인유지	0:41	0:36	0:36	0:39	0:40	0:38	0:39	0:39	0:38	0:44	0:41	0:41	0:40	0:02
□ 학업시간	8:37	8:22	8:46	8:27	8:28	8:32	8:34	8:26	8:59	8:15	8:40	8:24	8:32	0:00
학교수업	5:53	6:04	5:52	6:11	5:55	5:59	5:49	5:35	5:51	5:50	6:11	5:39	5:49	0:09
학교수업 외 학습	2:44	2:18	2:54	2:16	2:33	2:33	2:45	2:51	3:08	2:25	2:29	2:45	2:43	0:10
□ 여가시간	4:08	4:40	4:14	4:40	4:30	4:26	4:27	4:30	4:13	4:40	4:26	4:37	4:29	0:02
대면교제	1:09	1:01	0:47	0:47	0:49	0:54	0:52	0:54	0:47	0:51	0:54	0:46	0:50	0:04
미디어 외 여가	0:22	0:36	0:25	0:29	0:26	0:27	0:27	0:28	0:30	0:23	0:25	0:31	0:27	0:00
미디어 여가	1:23	1:31	1:38	2:06	1:56	1:42	1:49	1:49	1:36	2:05	1:55	2:01	1:53	0:10
운동 및 신체활동	0:15	0:18	0:23	0:18	0:17	0:18	0:16	0:15	0:15	0:18	0:12	0:16	0:15	0:0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2	0:28	0:20	0:24	0:22	0:23	0:23	0:23	0:25	0:22	0:21	0:25	0:23	0:00
기타	0:37	0:46	0:41	0:36	0:40	0:40	0:40	0:41	0:40	0:41	0:39	0:38	0:39	0:00

□ (학교시간)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국영수시간(5분▲), 국영수 외(6분▲), 쉬는시간(1분▲) 더 길며, 이외에 장소에 따라 학교 교실(18분▲), 급식실(2분▲), 체육관(7분▲), 기타장소 시간(7분▲) 모두 더 길며 이러한 차이들은 유의함($p<.001$, $p<.01$.)

[그림 5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시간:분)



<표 11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차이 및 상관관계

단위(명,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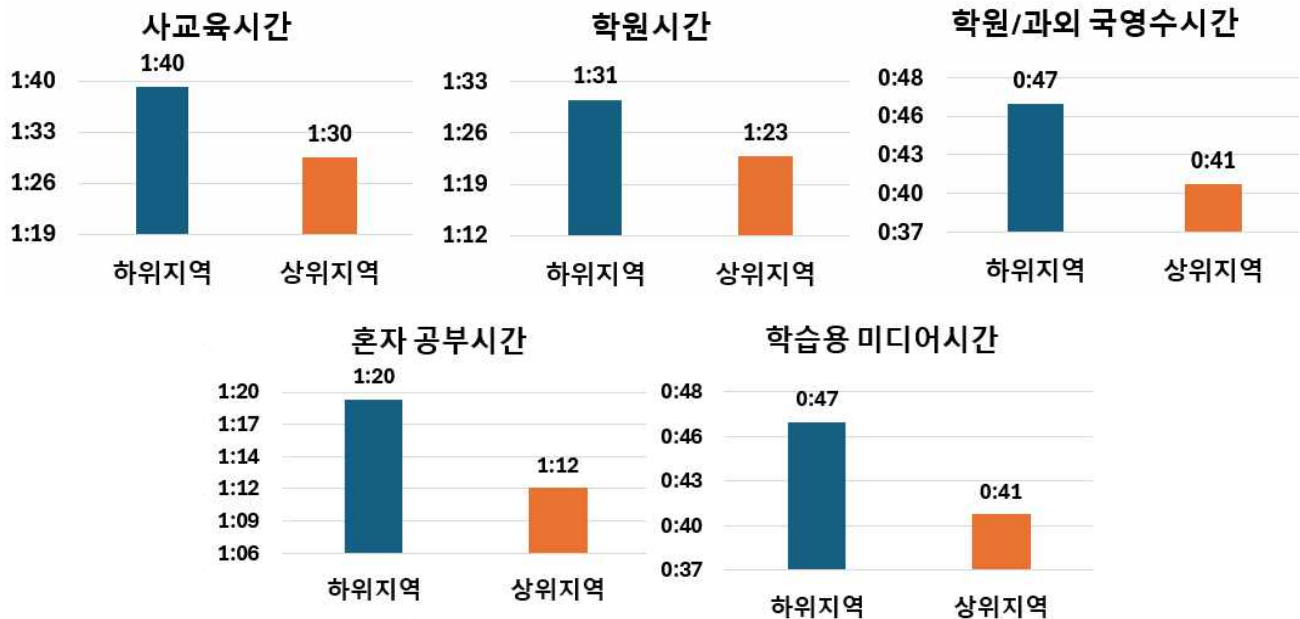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시간	학교 국영수 시간	하위지역	5,694	1:46	0:51	-3.954	0.000	
		상위지역	1,899	1:52	0:48			
	학교 국영수 외 수업시간	하위지역	5,694	2:03	1:13	-3.205	0.001	
		상위지역	1,899	2:09	1:10			
	학교 쉬는시간	하위지역	5,694	0:47	0:17	-3.782	0.000	
		상위지역	1,899	0:48	0:19			
장소	학교 교실시간	하위지역	5,694	5:52	1:42	-6.328	0.000	
		상위지역	1,899	6:11	1:50			
	학교 급식실 시간	하위지역	5,694	0:17	0:20	-4.714	0.000	
		상위지역	1,899	0:19	0:22			
	학교 체육관 시간	하위지역	5,694	0:38	0:52	-5.090	0.000	
		상위지역	1,899	0:45	0:55			
	학교 기타시간	하위지역	5,694	0:24	1:27	-2.863	0.004	
		상위지역	1,899	0:32	1:44			
구분	시간			장소				
	국영수	국영수 외	쉬는시간	교실	급식실	체육관	기타장소	
상관계수		.044**	.036**	.045**	.075**	.057**	.058**	.036**

*** $p<.001$, ** $p<.01$, * $p<.05$

□ (학교 외 학업시간)

- 상위지역이 학교시간이 더 길었던 것에 비해, 학교 외 학업시간의 경우 사교육시간(10분▼), 학원시간(8분▼), 학원 및 과외(국영수)시간(6분▼), 혼자공부시간(7분▼), 학습용 미디어시간(6분▼) 더 낮아 사교육 시간은 하위지역이 더 높

[그림 5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표 11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교육시간 ¹⁾	하위지역	5,694	1:40	1:30	4.220	0.000
	상위지역	1,899	1:30	1:27		
학원시간	하위지역	5,694	1:31	1:28	3.547	0.000
	상위지역	1,899	1:23	1:26		
학원/과외 국영수 시간	하위지역	5,694	0:47	1:22	4.405	0.000
	상위지역	1,899	0:41	1:12		
혼자 공부시간	하위지역	5,694	1:20	1:41	2.956	0.003
	상위지역	1,899	1:12	1:34		
학습용 미디어시간 ²⁾	하위지역	5,694	0:47	1:22	3.032	0.002
	상위지역	1,899	0:41	1:12		

주: 1) 사교육시간: 학원, 과외, 학습지, 방송, 온라인 수업시간 전체

2) 학습용 미디어시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

〈표 11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시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교육	학원	국영수 (학원/과외)	혼자공부	학습용 미디어
상관계수	-.048**	-.040**	-.048**	-.033**	-.033**

***p<.001, **p<.01, *p<.05

□ (방과 후 시간)

- 상위지역 아이들이 하위지역 아이들보다 방과 후 운동시간(2분▲), 방과 후 집콕 시간(9분▼)과 혼자 있는 시간(12분▼) 차이를 보임

[그림 5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시간:분)



〈표 11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방과 후 운동시간	하위지역	5,694	0:11	0:30	-2.478	0.013
	상위지역	1,899	0:13	0:32		
방과 후 집콕시간	하위지역	5,693	9:45	2:34	2.225	0.026
	상위지역	1,899	9:36	2:29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하위지역	5,694	7:28	2:30	3.181	0.001
	상위지역	1,899	7:15	2:29		

〈표 11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방과 후 시간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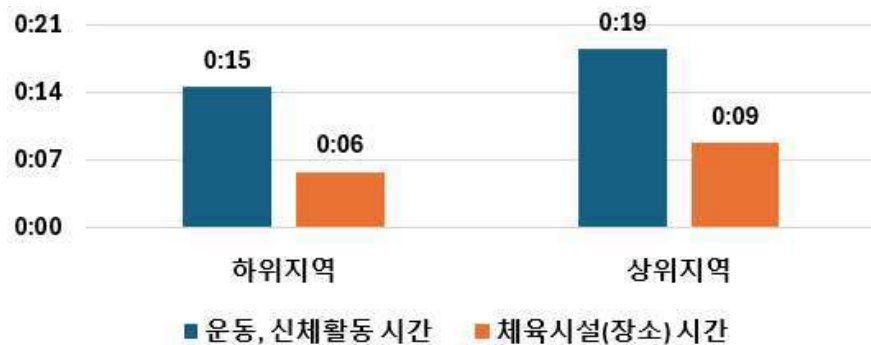
구분	방과 후 운동시간	방과 후 집콕시간	방과 후 혼자있는 시간
상관계수	.029*	-.026*	-.036**

***p<.001, **p<.01, *p<.05

□ (운동시간)

- 상위지역 아이들일수록 방과 후 운동시간과 같이 운동, 신체활동 시간은 3분▲, 체육 시설에 머무는 시간 또한 2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시간:분)



〈표 11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운동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운동, 신체활동 시간	하위지역	5,694	0:15	0:35	-3.665	0.000
	상위지역	1,899	0:19	0:38		
체육시설(장소) 시간	하위지역	5,694	0:06	0:24	-2.988	0.003
	상위지역	1,899	0:09	0:29		

〈표 11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운동, 신체활동 시간	체육시설(장소) 시간
상관계수	.044**	.037**

***p<.001, **p<.01, *p<.05

□ (함께한 사람)

-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또한, 반(학교)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하위지역(7시간 7분), 상위지역(7시간 31분)으로 24분▲, 선생님과 의 시간 하위지역(6시간 58분), 상위 지역(7시간 21분) 23분▲, 기타 아는 사람과의 시간 하위지역(7분), 상위지역(10분)으 로 3분▲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또한 상위지역이 더 깊

[그림 5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시간:분)



〈표 11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새벽에 혼자 ¹⁾	하위지역	5,694	12:03	5:16	4.982	0.000
	상위지역	1,899	11:21	5:14		
반(학교)친구들	하위지역	5,694	7:07	1:57	-7.760	0.000
	상위지역	1,899	7:31	2:02		
선생님 ²⁾	하위지역	5,694	6:58	1:53	1.249	0.000
	상위지역	1,899	7:21	1:51		
기타 아는사람 ³⁾	하위지역	5,694	0:07	0:40	-2.037	0.042
	상위지역	1,899	0:10	0:49		
구분		새벽에 혼자	반(학교)친구들	선생님		기타 아는사람
상관계수		-.057**	.089**	.088**		.026*

***p<.001, **p<.01, *p<.05

주: 1) 새벽에 혼자: 새벽인 0시부터 새벽3시까지 혼자 있는 시간 양

2) 선생님: 학교, 학원, 과외, 센터의 모든 선생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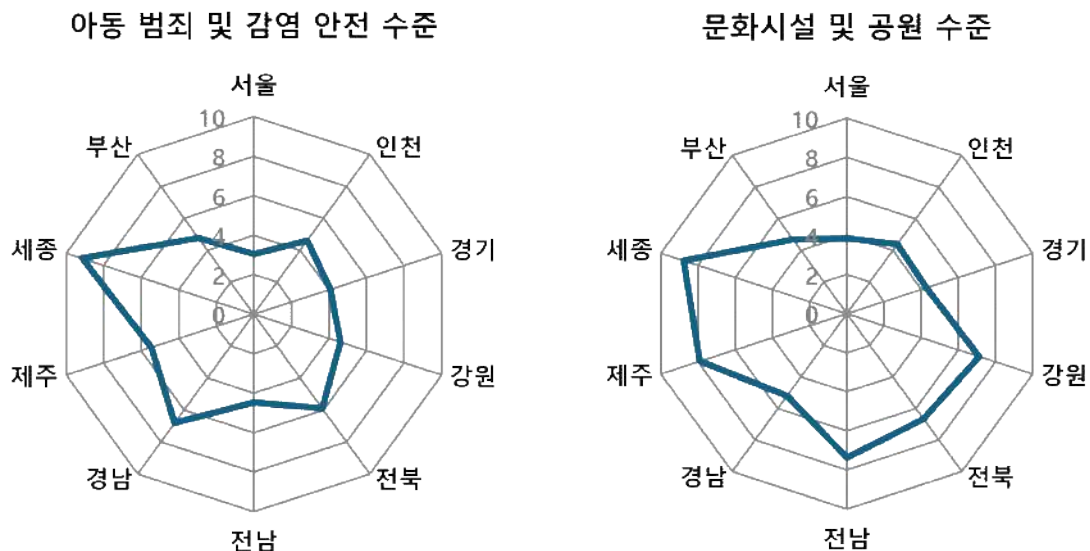
3) 기타 아는사람: 선생님, 가족, 친척, 친구, 온라인친구, 오프라인친구, 반 친구 외에 아는 사람

3) 상·하위지역 아동행복지수 촉진·저해 요인

① 지역 인프라 요인

상·하위지역의 지역 환경요인을 비교하고자, 각 분야별 인프라 비교 결과, 상위 지역이 경제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인구인프라, 안전인프라 모두에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지역과의 차이가 모두 유의함($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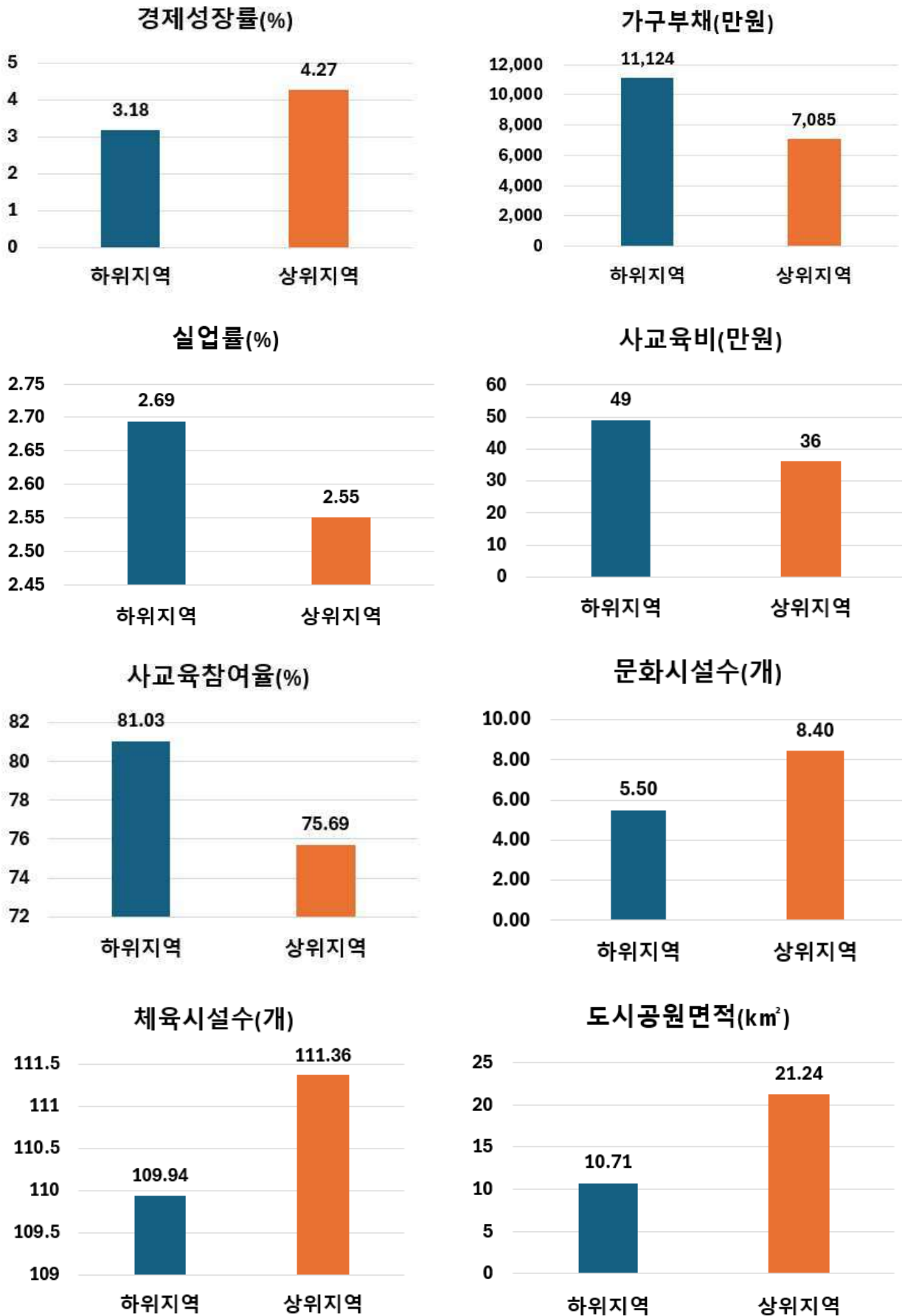
[그림 60] 상·하위 지역별 안전 및 문화 인프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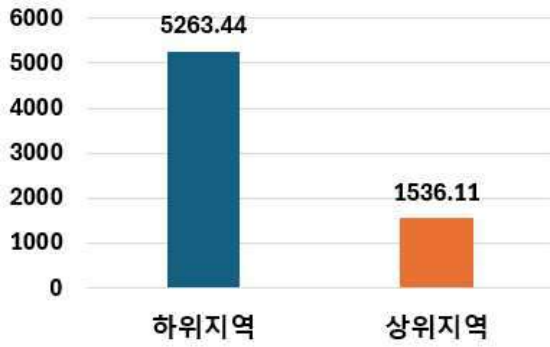
□ (상·하위지역 인프라 비교)

- (경제인프라)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경제성장률(1.09점▲), 가구부채(4,039만원▼), 실업률(0.14%p▼)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1$)
- (교육인프라) 상위지역이 사교육비(13만원▼), 사교육 참여율(5.33%p▼)으로, 하위지역의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되었음을 알 수 있음($p<.001$)
- (문화인프라) 상위지역의 문화시설수(2.9개▲), 체육시설수(1.42개▲), 도시공원조성면적(10.53천 m^2 ▲)으로 더 높으며, 이 차이는 유의함($p<.001$)
- (인구인프라) 상위지역이 인구밀도(3,727.33 km^2 ▼), 합계출산율(0.08명▲), 인구감소지역 비율(6.31%p▲)로 하위지역보다 쾌적한 인구밀도를 보이며, 이 차이는 유의함($p<.001$)
- (안전인프라) 상위지역이 아동대상 범죄 발생 건수가(0.30건▼), 감염병 등급이(1.33%p▼) 낮아 안전인프라가 하위지역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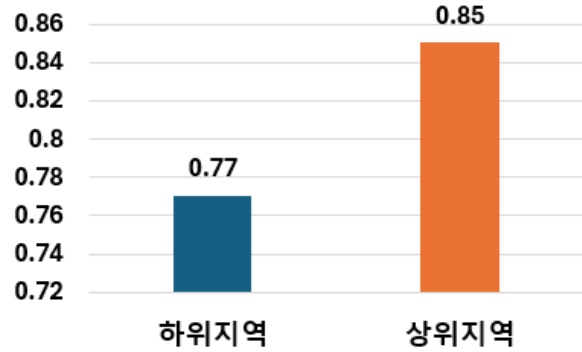
[그림 6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세부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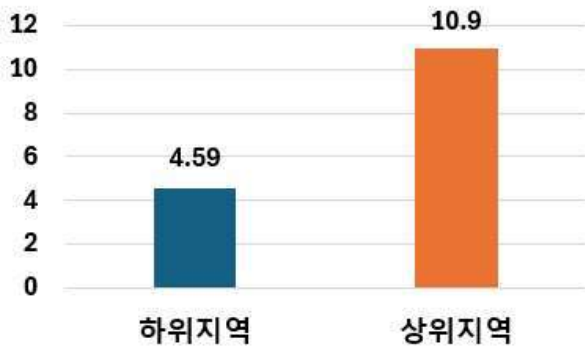
인구밀도(명/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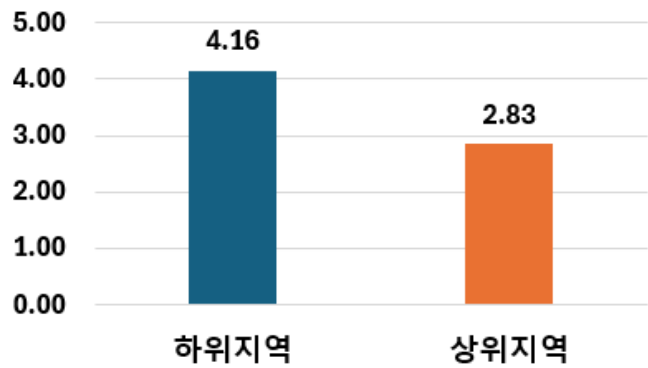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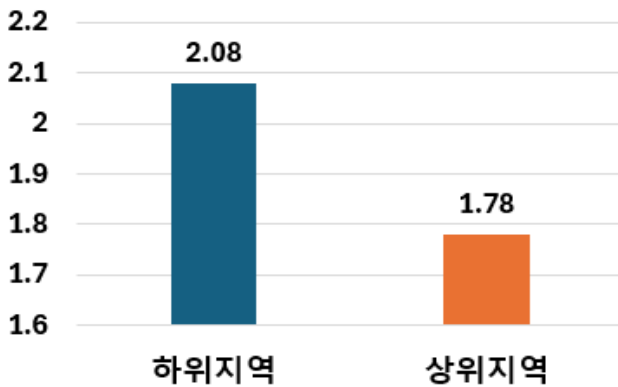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비율(%)



감염병안전등급



아동범죄건수(건)



〈표 12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

단위(% , 만원, 개, km², 명, 건, 명/km²)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경제 인프라	경제성장률 ¹⁾	하위지역	5,694	3.18	1.30	-14.307	0.000
		상위지역	1,899	4.27	3.22		
	가구부채 ²⁾	하위지역	5,694	11,124	2724.23	72.469	0.000
		상위지역	1,899	7,085	1828.71		
	실업률 ³⁾	하위지역	5,694	2.69	0.19	14.802	0.000
		상위지역	1,899	2.55	0.41		
교육인프라	사교육비 ⁴⁾	하위지역	5,694	49	9.688	66.968	0.000
		상위지역	1,899	36	6.370		
	사교육 참여율 ⁵⁾	하위지역	5,694	81.03	4.11	43.283	0.000
		상위지역	1,899	75.69	4.82		
문화인프라	문화시설수 ⁶⁾	하위지역	5,694	5.50	2.80	-26.444	0.000
		상위지역	1,899	8.40	4.49		
	체육시설수 ⁷⁾	하위지역	5,694	109.94	4.97	-6.254	0.000
		상위지역	1,899	111.36	9.49		
	도시공원면적 ⁸⁾	하위지역	5,694	10.71	4.89	-38.504	0.000
		상위지역	1,899	21.24	11.58		
인구인프라	인구밀도 ⁹⁾	하위지역	5,694	5,263.44	6,355.70	39.603	0.000
		상위지역	1,899	1,536.11	1,830.22		
	합계 출산율 ¹⁰⁾	하위지역	5694	0.77	0.11	-28.080	0.000
		상위지역	1899	0.85	0.11		
	인구감소지역 비율 ¹¹⁾	하위지역	5,694	4.59	10.82	-34.058	0.000
		상위지역	1,899	10.90	5.12		
안전인프라	아동범죄건수 ¹²⁾	하위지역	5,694	2.08	0.17	66.968	0.000
		상위지역	1,899	1.78	0.31		
	감염병 안전등급 ¹³⁾	하위지역	5,694	4.16	0.68	46.251	0.000
		상위지역	1,899	2.83	1.19		

주: 1) 경제성장률(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2) :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2) 가구부채(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전 가구 평균 가구 부채(만원)
 3)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행정구역(시도)별 실업률(%)
 4) 사교육비(통계청·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23)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5) 사교육참여율(통계청·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23) : 초·중·고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6) 문화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2022)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개), [(문화기반시설수(개)) ÷ (주민등록인구(명)) × 100,000] (개)
 7) 체육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2021 재구성) : 인구 십만명당 등록·신고 체육시설 업소수(개), [(체육시설수(개)) ÷ (주민등록인구(명)) × 100,000]
 8) 도시공원면적(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2022)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의 조성면적(km²), [(총공원면적(km²) ÷ 도시지역인구(명)) × 1,000]
 9) 인구밀도(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 인구밀도(명/km²), [(인구(명)) ÷ (국토면적(km²))]
 10)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 가임연령(15~49세) 여자인구에 대한 0~4세 유아 인구비(명)
 11)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2024년 4월 2일 검색, 재구성) : 각 지역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 해당 비율(%), [(상·하위 지역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해당 개수(개)) ÷ (전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개수(개)) × 100]
 12) 아동범죄건수(대검찰청 「범죄분석」.2021, 재구성) : 아동인구천명당 아동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대상 범죄) 건수(건), [(총 건수(건)) ÷ (2021아동인구수(명)) × 1000]
 13) 감염병 안전등급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 2022) : 상대등급인 지역안전지수의 감염병 분야지수로 가장 안전한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안전하지 못한 하위 5등급까지 있음., [지역안전 상대등급: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등급)

□ (상·하위지역과 인프라 상관관계)

- 상위지역일수록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인프라의 긍정적인 부분(경제성장, 문화시설 수, 체육시설 수, 도시공원면적, 합계출산율)이 더 좋은 상관관계를 가짐($p < .01$)
- 반면, 부정적인 인프라(가구부채, 실업률,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인구밀도, 아동 대상 범죄건수, 감염병등급)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안전 인프라에서 ‘상’일수록 더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됨($p < .01$)

〈표 12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지역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구분	경제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인구인프라			안전인프라	
	경제성장률	가구부채	실업률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문화시설수	체육시설수	도시공원면적	인구밀도	합계출산율	인구감소지역비율	아동범죄건수	감염병안전등급
상관계수	.233**	-.635**	-.233**	-.532**	-.474**	.355**	.096**	.537**	-.278**	.304**	.271**	-.516**	-.566**

*** $p < .001$, ** $p < .01$, * $p < .05$

② 학교/주거/부모요인

상위지역일수록 학교인프라(과밀학급▼, 스포츠 동아리 참여율▲, 낮은체력등급 학생 비율▼)와 주거요인이 더 나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 부모요인도 상위지역일수록 부모의 학업 압박적 양육태도와 방임은 더 낮았고($p<.01$, $p<.05$), 정규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교실(7.16%p▲) 참여율은 더 높은 반면 학원(3.89%p▼), 기타 기관(0.81%p▼) 이용률은 더 낮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도 학업적 이유는 2.32%p▼ 더 낮음

□ (학교요인)

- 상위지역이 과밀학급 비율이 더 낮고(8.04%p▼), 스포츠동아리 누적 참여율이 더 많음(971.64%p▲). 하위지역일수록 낮은 체력등급 아이들이 더 많았으며(3.54%p▲) 이 차이는 유의함($p<.001$)

[그림 6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비교



<표 12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과밀학급			비해당	해당	전체	χ^2	유의확률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3,947	1,747	5,694	44.989	0.000
		비율	69.32	30.68	100.0		
	상위지역	빈도	1,469	430	1,899		
		비율	77.36	22.64	100.0		
전체		빈도	5,416	2,177	7,593		
		비율	71.33	28.67	100.0		

주: 과밀학급은 교육부 기준 '28명 이상' 학급의 비율로 선정함.

〈표 12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원, %,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스포츠동아리 참여율 ¹⁾	하위지역	5,694	952.75	417.07	-106.229	0.000
	상위지역	1,899	1,924.38	317.58		
낮은체력등급율 ²⁾	하위지역	5,694	13.19	2.20	81.460	0.000
	상위지역	1,899	9.65	1.40		

주: 1) 스포츠동아리 참여비율(EDSS 에듀데이터 서비스, 2022 재구성): [(시도별 연간 스포츠동아리 참여학생 누적 인원 수 (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명))×100] (%)

2) 낮은체력등급율(EDSS, 2022 재구성): [(시도별 학생체력등급 4등급+5등급 학생 수(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 (명))×100]

자료: EDSS(에듀데이터서비스)의 경우, 자료는 모집단의 70%를 층화추출하여 제공됨.

*초등저학년포함

〈표 12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요인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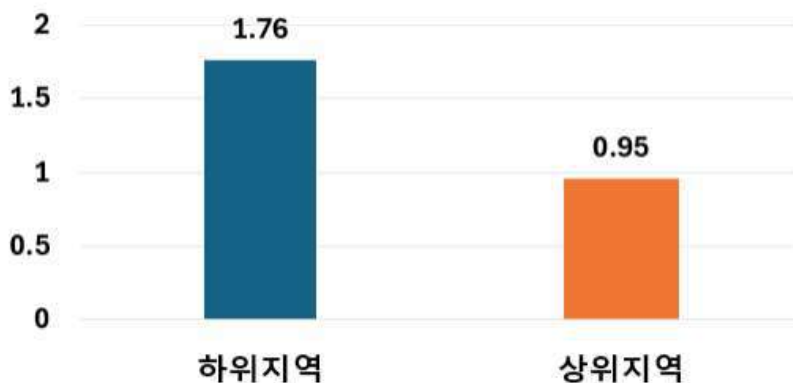
구분	스포츠동아리 참여율	낮은체력등급율
상관계수	.730**	-.603**

***p<.001, **p<.01, *p<.05

□ (주거요인)

- 하위지역의 아이들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주택에 현재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8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하위지역 간의 차이는 유의하여 상위지역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p<.001)

[그림 6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표 12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차이비교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거열악 ¹⁾	하위지역	5,694	1.76	0.76	46.944	0.000
	상위지역	1,899	0.95	0.61		

주: 1) 주거열악: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지하, 옥상,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에 현재 살고 있다고 응답한 아이들의 지역별 비율

*방임 제외 초등저학년포함

〈표 12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주거열악 상관관계

단위(시간:분)

구분	비거주용 주택 거주 비율
상관계수	-.434**

***p<.001, **p<.01, *p<.05

□ (부모요인)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부모의 공부압박(0.08점▼,) 교육열의(0.04점▼), 방임(0.08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p<.01, p<.05)
- 상위지역으로 갈수록 부정적 부모요인이 낮아지는 관계를 가짐(p<.01, p<.05)

[그림 6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점)



〈표 12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부모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	하위지역	5,694	2.40	1.00	3.005	0.003
	상위지역	1,899	2.32	0.98		
교육열의	하위지역	5,694	2.32	0.64	2.270	0.023
	상위지역	1,899	2.28	0.64		
방임	하위지역	4,219	1.99	1.04	2.369	0.018
	상위지역	1,393	1.91	0.99		

*방임 제외 초등저학년포함

〈표 12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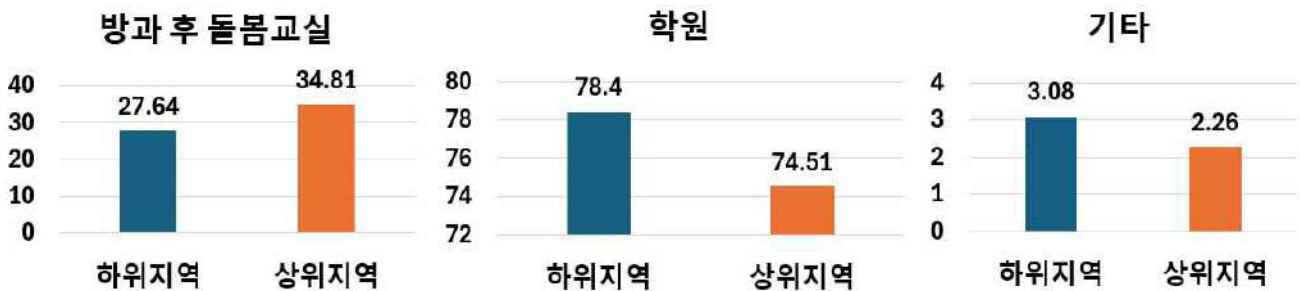
구분	공부압박	교육열의	방임
상관계수	-.034**	-.026*	-.032*

***p<.001, **p<.01, *p<.05

□ (기관 요인)

- 정규수업 후 아이들이 가는 기관의 각 이용률 비교 결과, 상위지역이 ‘방과 후 교실’은 7.16%p▲, ‘학원’에 가는 비율은 3.89%p▼, 기타 기관 이용률 또한 0.81%p▼ 더 낮아 기관 이용 여부는 상·하위지역과 높은 관계가 있음
- 상위지역일수록 ‘방과 후 돌봄교실’은 더 많이, ‘학원’과 ‘기타 기관’은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표 12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방과 후 돌봄교실	하위지역	5,694	27.64	4.13	-73.915	0.000
	상위지역	1,899	34.81	3.48		
학원	하위지역	5,694	78.40	3.16	39.685	0.000
	상위지역	1,899	74.51	3.86		
기타 ¹⁾	하위지역	5,694	3.08	0.50	47.697	0.000
	상위지역	1,899	2.26	0.68		

주: 1)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센터, 학원, 이용기관 없음 외에 ‘기타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저학년포함

〈표 13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기관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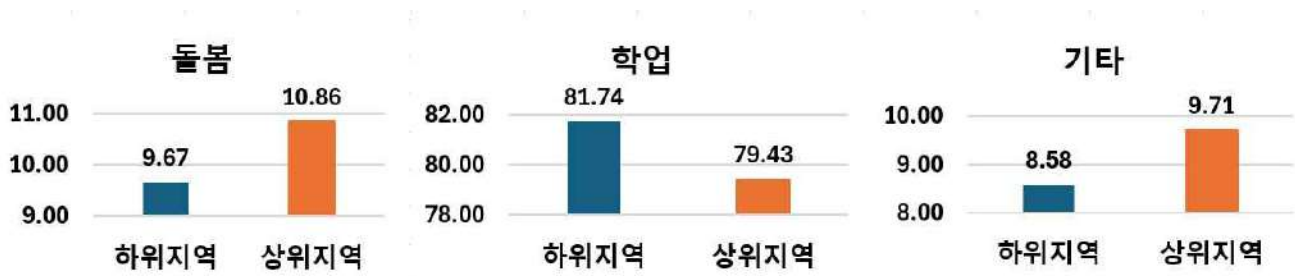
구분	방과 후 돌봄교실	학원	기타
상관계수	.615**	-.449**	-.538**

***p<.001, **p<.01, *p<.05

□ (학원 이용이유 돌봄 VS 학업)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돌봄 1.19%p▲, 학업 2.32%p▼으로 하위지역이 학업을 목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림 6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표 13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단위(명, %)

			학원 이용 이유(돌봄 VS 학원)			
			돌봄	학업	기타	전체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816	6,896	724	8,436
		비율	9.67	81.74	8.58	100.00
	상위지역	빈도	274	2,004	245	2,523
		비율	10.86	79.43	9.71	100.00

*다중응답 (하위 응답 문항 체크 수 기준): 돌봄(2번:하교 후 돌봄필요) / 학업(1번:학업성적, 3번:선행, 4번:불안해서, 5번:학교수업)/ 기타(6번: 기타)

□ (학원 이용 학업적 이유)

○ 학원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각 상·하위지역의 응답은 다음과 같음

○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비해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불안해서)'는 2.82%p▲, '선행 학습을 위해서'는 3.63%p▲,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5.51%p▲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3.61%p▲ 더 높았음

○ 이러한 4가지 이유 모두 돌봄보다는 '학업적인' 이유에 속하나, 특히 학업성적 향상과 학교수업 보충과 같은 학교 관련 이유로 인해 학원을 다닌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13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등록이유 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안	하위지역	5,694	13.56	2.59	61.603	0.000
	상위지역	1,899	10.74	1.32		
선행학습	하위지역	5,694	23.64	4.05	36.214	0.000
	상위지역	1,899	20.01	3.69		
학업성적 향상	하위지역	5,694	56.06	5.57	57.916	0.000
	상위지역	1,899	50.55	2.62		
학교수업 보충	하위지역	5,694	27.89	2.98	51.661	0.000
	상위지역	1,899	24.28	2.52		

*초등저학년포함

〈표 13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원 등록이유 비율 간의 상관관계

구분	불안	선행학습	학업성적 향상	학교수업 보충
상관계수	-.463**	-.369**	-.431**	-.479**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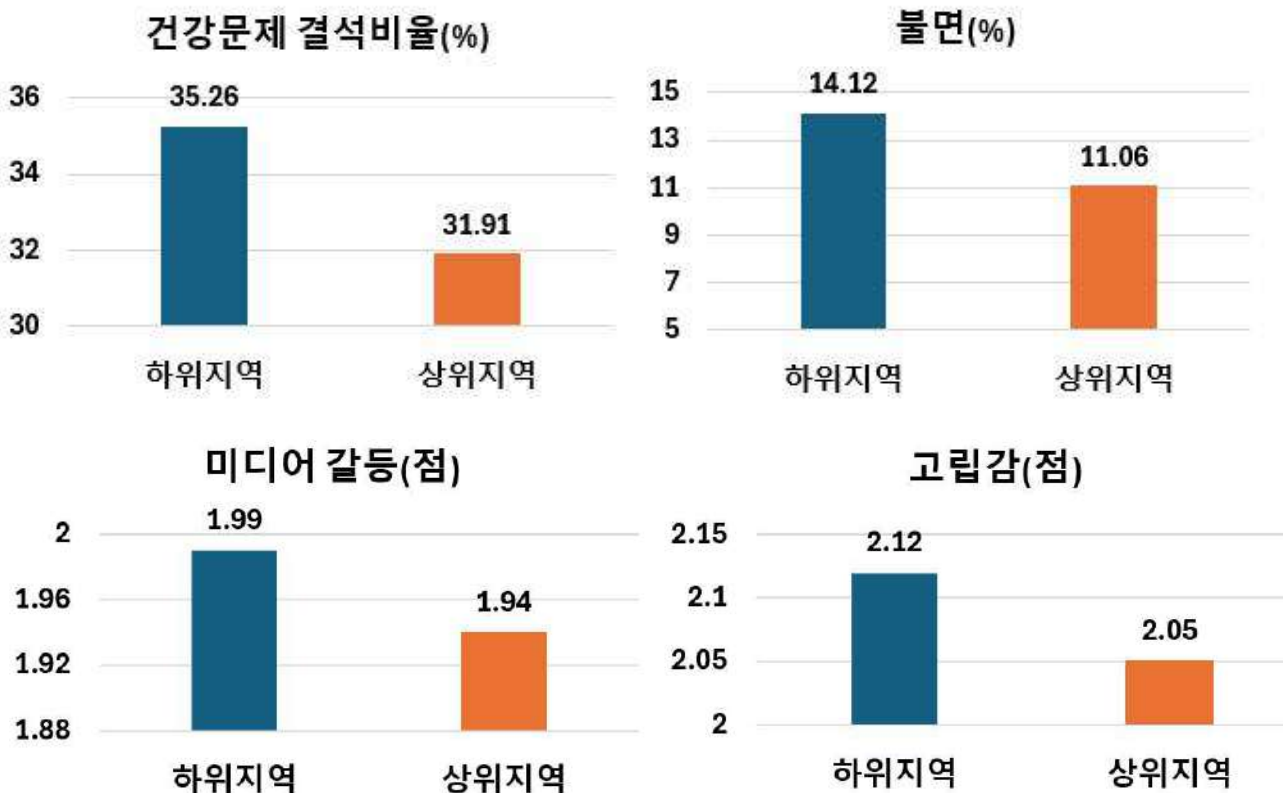
③ 개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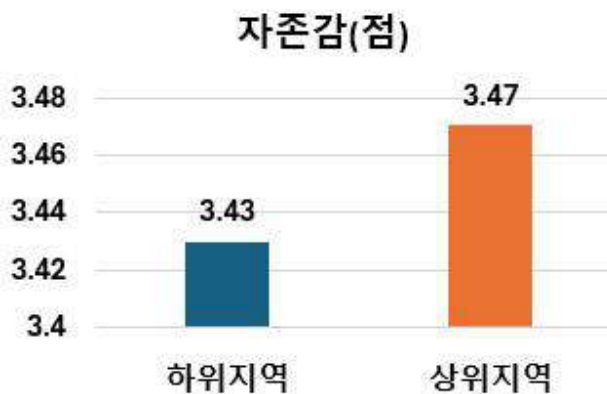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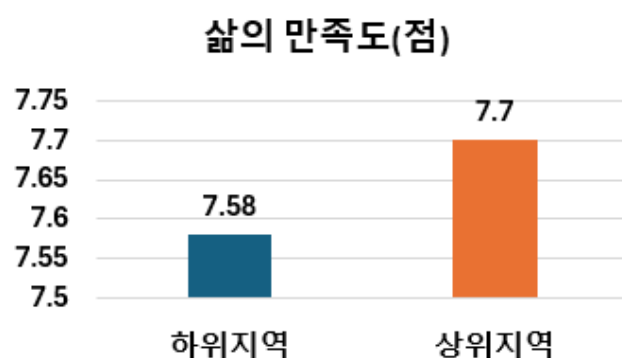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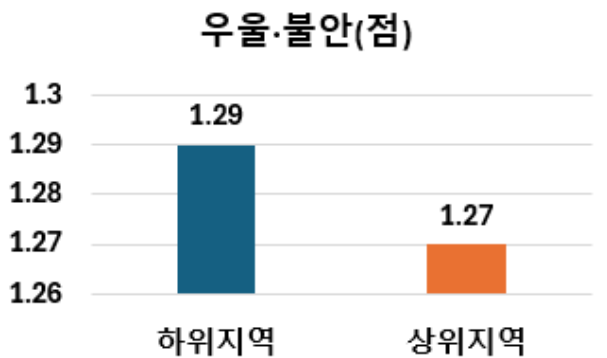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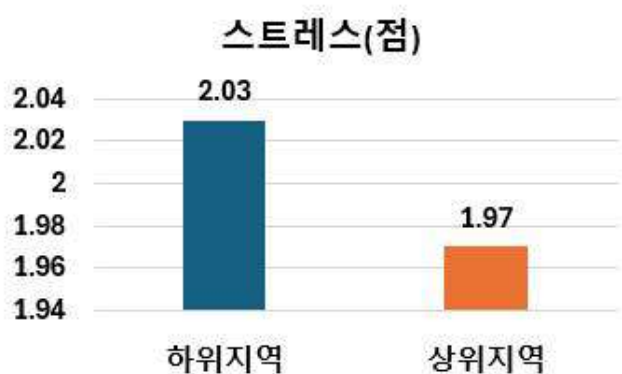
상위지역일수록 하위지역보다 긍정 정서(삶의 만족도,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는 높고, 부정 정서(고립감, 미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불안)는 낮으며, 미디어로 인한 갈등을 겪거나, 건강문제로 인한 결석, 불면도 더 낮음. 반면,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비해 성범죄(1.2%p▲), 절도(1.18%p▲) 비율 모두 유의하게 높음($p < .01$)

□ (개인 심리·정서요인)

- 상위지역 아이들이 하위지역보다 건강문제로 인해 결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3.35%p▼), 불면(3.06%p▼), 부정 정서인 고립감(0.07점▼), 미디어로 인한 갈등(0.05점▼), 미래 불안감(0.20점▼), 스트레스(0.06점▼), 우울·불안(0.02점▼)이 더 낮았음
- 반면, 긍정 정서인 삶의 만족도(0.12점▲), 자존감(0.04점▲), 주관적 행복감(0.15점▲)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하위지역 간 이러한 심리·정서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p < .01$, $p < .05$)
- 이에, 상위지역일수록 긍정정서는 높고, 부정정서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표 13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건강문제 결석비율	하위지역	5,694	35.26	3.41	56.907	0.000
	상위지역	1,899	31.91	1.64		
미디어 갈등	하위지역	4,219	1.99	0.71	2.426	0.015
	상위지역	1,393	1.94	0.70		
고립감	하위지역	4,219	2.12	1.04	2.137	0.033
	상위지역	1,393	2.05	1.03		
미래 불안감	하위지역	4,219	5.78	2.57	2.507	0.012
	상위지역	1,393	5.58	2.56		
스트레스	하위지역	4,219	2.03	0.63	2.934	0.003
	상위지역	1,393	1.97	0.63		
우울·불안	하위지역	4,219	1.29	0.37	1.985	0.047
	상위지역	1,393	1.27	0.36		
삶의 만족도	하위지역	4,219	7.58	1.92	-2.011	0.044
	상위지역	1,393	7.70	1.92		
자존감*	하위지역	5,694	3.43	0.63	-2.380	0.017
	상위지역	1,899	3.47	0.63		
주관적 행복감*	하위지역	5,694	7.51	1.93	-3.024	0.003
	상위지역	1,899	7.67	1.95		

주: 고립감(5점 만점), 미디어 갈등(4점 만점), 미래 불안감(4점 만점), 스트레스(4점 만점), 우울·불안(3점 만점),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자존감(4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10점 만점)

*건강 문제 결석, 불면,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은 초등 저학년 포함

〈표 13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개인요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건강문제 결석	미디어 갈등	고립감	미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불안	삶의 만족도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
상관계수	-.428**	-.032*	-.029*	-.033*	-.039**	-.026*	.027*	.027*	.035**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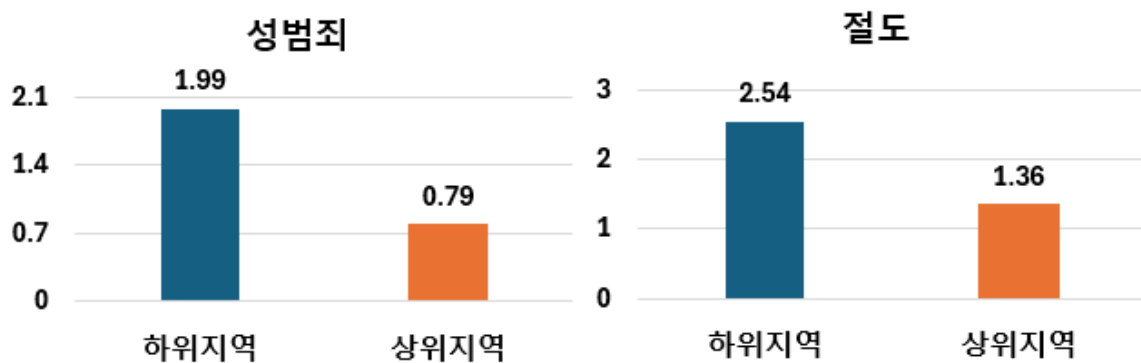
〈표 13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불면여부

불면			없음	있음	전체	χ^2	유의확률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4890	804	5694	11.537	0.001
		비율	85.9	14.1	100.0		
	상위지역	빈도	1689	210	1899		
		비율	88.9	11.1	100.0		
전체		빈도	6579	1014	7593		
		비율	86.6	13.4	100.0		

□ (아동·청소년의 범죄)

- 하위지역이 상위지역보다 ‘성범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1.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지’ 또한 1.18%p▲ 더 높아 상·하위 시도와 관계가 있음이 드러남($p < .001$)
- 상위지역일수록 하위지역에 비해 아이들의 성범죄 경험과 절도 경험 응답률 모두 낮음($p < .01$)

[그림 6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범죄율(%)



〈표 13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범죄 비율	하위지역	5,694	1.99	0.41	108.835	0.000
	상위지역	1,899	0.79	0.45		
절도 비율	하위지역	5,694	2.54	0.51	69.396	0.000
	상위지역	1,899	1.36	0.68		

〈표 13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

구분	성범죄 비율	절도 비율
상관계수	-.781**	-.676**

*** $p < .001$, ** $p < .01$, * $p < .05$

VI. 시사점

1·2. 아동행복지수와 아이들의 일상분석 및 촉진·저해요인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겪는 수면 부족과 불면

: 아동·청소년 ‘24시간 균형 생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전문가 양성

-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중 13%가 불면을 겪고 있는데(초저 9.2%, 중등 11.0%, 중등 15.3%, 고등 18.7%). 그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 (29.4%)’ ‘소음 등의 환경적인 이유(24.4%)’, ‘해야 할 일’이 많아서 (17.1%),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9.7%)’를 꼽음
- 불면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부정적 자해경험, 자살생각, 우울불안,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등 심리·정서 위험률이 더 높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5분(초등 저학년 포함)으로 25%가 과소수면에 해당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부시간이 늘면서 수면시간은 줄어듦(초등 저학년 9시간 39분, 초등 고학년 9시간 5분, 중학생 7시간 51분, 고등학교 생 6시간 32분)
- 미디어 시간, 학업시간, 부족한 운동시간은 수면시간과 연관성이 깊어, ‘수면시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고선강, 2017, Dumuid et al, 2022, Sampasa-Kanyinga et al, 2022)
- 캐나다는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운동지침 가이드라인(24-hour movement guidelines)’을 개발함. 호주와 뉴질랜드도 캐나다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24시간 균형생활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의 운동 및 수면시간을 제안함(Okely et al. 2022)²⁾³⁾
- 캐나다 24시간 운동 지침 가이드라인: 운동시간은 ‘가벼운 신체활동’ 하루 1시간 이상, ‘땀 흘리는 신체활동’은 최소 60분/주 3회 권장. 수면시간은 5~13세(9~11시

2)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health-promotion/healthy-living/physical-activity/24-hour-movement-guidelines-children-youth.html>. (2024.04.14.인출)

3) 캐나다 24시간 운동지침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https://csepguidelines.ca/guidelines/children-youth/>. (2024.04.14.인출)

간), 14~17세(8~9시간)으로 특히 수면 및 기상시각이 일정해야 할 것을 강조 (Mark et al.2016).

- 공중 보건국 및 전문가 협회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간균형을 맞추도록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평가와 도움을 주는 전문가 양성함(Amy et al. 2016).
- 지역사회에서는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수행하도록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스크린 사용을 제한하며, 최대한 앞서서 보내는 시간이 적도록 권고함(Amy et al. 2016)
- 영국은 ‘The Sleep Charity’라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수면을 돕는 법인 자선단체와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인 NHS, 영국공중보건국 PHE와 연계해, ‘국가 수면 헬프라인’을 운영하며 성인 외에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⁴⁾⁵⁾.
- 아동 7~12세는 10~12시간, 청소년은 8~9시간 이상 잘 것을 권고하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도록 수면 전화상담 시스템을 운영함. 수면 문제 원인(학업 스트레스 등) 해결, 수면 일기 워크북 등을 불면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건강 및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면 워크숍’을 열어 사춘기 수면패턴이 바뀌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면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함
- 그 밖에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을 해결하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기 아이들이 수면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고 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24시간 균형 생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24시간 가이드라인’과 영국의 ‘국가 수면 헬프라인’ 운영과 같이 몇몇 국가들은 민간과 연계하거나, 국가가 주도해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

4) 영국 수면 NGO 단체 홈페이지, <https://thesleepcharity.org.uk/>. (2024.04.14.인출)

5) 영국 요크셔 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rk.gov.uk/SleepAdvice>. (2024.04.14.인출)

는 24시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동시간과 점점 줄어드는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앞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전문기관을 설치 및 양성해 아동·청소년의 24시간 균형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의 사교육 중심 생활에서의 변화 노력 : 공교육의 보완, 사교육 ‘목적’ 인식 변화 필요

-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하루 중 학업시간으로 8시간 34분. 학교 수업 외 학습은 초등 저학년이 2시간 17분으로 가장 짧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이 더 길어져, 고등학생은 하루 평균 3시간 33분으로 집계됨
- 2022년 OECD 평균 공공 의무교육시간 보면 초등교육 연간 총 4,830시간, 중등교육은 총 2,748시간임. 이에 반해 한국의 초등교육시간이 총 3,930시간, 중등교육은 2,526시간으로 보고됨(OECD, 2022)
- 즉, OECD 평균 공교육 의무교육시간에서는 한국의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는 한국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해 더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함
- 사교육은 공교육이 다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학부모의 두려움과 학생들의 초조함 등을 이용한 사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 등으로 인해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최항석, 2022)
- 한국 사교육의 문제점은 ‘목적’에 있음. 학습의 목적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행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종철, 2023)
- 이번 조사 결과, 선행학습을 위하여 주말에도 우리나라 아이들 중 57.3%가 학원을 다님. 또 가족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공부를 주제로만 대화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압박이 평균 이상인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는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45.95점)에 비해 1.79점 낮았음

- 안타깝게도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불안을 더 느끼고 자살생각도 2%p 더 높음
- 뚜렷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 없이 압박 속에서 공부한다면,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여러 실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 입시를 위한 사교육 몰입보다 자기주도적 사고와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함(EBS. 2023.4.19.)

3) 법적 개선 과제

- 교육부는 2023년 6월 공정한 입시체제와 사교육카르텔 근절, 공교육 입시컨설팅, 에듀테크 도입, 늘봄학교 등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수요 흡수를 주요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제도와 환경의 혁신이 아닌, 사교육 대체제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것. 그럼에도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교육 경감 대책’ 재검토를 시사함
- 이와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2014년 제정 당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정됨
- 현행 「선행교육규제법」 제9조는 초·중·고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함)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 하지만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 목적에는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기에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선행교육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개정해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근본적으로 「선행교육규제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덕난, 유지연,

-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에게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6조). 대부분의 시도에서 5시부터 22시까지는 공통적으로 교습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24시까지를 인정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범국가적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과도한 과외학습을 방지할 수 있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초록우산, 2023)

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아이들의 일상 비교

1) ‘아동일상행복도시’의 지역·학교·가정 여건 확인

□ 아동행복지수: 상위 vs 하위

○ (상위 5곳) 세종(49.8점), 제주(48.6점), 부산(47.2점), 전남(46.5점), 경남(46.2점)
(하위 5곳) 경기(44.8점), 서울(44.8점), 강원(44.5점), 전북(43.9점), 인천(43.7점)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세종시 이남) 지역에서 아동행복지수가 더 높음.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의 다양한 생활영역(지역·학교·가정)에서의 차이와 특징을 확인함

□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의 생활영역(지역·학교·가정) 차이와 특징 비교

○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지역들이 경제, 교육, 문화, 안전 등 지역 여건 지표도 더 좋은 편이었음

□ (지역여건) 저출산 제고 위한 모니터링 정책 지표로서 지역별 아동행복지수 활용 필요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이 하위지역들보다 가구부채(4,039만원▼), 실업률(0.14%p▼), 사교육비(13만원▼), 문화시설수(2.9개▲), 체육시설수(1.42개▲), 도시공원조성면적(10.53천㎡▲), 아동대상 범죄 발생 건수(0.30건▼)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남

○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지표들이기도 하며(박선권, 2020) 실제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상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아 아동행복지수와 지역 출산율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따라서 지자체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서 아동행복지수도 활용될 수 있음

□ (학교여건) ‘학교’가 다양한 관계와 경험을 쌓는 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학교 여건 개선 필요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율이(8.04%p▼) 더 낮음

- 과밀학급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집단의 만남이 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이승미, 2003). 또 학급 규모가 클수록 교사 신뢰가 낮아짐

(이숙정, 2006). 이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음 (교육부, 2022)

-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결과, 1위인 세종시 0%, 17위인 인천시 29.8%로 큰 차이가 있었음. 또 ‘오늘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응답한 학생비율 역시 인천(51.8%)이 세종(65.8%)보다 14%p 더 낮음
 - 학생과 교사와 관계는 학교생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박종모, 박세원, 2020) 각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급당 학생 감축’ 정책 추진이 필요함. 1위 지역인 세종시는 이미 ‘학급당 20명 배치’ 정책을 초등 1학년(2022년), 초등 2학년(2023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과밀학급 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과밀학급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의 격차가 크므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문 장소별 시간(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이 더 긴 편으로 나타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이 방과 후 ‘운동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긴 반면,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나 ‘집콕 시간’은 하위지역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히 갈 곳이 없다(25.1%)’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갈 곳이 없다’라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안전하게 다양한 경험과 친구와의 상호작용하는 누리는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시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 개선 필요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일수록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 돌봄교실’을 더 이용함. 또 방과 후에 ‘돌봄 센터’ 시간이 긴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볼 때, 앞으로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활성화도 중요함
- 교육부는 2023년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함. 2024년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이상,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함(교육부, 2024)

- 초등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해 초등돌봄교실도 지속 확대되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신청 인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대기인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내 돌봄 공간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저학년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이덕란, 2020)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 종사자의 처우 등 미흡함. 따라서 학교·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의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가정여건) 적정한 ‘사교육’ 시간과 더불어 양질의 ‘회복 시간’ 확보 필요

- 아동행복지수 하위지역은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사교육)’과 ‘미디어 여가시간’이 더 길
 - 세부적으로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은 사교육시간은 10분 짧고 학원시간도 8분 적음, 그 외에 학원 및 과외(국영수)시간 6분, 혼자공부시간 7분, 학습용 미디어시간 6분 등 모든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음. 반면,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은 방과 후 ‘운동시간’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길
 - 특히 아동행복지수 1위 지역인 세종시는 17위인 인천시보다 여가시간 중 ‘대면교제 시간’이 평균 23분 더 길고, ‘미디어 여가시간’은 평균 38분 더 짧음
- 상위지역에서 방과 후 ‘미디어 여가’보다 ‘운동’이나 ‘대면하는 교제’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은 적정한 공부 시간 이후, ‘일상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이들 행복에 중요함을 시사함
- 이러한 ‘회복의 시간’은 인지발달 외의 사회, 정서, 신체 등 종합적인 아동발달에 꼭 필요함.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성취를 이룬 후에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학습 외의’ 다양한 시간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되어야 함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아동행복지수가 높고 전반적인 심리·정서도 좋음. 따라서 주말도 문화생활이나 여가선용이 가능하도록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인프라 구축도 중요함

2) 초록우산 ‘아동일상행복도시’ 제안

□ 초록우산 ‘아동일상행복도시’ 제안

- 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에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수적인 균형 있는 생활시간을 점검하는 ‘아동일상행복도시’ 연계를 제안함
-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확보 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아동이 불균형한 생활시간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 학교생활의 어려움, 비행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아동권리를 ‘시간’을 통해 되찾아 아동이 권리와 일상행복을 함께 누리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마다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시간 등 주요 생활시간의 권장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지역 아동이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권장 비율이 낮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둘째, 지자체에서는 권장 생활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개인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아동일상행복도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함
 - 셋째,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확보를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 및 민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넷째, 지역별 전문기관에서는 거버넌스 구축만이 아니라 ‘아동 생활시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수면시간이나 운동시간 등에 대한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생활시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에 파견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역 내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으로 학교에 아동 생활시간의 중요성과 운동 및 수면시간 개선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함

-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 생활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해 보호자가 아동의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업이나 미디어에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데 동참하여 가정에서부터 균형 있는 일상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

부록

〈표 139〉 지역 인프라 원점수

단위(% , 만원, 개, km², 명, 건, 명/km²)

시도별	경제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인구 인프라			안전 인프라	
	경제 성장률 ¹⁾	가구 부채 ²⁾	실업률 ³⁾	사교육 비 ⁴⁾	사교육 참여율 ⁵⁾	문화 시설 수 ⁶⁾	체육 시설 수 ⁷⁾	도시공 원면적 ⁸⁾	인구 밀도 ⁹⁾	합계출 산율 ¹⁰⁾	인구 감소 지역 ¹¹⁾	아동 범죄 건수 ¹²⁾	감염 등급 ¹³⁾
서울 특별시	1.6	11,838	2.7	63	84.8	4.8	110.8	4.7	15,560.7	0.593	0.00	2.18	5
부산 광역시	2.6	8,325	3.1	43	80.1	4.3	103.4	17.3	4,272.8	0.723	11.30	1.81	4
대구 광역시	1.7	8,232	3.1	46	80.2	4	107.9	7.2	2,673.7	0.757	9.68	1.56	4
인천 광역시	6	9,745	3.2	42	77.3	4.3	115.4	13.6	2,801.3	0.747	2.68	2.21	3
광주 광역시	1.7	6,478	2.5	40	76.3	5.5	127.4	12.4	2,931.9	0.844	4.75	1.23	2
대전 광역시	4.5	8,352	2.8	41	77.9	4.2	119.5	12.4	2,730.7	0.842	38.44	2.29	3
울산 광역시	-0.5	7,094	3.4	37	78.2	4.1	117.4	10.3	1,044.9	0.848	0.00	2.17	2
경기도	3.6	12,140	2.6	47	81.9	4.5	106	11.2	1,344.9	0.839	1.00	2.09	4
강원특별 자치도	3	5,410	2.8	32	72.6	16	122.3	15.8	90.8	0.968	42.39	1.54	5
충청북도	4.5	5,983	2.3	32	72	8.9	117.4	13.7	219.4	0.871	10.26	1.76	2
충청남도	2.5	6,207	2.6	31	70.2	9.1	109.6	11.5	265.9	0.909	16.52	2.24	3
전북특별 자치도	2.1	6,288	2.5	30	69.8	10.8	119.9	24.6	219.8	0.817	28.61	1.68	3
전라남도	-1.9	5,146	2.2	28	67.3	13.4	118.5	26.4	143.3	0.969	17.84	1.93	4
경상북도	1.7	5,248	2.6	32	73.8	8.9	105.8	16.4	137.7	0.930	29.60	1.45	3
경상남도	4.6	6,111	2.5	32	74.9	7.2	110.7	15.8	311.2	0.838	11.49	1.64	2
제주특별 자치도	4.6	5,776	1.9	35	74.8	19.3	136.8	16.6	365.6	0.919	0.00	2.54	1
세종특별 자치시	3.3	13,936	2	47	83.9	6.8	100.3	63.3	822.9	1.121	0.00	1.01	1

- 주: 1) 경제성장률(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2) :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2) 가구부채(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전 가구 평균 가구 부채(만원)
 3)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행정구역(시도)별 실업률(%)
 4) 사교육비(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5) 사교육참여율(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초·중·고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6) 문화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개), [(문화기반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개)
 7) 체육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2021 재구성) : 인구 십만명당 등록·신고 체육시설 업소수(개), [(체육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8) 도시공원면적(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2022)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의 조성면적(km²), [(총공원면적(km²))÷도시지역인구(명))×1,000]
 9) 인구밀도(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 인구밀도(명/km²), [(인구(명))÷(국토면적(km²))]
 10)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 가임연령(15~49세) 여자인구에 대한 0~4세 유아 인구비(명)
 11)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2024년 4월 2일 검색, 재구성) : 각 지역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 해당 비율(%), [(상·하위 지역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해당 개수(개))÷(전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개수(개))×100]
 12) 아동범죄건수(대검찰청 「범죄분석」, 2021, 재구성) : 아동인구천명당 아동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대상 범죄) 건수(건), [(총 건수(건))÷(2021아동인구수(명))×1000]
 13) 감염병 안전등급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 2022) : 상대등급인 지역안전지수의 감염병 분야지수로 가장 안전한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안전하지 못한 하위 5등급까지 있음., [지역안전 상대등급: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등급)

〈표 140〉 시도별 과밀학급 학생 비율 및 학급당 학생 수 평균

단위(명, %)

시도별		과밀학급 ¹⁾ 에서 공부하는 학생비율		전체	학급당 학생 수	
		비해당	해당		평균	표준편차
서울특별시	빈도	1,283	277	1,560	23.33	5.15
	비율	82.2	17.8	100.0		
부산광역시	빈도	462	122	584	23.97	4.72
	비율	79.1	20.9	100.0		
대구광역시	빈도	354	111	465	24.20	4.63
	비율	76.1	23.9	100.0		
인천광역시	빈도	420	178	598	24.89	5.15
	비율	70.2	29.8	100.0		
광주광역시	빈도	273	43	316	23.45	4.40
	비율	86.4	13.6	100.0		
대전광역시	빈도	222	72	294	23.57	5.34
	비율	75.5	24.5	100.0		
울산광역시	빈도	202	43	245	23.49	4.81
	비율	82.4	17.6	100.0		
경기도	빈도	1,749	1,165	2,914	26.05	5.26
	비율	60.0	40.0	100.0		
강원특별자치도	빈도	220	56	276	22.60	6.20
	비율	79.7	20.3	100.0		
충청북도	빈도	255	57	312	23.37	5.55
	비율	81.7	18.3	100.0		
충청남도	빈도	263	179	442	25.38	6.04
	비율	59.5	40.5	100.0		
전북특별자치도	빈도	275	71	346	23.33	5.50
	비율	79.5	20.5	100.0		
전라남도	빈도	265	77	342	23.45	5.25
	비율	77.5	22.5	100.0		
경상북도	빈도	419	54	473	23.28	4.18
	비율	88.6	11.4	100.0		
경상남도	빈도	518	178	696	24.55	5.02
	비율	74.4	25.6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빈도	104	53	157	25.33	4.82
	비율	66.2	33.8	100.0		
세종특별자치시	빈도	120	0	120	22.12	4.02
	비율	100.0	0.0	100.0		
전체	빈도	7,404	2,736	10,140	24.47	5.27
	비율	73.0	27.0	100.0		

주: 1) 교육부 기준 과밀학급(28명 이상)

〈표 141〉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연간 누적 학생 수 및 비율

단위(명, %)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¹⁾ (연간 누적 인원, 70% 총화추출)	시도별 학생 수 ²⁾ (70% 총화 추출)	누적 학생 비율 ³⁾
서울특별시	2,546,901	564,811	450.93
부산광역시	4,417,383	204,878	2,156.10
대구광역시	2,934,999	167,865	1,748.43
인천광역시	2,339,601	207,965	1,125.00
광주광역시	416,174	116,457	357.36
대전광역시	2,000,126	106,469	1,878.60
울산광역시	641,306	87,291	734.68
경기도	10,685,062	1,014,632	1,053.10
강원특별자치도	788,082	100,221	786.34
충청북도교	879,378	113,981	771.51
충청남도교	2,017,592	162,579	1240.99
전북특별자치도	2,787,166	126,393	2205.16
전라남도	1,968,930	126,039	1562.16
경상북도	3,407,778	175,137	1945.78
경상남도	5,208,238	247,782	2101.94
제주특별자치도	958,824	56,005	1712.03
세종특별자치시	406,249	37,722	1076.96

주: 1)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 수는 2022년 한 해간 스포츠 클럽에 참여한 총 학생 수로 '누적 학생 수'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스포츠 클럽 모두 포함하며, EDSS 자료로 70% 총화 추출된 자료를 사용함.

2) EDSS 자료는 70% 총화추출 자료로 시도별 '100% 전체 학생 수'와는 다름, 본 자료는 EDSS의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학생 수를 활용했기에, EDSS 상 70% 총화추출 된 2022년도 '전체 학생 수'를 활용함.

3) [(시도별 학생체력등급 4등급+5등급 학생 수(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명))×100]

〈표 142〉 Compulsory Instruction Time (의무교육시간) In General Education 2022
'In hours,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단위(시간)

구분	시간			
국가	Primary	Primary Total	Lower Secondary	Lower Secondary Total
OECD 평균	805	4830	916	2748
벨기엘	507	2028	736	2208
크로아티아	473	1892	663	2652
폴란드	558	2232	754	3016
라투비아	584	3504	778	2334
헝가리	679	2716	803	3212
터키	720	2880	843	3372
핀란드	660	3960	808	2424
슬로베니아	682	4092	766	2298
에스토니아	661	3966	823	2469
한국	655	3930	842	2526
오스트리아	705	2820	930	3720
슬로바키아	677	2708	823	4115
스웨덴	714	4284	869	2607
그리스	747	4482	811	2433
체코	687	3435	888	3552
EU25 평균	738	3690	876	3504
브라질	800	4000	800	3200
일본	778	4668	890	2670
독일	724	2896	896	4480
이탈리아	904	4520	990	2970
루마니아	720	3600	1001	4004
아이슬란드	729	5130	839	2517
리투아니아	644	2576	842	5052
스위스	799	4794	963	2889
포르투갈	874	5244	818	2454
노르웨이	753	5271	874	2622
스페인	792	4752	1057	3171
룩셈부르크	924	5544	854	2535
아일랜드	903	5418	918	2754
프랑스	864	4320	968	3872
칠레	1028	6168	1066	2132
캐나다	922	5532	925	2775
이스라엘	918	5508	976	2928
네덜란드	940	5640	1000	3000
미국	974	5844	1021	3069
콜롬비아	1000	5000	1200	4800
코스타리카	1147	6882	1120	3360
덴마크	1000	7000	1200	3600
호주	1000	7000	1000	4000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23(OECD)

*에스핑 안데르센 복지국가 유형 참고. 분홍색=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파란색=자유주의 복지국가/주황색=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초록색=아시아 국가 (한국_자유주의&일본=자유+보수주의 국가)